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 <홍길동전> 연구

-이본 및 주제의식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 기 환

2022년 8월



# <홍길동전> 연구

-이본 및 주제의식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강 문 중

박 기 환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6월

박기환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최 상 준



위 원

김 동 호



위 원

강 문 중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2년 6월



## <차 례>

### <국문초록>

I. 서론 .....	1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	1
2. 선행 연구 및 연구 범위 .....	3
II. <홍길동전>의 이본 검토 .....	9
III. 이본 계열의 설정 .....	23
1. 공통 화소 및 변별 요소의 비교 .....	23
2. 계열의 재설정 및 선본(善本)의 형태적 특징 .....	35
IV. 저항과 비판적 서사의 재인식 .....	45
1. 계급별 인물 형상화의 한계 .....	45
2. 기존 관념의 타협적 수용 .....	51
3. 욕망의 성취와 절반의 극복 .....	56
V. 결론 .....	64
<참고문헌> .....	66

<Abstract> .....	69
<부록> .....	71

## <표 차례>

<표 1> <홍길동전> 이본 현황 .....	10
<표 2> <홍길동전> 핵심 화소 .....	25
<표 3> <홍길동전> 변별 요소 .....	26
<표 4> <홍길동전> 인명 비교 .....	38

## <그림 차례>

<그림 1> <홍길동전> 이본 계열도 .....	41
<그림 2> <홍길동전> 김동욱 89장본의 표지 및 본문 첫 페이지 .....	43

## <국문 초록>

이 글은 고소설 <홍길동전>의 이본을 검토하여 계열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선본(善本)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더불어 선본으로 규정된 텍스트를 분석한 뒤 작품이 지닌 저항과 비판적 주제를 약화시키는 양상에 주목하여 주제의식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검토 결과, 현재까지 밝혀진 <홍길동전>의 이본은 국문필사본 76종, 한문필사본 1종, 경판본 5종, 안성판본 2종, 완판 2종, 국문판각본 5종, 구활자본 18종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의 정리 중 필사본에서 11종, 방각본에서 2점, 구활자본에서 새로운 이본 2종을 포함한 8점이 추가된 결과이며 정확한 출판 지역을 확인할 수 없는 국문판각본을 제외하고 밝혀진 <홍길동전> 이본의 종류는 총 104종임을 밝혔다.

다음으로 <홍길동전> 이본의 계열을 재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공통 화소 및 변별 요소의 비교, 고유명사의 비교를 통해 새로운 이본 관계를 설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김동욱 89장본을 선본(善本)으로 규정하였다. 새롭게 설정한 이본 계열은 김동욱 89장본 계열을 바탕으로 김동욱 47장본, 박순호 86장본, 정명기 77장본 계열로 분화하였고 김동욱 47장본 계열에서는 경판 23장본 계열, 경판 21장본 계열, 경판 24장본 계열로 재차 분화한 것으로 파악했다.

마지막으로 작품의 비판적·저항적 주제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약화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우선 사회의 지배 세력이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차별의 대상이 되는 피지배 계층의 모습이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계급별 인물 형상화의 한계성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독자에게 특정 계급의 형상을 지속적으로 내면화시키는 차별적 면모를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당시 사회의 주요 관념인 입신양명(立身揚名)의 논리를 살펴보았다. 입신양명에 대한 욕망은 주인공 길동의 개인적 가치 실현과 더불어 부조리한 사회 체제를 용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충(忠)·효(孝)의 논리가 길동이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환상적 힘을 제약하는 양상을 살펴보며 기존 사회 관념을 수용하는 보수적 면모를 강조하였다. 또한 전통

시대 인식의 한계와 이본의 축약 혹은 윤색의 과정으로 인해 옥망의 성취가 절반의 극복으로 드러나는 면모를 확인했다. 이를 통해 <홍길동전>이 사회소설을 지향했으나 이를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한 채 그 문제가 개인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핵심어: <홍길동전>, 이본 계열, 사회 소설, 주제 의식, 저항과 비판의 약화



# I. 서론

##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이 연구는 현존하는 고소설 <홍길동전>의 이본 현황을 조사하여 이본(異本)의 계열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선본(善本)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더불어 선본으로 규정된 텍스트를 분석한 뒤 작품이 지닌 저항과 비판적 주제를 약화시키는 양상에 주목하여 그 주제의식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홍길동전>은 국내에 소개된 고소설 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로 한국 고소설사(古小說史)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대중들에게도 친숙한 텍스트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작품은 흥미롭게도 주요 쟁점 사항<sup>1)</sup>들에 있어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해소된 바 없는 문제작이다. 때문에 <홍길동전>은 그동안 연구자들에게 하나의 난제와 같이 여겨졌고 그 논의 또한 일정한 한계를 지닌 채 이뤄졌다.

그동안의 <홍길동전> 연구는 작품이 지닌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히 진행됐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적 열기는 2,000년대 이후부터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논의 자체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나 대부분 학제 간 연구가 중심으로, 텍스트에 대한 기초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짐작되는데, 하나는 <홍길동전>에 대한 연구가 이전부터 철저히 진행된 나머지 그 이상의 참신한 연구가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한정된 연구대상<sup>2)</sup>으로 인해 논의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길동전>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소개된 <홍길동전>의 이본과 새롭게 발견된 <홍길동전>의 이본

- 
- 1) 이문규는 <홍길동전>의 주요 쟁점 사항들로 작가 시비 문제, 원본 추정 문제, 형성 배경의 문제, 작품의 성격 규명의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문규, 『洪吉童傳』, 『(황패강 교수 정년퇴임기념 논총) 古典小說研究』, 一志社, 1993, 667쪽.
  - 2) <홍길동전>의 원본이나 원본을 저본으로 삼은 이본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작품에 대한 논의는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을 함께 검토한 최신의 현황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전까지의 논의에서는 연구의 방향이 작품의 규명에 치우친 나머지 이본의 현황과 같은 고소설 논의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기초 자료에 대한 소개가 미진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최근에는 그동안 소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이본들이 꾸준히 발견되고 있으며 현재는 기관들의 DB원문 공개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이본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텍스트에 대한 접근성 또한 높아진 상태이다. 그러나 이들 이본의 개별적 면모만으로는 그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된 이본을 바탕으로 한 현황을 새롭게 검토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이뤄진 기초 자료에 대한 정리는 서지사항이나 형태적 특징이 잘 드러난 경우, 시기가 다소 지난 것으로 최신의 자료가 반영되지 않았고, 비교적 최근 자료의 경우 소장처와 간략한 서지사항만이 언급되어 그 특징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최신의 <홍길동전> 이본 목록을 작성하고 그 특징을 밝혀 작품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홍길동전>의 이본 계열에 대해 새롭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홍길동전>의 경우 여타 고소설과 비교하여 훨씬 다양한 형태로 많은 수의 이본이 남아 있으며 이를 친연성에 따라 계열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 구분은 비단 이본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본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로도 활용 가능하다. 특히 <홍길동전>의 이본은 특정 대목의 유무가 작품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연구에 앞서 선본 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이본의 계열을 구분하는 작업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사실 그동안의 연구는 이 논의가 배제된 채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홍길동전>의 전체 연구 성과 중 이본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한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 또한 기존에 제시된 계열의 구분을 면밀한 고찰 없이 답습하여 해당 논의에 대한 성찰이 이뤄지기 어려웠던 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이본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기반으로 기존에 이뤄졌던 계열의 구분을 검토한 뒤 보완의 여지가 존재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계열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정립된 선본이라 할지라도 재확인하여 선본을 새로이 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셋째, <홍길동전>의 주제의식이 드러나는 양상을 텍스트의 정치한 분석을 통

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홍길동전> 분석은 대개 당시의 시대적 환경이나 작자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한 주제 규명에 방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것이 작품을 분석하는 데 매우 모범적인 접근 방법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현존하는 <홍길동전> 이본의 대다수는 19세기 이후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창작 당시의 원본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따라서 17세기경에 활동했던 허균의 관점과 그 당시의 시대상을 작품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발생한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작품 외적인 부분에만 천착하기보다는 텍스트 속 서사에 집중한 논의 또한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의 대상은 연구자의 편의에 따라 선별하는 것이 아닌 먼저 진행된 이본 계열의 구분 과정에서 도출된 선본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 2. 선행 연구 및 연구 범위

<홍길동전> 연구의 효시는 김태준의 『조선소설사』<sup>3)</sup>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임진·병자 양란 사이에 발흥된 신문예의 하나로 <홍길동전>을 소개했으며 그 주제를 ①계급타파 특히 서적차별의 폐지를 고조한 것, ②향토거벌과 토호와 귀족을 질시하며 지방수령의 불의지재를 몰수하여 빈민을 구제한 것, ③중국 울도국에 들어가서 왕이 된 것 등의 세 가지로 규정했다.<sup>4)</sup> 이런 그의 논의를 시작으로 90여 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작품에 대한 다채로운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사이 소개된 연구논저는 500편을 상회한다. 현재까지 전개된 <홍길동전>에 대한 핵심적 연구는 주제론, 이본론, 작자 규명의 문제 등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그 중 대부분의 논의가 뚜렷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는 작품에 대한 쟁점 사항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우선 <홍길동전>은 작자 규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작품이다. 이 문제는 크게 허균을 작자로 파악하는 입장과 이를 부정하는 입장으로 나뉜다. 허균 창작설은 김태준이 『조선소설사』에서 <홍길동전>의 작자를 허균으로 규정한 이래

3) 김태준, 『朝鮮小說史』, 學藝社, 1939.

4) 위의 책, 83쪽.

오랜 시간 정설로 여겨졌으나, 이능우는 허균이라는 인물을 소인(小人)으로 평가하며 <홍길동전>과의 관계를 부정했다.<sup>5)</sup> 김진세 또한 허균 창작의 주요 근거가 되는 <택당집>에 실린 기록에 대한 의심과 기자현의 상소 내용에서 <홍길동전>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 등 정황적 근거를 바탕으로 허균 창작설을 부정했다.<sup>6)</sup> 이윤석 역시 <홍길동전>의 창작 시기를 19세기 중반으로 보고 작자를 조선왕조 해체기의 탈락계층으로 추정하며 허균 창작설에 대한 의문을 제시했다.<sup>7)</sup> 정설로 여겨졌던 허균 창작설의 부정적 견해가 등장하자 이에 대한 반론 또한 뒤를 이었다. 차용주는 앞선 이능우와 김진세의 논의가 수긍 가는 점이 있어도 해당 추론을 뒷받침할 만한 논증 자료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허균의 저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sup>8)</sup> 이문규 또한 허균과 홍길동 간의 상관성에 주목하여 그 의식구조가 일맥상통함을 근거로 허균을 작자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였다.<sup>9)</sup> 이와 같이 양쪽의 논의가 첨예하게 갈리자 허균의 창작을 인정하되 그 내용이 현재와는 다소 거리가 있을 것이라는 새로운 주장이 1990년대 이후 제기되었다. 박일용은 <택당집>의 기록을 받아들여 <홍길동전>을 허균이 지었다고 할지라도 현전 <홍길동전> 이본들과는 거리가 있을 것이라 하였고<sup>10)</sup> 장효현은 허균의 <홍길동전>이 현전 <홍길동전>의 내용과 같은 골격을 지니고 있으나 후대에 일정하게 부연·윤색되어 전해진다고 보았다.<sup>11)</sup> 이처럼 작자와 관련하여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홍길동전> 작자 확정에 대한 일정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택당의 기록에서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었다는 명확한 언급이 존재하는 한, 이를 부정하는 내용의 새로운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허균을 <홍길동전>의 작자로 봐야 할 것이다.

작품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상술한 것처럼 김태준이 <홍길동전>의 주제를 사

5) 이능우, 「許筠論」, 『論文集』 Vol.5, 淑明女子大學校, 1965.

6) 김진세, 「洪吉童傳의 作者考: 하나의 假設提起를 위하여」, 『論文集』 Vol.1, 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1969.

7) 이윤석, 「<홍길동전> 원본 확정을 위한 시론」, 『동방학지』 Vol.8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4.

8) 차용주, 「허균론재고」, 『아세아연구』 Vol.48,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1972.

9) 이문규, 「작가와 작품의 상관성 추정 시고 -허균과 <홍길동전>의 경우-」, 『국어교육』 Vol.37, 한국어교육학회, 1980.

10) 박일용, 「<홍길동전>의 문학적 의미 재론」, 『고전문학연구』 Vol.9, 한국고전문학회, 1994.

11) 장효현, 「<홍길동전>의 生成과 流傳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No.129, 국어국문학회, 2001.

회소설로 규정된 이후 수많은 연구자들이 나름의 관점으로 작품을 분석했다. 임형택은 <홍길동전>을 봉건적 모순에 대한 민중의 저항을 그린 작품으로 규정하여 인간에게 가해진 봉건적 제약에 맞서 ‘사람’이라는 인격을 주장하고, 그 사회적 실현을 위해서 투쟁한 것이 <홍길동전>의 주제라 하였다.<sup>12)</sup> 이는 고소설에서 드러난 민중의 존재를 주목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이주형은 ‘서자→적자대우→비적→병관→왕’으로 대변되는 주인공의 신분적 변화에 주목하면서 <홍길동전>의 문제의식과 그 해결에 이르는 일관된 표면적 주제는 적서차별의 폐지이며 주인공의 신분 상승의 결과적 의미인 이면적 주제 역시 적서차별의 폐지임을 강조<sup>13)</sup>하였다. 민영대 또한 사건 속에 나타난 작자의 주제의식은 적서차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모순의 개혁 내지는 타파에 있다고 주장<sup>14)</sup>하였다. 김일렬은 <홍길동전>이 가진 사회의식을 바탕으로 재능을 발휘할 기회는 신분에 관계없이 골고루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의 통시적인 면과 하층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면 그들의 항거를 막을 길이 없게 된다는 주장의 공시적인 면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신분적 불평등을 내포하고 있는 불합리한 중세적 질서는 마땅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하나의 주장을 <홍길동전>의 주제로 규정하였다.<sup>15)</sup> 이윤석은 <홍길동전>을 단순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선 왕조 체제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반체제적인 소설로 보았다.<sup>16)</sup> 윤주필은 <홍길동전>이 신분 갈등과 체제 모순의 주제를 결합시키면서 망외인의 반역적 사고를 드러냈다고 보았다. 동시에 홍길동이 개인적 불만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적으로 나선 뒤 기존 체제를 무력화시키고 이상 국가 건설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과정을 그렸다고 평했다.<sup>17)</sup> 이들의 주장은 논리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설득력 있게 전개되었지만 기존 논의의 틀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다소 상반된 견해로 <홍길동전>의 사회 소설적 측면보다는 홍길동이라는 인물의 개인적 면모에 주목하는 관점 또한 존재한다.

12) 임형택, 「洪吉童傳의 新考察 (下)」, 『창작과 비평』 Vol.12 No.1, 창비, 1977.

13) 이주형, 「主人公의 變身을 中心으로 본 「洪吉童傳」」, 『韓國學報』 Vol.5 No.4, 일지사, 1979.

14) 민영대, 「洪吉童傳의 主題研究」, 『국어국문학』 No.83, 국어국문학회, 1980.

15) 김일렬, 「洪吉童傳의 構造와 意味」, 『국어국문학』 No.99, 국어국문학회, 1988.

16) 이윤석, 「<홍길동전> 해석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Vol.9, 溯上古典硏究會, 1996.

17) 윤주필, 「중세 지식인의 존재 방식과 <홍길동전>」, 『고소설연구』 Vol.7, 한국고소설학회, 1999.

조용호는 허균을 작자로 인정하며 길동이 유교적 가치규범에 충실함으로써 수신(修身)을 바르게 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홍길동전>의 주제를 유교적 정치철학의 실현으로 보았다.<sup>18)</sup> 김경미는 적서차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돌파구를 찾은 점에서는 문제적이지만 성공에 대한 욕망과 외부의 존재에 대한 타자화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녔다고 밝혔다.<sup>19)</sup> 이상구는 <홍길동전>에 담긴 작가의식이 봉건적 신분질서의 타파와 같은 반봉건적인 지향이나 의식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으며 작품은 당시 민중적 독자층의 의식 수준을 고려한 작가의 서사전략이 담겨 있다고 주장하였다.<sup>20)</sup> 유광수는 홍길동의 영웅성을 부정하며 <홍길동전>을 홍길동의 정치실현과 정복 과정을 통한 자기 존재증명과 욕망의 서사로 규정했다.<sup>21)</sup>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들은 정밀한 주제 분석에도 불구하고 분석의 대상이 되는 자료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여 아쉬운 면이 있다.

<홍길동전>의 이본 연구는 정규복의 ‘<홍길동전> 이본고 (一), (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는 한남본, 어청교본, 완판본, 안성본, 활판본, 필사본 등 총 여섯 형태의 <홍길동전> 이본을 검토하였으며 작품의 구성 및 표기법과 같은 내용의 비교를 통해 한남본인 경판 24장본을 최고본(最古本)이자 최선본(最善本)으로 규정하고 해당 본이 원본에 가장 가깝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이를 토대로 한남본에서 어청교본과 완판본으로, 다시 어청교본에서 안성19장본, 활판본, 필사본 등으로 이어지는 계열 관계를 설정한 바 있다.<sup>22)</sup> 이는 이본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초기 연구의 특성상 비교에 활용된 이본의 수가 적고 논의가 방각본에 집중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송성욱은 기존 연구에서는 방각본 자체의 속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음을 지적하였고 판목의 교체 및 축약 등의 근거로 한남본의 최고본(最古本) 여부를 의심하였다. 그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야동교본, 안성 23장본, 안성 19장본, 어청교본, 송동교본, 한남본, 완판본과의 교차 검토를 통해 야동교본을 가장 선행하는 본으로 파악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야동교본계와 한남본, 안성 19장본,

18) 조용호, 「洪吉童傳의 主題新考」, 『西江語文』 Vol.8 No.1, 서강어문학회, 1992.

19) 김경미, 「타자의 서사, 타자와의 서사, 홍길동전」, 『古小說研究』 Vol.30, 한국고소설학회, 2010.

20) 이상구, 「홍길동전의 서사전략과 현실인식」, 『국어교육연구』 Vol.52, 국어교육학회, 2013.

21) 유광수, 「<홍길동전>: 홍길동의 자기 존재증명과 욕망의 서사」, 『철학·사상·문화』 No.31,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19.

22) 정규복, 「洪吉童傳 異本攷」(一), (二) 『국어국문학』 No.48, No.51, 국어국문학회, 1970, 1971.

완관본 등을 기준 삼아 네 갈래로 나눈 이본 계열을 소개했다<sup>23)</sup>. 그러나 해당 논의도 방각본에 치중하여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또한 이윤석은 경관 24장본은 축약본이기 때문에 <홍길동전> 연구의 대본으로 쓰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는 방각본 19장본, 21장본, 23장본, 23장본, 30장본, 36장본과 필사본 21장본, 30장본, 89장본, 86장본 등 기존보다 확대된 이본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이를 내용에 따라 경관계열, 완관계열, 필사본계열의 세 계열로 나눈 바 있다<sup>24)</sup>. 해당 연구에서는 그 논의의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고 이후의 논의는 대체로 해당 계열의 설정을 수용하여 이뤄졌지만 계열에 속한 이본 간의 친연 관계가 다소 느슨한 점은 아쉬움을 남겼다.

이 밖에도 이종주는 한문필사본과 다른 이본들 사이의 착종 현상에 주목하였는데 경관 24장본과 완관 36장본과의 비교를 통해 <홍길동전>의 원형은 한문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시<sup>25)</sup>했고, 조용호는 가상의 모본을 기점으로 완관본과 한문본으로 이루어진 한문본 계열과 89장본, 야동본, 한남본으로 이루어진 89장본 계열을 설정하였으며 당시 전해지던 이본 중 한문본을 최고본(最古本)이며 최선본(最善本)이라 규정하였다<sup>26)</sup>. 그러나 이들의 연구 역시 주장을 입증하기에는 활용된 이본의 수가 다소 부족하다 할 수 있다.

이처럼 <홍길동전>에 대한 연구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진행됐으나 대부분의 경우 연구 대상이 혼재되어 있거나 축약된 이본을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원본이 발굴되지 못한 소설은 그와 가장 가깝다고 판단되는 이본의 선정이 중요하다. 설령 연구자 간의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나름의 분석을 통해 연구 대상을 선정하거나 선본에 대한 입장을 견지하는 작업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본에 따라 분석이 달라질 여지가 존재하는 모든 고소설을 연구할 때도 공통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홍길동전>의 이본 현황을 파악하고 그 계열을 재정립한 뒤 선본을 규정하여 서사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필자는 작품 외적인 부분과의 연관성에 집중된 논

23) 송성욱, 「<홍길동전> 이본신고」, 『冠嶽語文研究』 Vol.13 No.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8.

24) 이윤석, 「<홍길동전> 이본의 성격에 관한 고찰」, 『國文學研究』 Vol.12, 효성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소, 1989.

25) 이종주, 「한문본 홍길동전 검토」, 『국어국문학』 No.99, 국어국문학회, 1988.

26) 조용호, 「<홍길동전> 이본의 한 연구 - 한문본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시론」, 『서강어문』 Vol.9 No.1, 서강어문학회, 1993.

의에서 벗어나 텍스트에 입각하여 작품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홍길동전>에 드러난 저항과 비판의 서사가 약화되는 양상을 확인한 뒤 주제의식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 작업은 김동욱 89장본을 대상으로 하며 이본의 선정 사유 및 서지적 특징은 장을 달리하여 밝힐 것이다.

II장에서는 <홍길동전>의 이본 현황을 검토할 것이다. 목록은 형태서지학적 특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표제·소장처·권수·장수·비고(기타)’ 순으로 정리할 것이다. 또한 이 작업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분석하여 그 특징을 밝힐 것이다. III장에서는 II장에서 밝힌 이본을 비교한 뒤 계열을 설정하고자 한다. 계열의 설정은 화소의 비교 및 인명·지명·물명(고유명사)의 비교로 이뤄질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홍길동전>의 선본(善本)을 규정하고 형태적 특징을 밝힐 것이다. IV장에서는 III장을 통해 규정된 선본(善本)을 중심으로 <홍길동전>의 저항적, 비판적 서사가 계급별 인물 형상화의 한계, 기존 관념의 타협적 수용, 욕망의 성취가 절반의 극복으로 나타나는 과정 등에 의해 약화되는 양상을 살펴보고 작품의 주제 의식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이본의 계열을 새로 정립하고 텍스트를 분석한다면 한국 고소설사(古小說史)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인 <홍길동전>에 대한 연구의 지평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II. <홍길동전>의 이본 검토

<홍길동전>의 이본은 방각본(坊刊本), 필사본(筆寫本), 구활자본(舊活字本) 등의 형태로 전해지며 그 종류 또한 다양하다. <홍길동전>의 이본이 정리된 자료로는 조희웅의 『古典小說 異本目錄』<sup>27)</sup>과 이윤석의 『홍길동전 연구』<sup>28)</sup>가 대표적인데 조희웅의 정리가 방대한 자료조사를 기반으로 소장처의 청구기호까지 망라하며 폭넓게 이뤄졌다면 이윤석의 정리는 서지적 특징에 대한 고찰과 엄밀한 작업을 통한 계열 설정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한편 조동일은 <홍길동전>의 이본을 필사본 36종, 방각본 34종, 활자본 19종, 한문필사본 1종으로 총 90종을 검토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이본의 수로만 따졌을 때 전체 고소설 중 17위에 해당한다는 것<sup>29)</sup>을 밝힌 바 있다.<sup>30)</sup> 이후 조희웅이 『고전소설 연구보정 下』<sup>31)</sup>를 통해 <홍길동전>의 추가적인 이본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2018년에 같은 저자가 발간한 『한국 고전소설사 큰사전 65 호예-홍길동전』<sup>32)</sup>에서 정리된 목록이 현재까지는 가장 최근에 정리된 이본 현황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정리하게 될 <홍길동전>의 이본은 앞서 언급한 선행 연구<sup>33)</sup>들을 기본으로 하되 국내외에 소재한 기관의 정보를 취합하여 한국 고문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고문헌종합목록’<sup>34)</sup>과 국내 소재 대학의 도서관, 전국 박물관의

27) 조희웅, 『古典小說 異本目錄』, 集文堂, 1999.

28) 이윤석, 『홍길동전 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97.

29) 조동일, 『소설의 사회사 비고론』, 지식산업사, 2001, 121쪽.

30) 방각본의 경우 같은 판목을 사용하는 동일본의 경우에는 같은 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집계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31) 조희웅, 『고전소설 연구보정 下』, 박이정, 2006.

32) 조희웅, 『한국 고전소설사 큰사전 65 호예-홍길동전』, 지식을만드는지식, 2018.

33) 이 글에서 이본 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참고한 선행 연구는 본문에서 상술한 『古典小說 異本目錄』, 『고전소설 연구보정 下』, 『홍길동전 연구』, 『한국 고전소설사 큰사전 65 호예-홍길동전』임을 밝힌다.

34) 이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사)나라얼연구소,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도서관,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경기대학교 도서관, 경기성남 교육도서관, 경상국립대학교 도서관, 경주시립도서관, 경희대학교 도서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수탁),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국회도서관 자료수집과, 규남박물관, 남산도서관, 남양홍씨 정효공파(남창군), 남평문씨 인수문고,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단국대학교 퇴계기념도서관, 대구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대전가톨릭대학교도서관, 독락당,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도서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동덕여자대학교 도서관, 동신대학교 도서관, 동아대학교 한림도서관, 명재 윤증 종가, 모덕사, 민족문화발전연구소 한알, 밀양박씨 규정공파(박진철), 보성 남

문화유산 정보를 제공하는 e뮤지엄<sup>35)</sup>, 각종 연구 논저 등에서 확인한 이본들을 더하여 검토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그동안 이본 현황에 포함되지 않았던 다수의 이본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반영한 최신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현재까지 발견된 <홍길동전> 이본을 형태서지학적 특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표제·소장처·권수·장수·비고(기타)’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홍길동전> 이본 현황]

구분	표제	소장처(자)	권수	장수	비고(기타)
<b>필사본</b>					
1	길동녹 권지상/권지하	김광순 ①	2	상: 37f. 하: 24f.	하: 병조출간시서
2	길동전지단	김광순 ②	1	69f.	

평문씨, 부경대학교 도서관, 부산광역시 시민도서관, 부산대학교 도서관, 부산교육문화회관, 사우당종택, 사천목씨종친회 유물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자료실, 성암고서박물관자료실, 소수박물관, 송광사 정보박물관,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 숭실대학교 도서관, 안동대학교 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영남대학교 도서관, 영산대학교 도서관, 용인대학교 중앙도서관, 용화사 목담유물관자료실, 울산대학교 도서관, 원광대학교 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 장로회신학대학교 도서관, 전남대학교 도서관, 전북대학교 도서관, 전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전주시립도서관, 전주시립완산도서관, 제주대학교 도서관,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종로도서관, 중앙대학교 중앙도서관, 춘호재, 충남대학교 도서관, 충북대학교 도서관, 충청남도역사박물관, 한국국학진흥원 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서관, 한림대학교 부설 태동고전연구소 자료실, 한밭도서관,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화성시 역사박물관, The British Library(영국 국립도서관), 中國上海圖書館, 中國北京大學校圖書館, 中國國家圖書館, 中國復旦大學圖書館, 中國浙江大學校圖書館(절강대학교도서관), 中國浙江省圖書館, 中國雲南大學校圖書館, 日本今西龍文庫(天理大學), 日本內閣文庫(國立公文書館), 日本國立國會圖書館, 日本大谷大學圖書館, 日本大阪府立中之島圖書館, 日本天理大學附屬天理圖書館, 日本學習院大學圖書館, 日本宮內廳書陵部, 日本尊敬閣文庫, 日本對馬歷史民俗資料館, 日本小倉文庫(東京大學), 日本岩瀬文庫(西尾市立圖書館), 日本成篁堂文庫, 日本早稻田大學圖書館, 日本杏雨書屋(三木榮文庫), 日本東京大學總合圖書館, 日本東北大學圖書館, 日本東洋文庫, 日本河合文庫(京都大學圖書館), 日本筑波大學附屬圖書館, 日本蓬左文庫(名古屋市 教育委員會 蓬左文庫), 日本阿川文庫(東京大學), 日本靜嘉堂文庫, 日本駒澤大學圖書館, 日本龍谷大學圖書館, 臺灣國家圖書館, 遼寧省圖書館, 러시아 국립도서관(Russian State Library), 미국 UC버클리대학교 도서관(UC Berkeley Library), 미국 브린모어칼리지 도서관(Bryn Mawr College Library), 미국 예일대학교 도서관(Yale University Library), 미국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도서관(Columbia University Library), 미국 클레어몬트대학 도서관(Claremont Colleges Library),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도서관(Princeton University Library), 미국 하버드대학엔칭도서관(Harvard-Yenching Library), 미국 하와이대학교 도서관(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Library),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도서관(Toronto University Library), 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물관(Musé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Guimet), 프랑스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프랑스 동양언어문화학교(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프랑스 콜레주드프랑스 한국학도서관. www.nl.go.kr

35) 전국 박물관의 문화유산 정보를 제공하는 e뮤지엄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이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www.emuseum.go.kr

3	홍길동전 권지단	김광순 ③	1	58f.	병조유뉴월초오일시죽순이일낙 필, 갑인생박씨부인졸필
4	홍길동전	김광순 ④	1	28f.	낙장
5	홍길동전이라	임형택 ①	1	35f.	
6	홍길동전	임형택 ②	1	35f.	권두 낙장
7	홍길동전	임형택 ③	1	19f.	甲辰[1904]/ <회심별곡> 합철
8	김길동전	이명선	1		1974 전시목록
9	길동록	정우락	2	상: 37f. 하: 24f.	하: 병조출간시서
10	홍길동전	이희우 [Gabelentz]			
11	홍길동전	강경훈	1	39f.	家目
12	홍길동전	강전섭 ①	1	33f.	家目/ <베틀가> 합철 / 낙장
13	홍길동전	강전섭 ②	1	51f.	
14	홍길동전	강전섭 ③	1	40f.	家目/ <남초가>, <낙빈가>, <영남칠십일췌가>, <호남가> 합철
15	홍길동전	고려대학교 ①	1		
16	홍길동전	고려대학교 ②	1	58f.	필사본의 복사본
17	홍길동전	국립중앙도서관	1	70f.	갑인이월삼일에서라
18	길동전 吉童傳	김동욱 ①	1	47f.	壬子年十一月初十日必洪吉洞전 임조연十二月초십일익마침고 십육의 필호고/ 간독(簡牘), <회심문곡전> 합철
19	홍길똥전 권지단	김동욱 ②	1	55f.	갑오년이월초구일명명호필서라
20	洪吉童傳 홍길동전	김동욱 ③	1	18f.	괴미구월구일의 용머리글방의셔등초라/ 낙장
21	洪吉童傳	김동욱 ④	1	89f.	국한문 혼용
22	홍길동전	김동욱 ⑤	1	20f.	계미연원월...근서
23	洪吉童傳 홍길동전이라	김동욱 ⑥	1	28f.	丁卯十一月初日/ <적성의전> 합철
24	홍길동전	단국대학교 ①	1	23f.	책췌 영산택 九月十日
25	洪吉童傳	단국대학교 ②	1	42f.	부록(附錄): 년광문답가
26	홍길동전	동양문고	3	1: 31f. 2: 31f.	세신축십일월일스직동서

				3: 33f.	
27	홍길동전이라	박순호 ①	1	86f.	갑술연정월이칙등서호노라: 정일염파일날등서
28	홍길동전니라	박순호 ②	1	52f.	계유이월초칠일등서하노라/ 양면괘지 사용
29	홍길동전	박순호 ③	1	41f.	낙장
30	홍길동전	박순호 ④	1	43f.	신유십이월이십일필서종
31	홍길동전 단	박순호 ⑤	1	43f.	무오절월일
32	홍길동전이라	박순호 ⑥	1	39f.	무속에서 쓰는 경문 합철
33	홍길동전 권지단 洪吉童傳	박순호 ⑦	1	53f.	
34	홍길동전	박순호 ⑧	1	41f.	癸卯十一月日
35	홍길동전	박순호 ⑨	1	14f.	家目
36	홍길동전	사재동 ①	1		家目
37	洪吉東傳	사재동 ②	1		家目
38	홍길동전	전남대학교 ①	1	46f.	歲在己丑(1925)丑年上澣
39	홍길동전	전남대학교 ②	1	39f.	
40	홍길동전 권지단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①	1	19f.	
41	홍길동전 단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②	1	30f.	
42	홍길동전	연세대학교 ①	1	48f.	
43	洪吉童傳	연세대학교 ②	1		
44	홍길동전	한국학중앙연구원 ①	1	77f.	庚子十月日(표지)
45	홍길동전	한국학중앙연구원 ②	1	58f.	癸巳
46	홍길동전	영월신씨(영광)	1		
47	洪吉童傳	이수봉	1	29f.	癸巳
48	홍길동전	청량산박물관	1		
49	홍길동전	정규복	1	66f.	계축
50	홍길동전	정명기	1	77f.	계유이월이일날즈셔호노라
51	홍길동전	조종업	1	1: 31f. 2: 33f.	세책/ 제3권 이하 없음/ 제1권 말미 세지 경술·하수월 이십오일 필서
52	홍길동전	洪氏			
53	(길)동전	전북대학교	1	44f.	

54	홍길동록 洪吉童傳	계명대학교 ①	1		<몽유가>, <도덕가> 합철
55	홍길동전	계명대학교 ②	1		
56	홍길동전	선문대 중한번역 문헌 연구소	1	31f.	낙장
57	홍길동전	하동호	1	51f.	『아기장수, 홍길동, 허균 <홍길동전>』 <sup>36)</sup> 에 수록
58	홍길동전	이가원	1	21f.	계스정월일취산칠십스세용셔하 니몽논이괴전하다
59	홍길동전	뿌리깊은나무박물관 ①	1		
60	홍길동전	뿌리깊은나무박물관 ②	1		
61	홍길동전	충남대학교 ①	1		
62	홍길동전이라 洪吉東傳	충남대학교 ②	1		
63	홍길동전	충남대학교 ③	2	1: 36f. 2: 36f.	1: 세즈경술하스월이십오일필서 2: 말미 낙장
64	홍길동전단이 라	충남대학교 ④	1		
65	홍길동전	충남대학교 ⑤	1		
66	홍길동전	화봉문고 ①	1		
67	홍길동전	화봉문고 ②	1		
68	홍길동전	국립한글박물관 ①	1		한구000080 <sup>37)</sup>
69	홍길동전	국립한글박물관 ②	1		한구001557
70	홍길동전	국립한글박물관 ③	1		2016-12
71	홍길동전	국립한글박물관 ④	1	5f.	낙장/ 한구013210
72	홍길동전	국립한글박물관 ⑤	1	32f.	결본/ 낙장/ 괴 연삼월 상편이라 이을 보면 조흐리라/ 한구000081
73	홍길동전 권지단	국립한글박물관 ⑥	1	54f.	갑인생 박씨부인 필사/ 병자음뉴월초오일시작순이일낙 필/ 한구008709
74	홍길동전	국립한글박물관 ⑦	1	35f.	경오이월일/ 庚午二月日 全北南原郡朱川面龍宮里267番 地 所用品
75	홍길동전 권지 삼종	허균허난설헌기념관	1		권3에 해당하는 필사본으로 책자 형태
76	홍길동전	아단문고	1		전반부 낙장
한문필사본					

1	韋島王傳	서강대학교	1	30f.	戊申臘月二十八始作, 己酉正月初四日書終/ 한문본
<b>경판본</b>					
1	홍길동전 洪吉童傳	건국대학교	1		孝橋新刊
2	홍길동전 洪吉童傳	고려대학교 ①	1		翰南書林
3	홍길동전	고려대학교 ②	1	24f.	朝鮮光文會
4	홍길동전 洪吉童傳	규슈대학교	1	24f.	
5	홍길동전	국립중앙도서관	1	24f.	白斗鏞, 翰南書林, 大正九年[1920]
6	홍길동전	국립한글박물관	1	24f.	
7	홍길동전 권지단	김근수	1	24f.	
8	홍길동전	김동욱	1	24f.	翰南書林/ 1921
9	홍길동전	대영박물관	1		治洞新刊
10	홍길동전	동방학연구소	1	24f.	
11	홍길동전 권지단	동양어학교(파리)	1	30f.	治洞新刊
12	홍길동전	백순재	1	21f.	宋洞新刊
13	홍길동전 단	뿌리깊은나무박물관	1	17f.	덩유(丁酉)
14	홍길동전	서강대학교	1		翰南書林, 1920
15	홍길동전	서울대학교	1	24f.	
16	홍길동전	小倉文庫 (동경)	1		
17	홍길동전	손낙범	1	24f.	
18	홍길동전	여태명	1	25f.	
19	홍길동전	연세대학교	1	24f.	翰南書林, 大正九年[1920]
20	홍길동전	영남대학교 ①	1		
21	홍길동전 洪吉童傳	영남대학교 ②	1		白斗鏞, 翰南書林, 大正九年[1920]
22	홍길동전 洪吉童傳	영남대학교 ③	1		白斗鏞, 翰南書林, 大正九年[1920]
23	홍길동전	오장환	1	23f.	漁靑橋新刊
24	홍길동전 단	오한근	1	23f.	漁靑橋新刊
25	홍길동전	우리한글박물관	1		
26	洪吉童傳	이병기	1		
27	홍길동전	임형택	1	24f.	
28	홍길동전	정병욱	1	24f.	

	권지단				
29	홍길동전	조윤제	1	23f.	翰南書林, 1921
30	홍길동전	충남대학교	1		宋洞新刊
31	홍길동전 권지단	하동호	1	21f.	
32	홍길동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		翰南書林, 大正九年[1920]月三十日
33	홍길동전	하버드대학교 엔칭도서관	1	21f.	宋洞新刊
34	홍길동전	화봉문고 ①	1		翰南書林, 1920
35	홍길동전	화봉문고 ②	1		漁靑橋新刊
<b>안성판본</b>					
1	홍길동전 권지단	국립중앙도서관	1	19f.	京畿道安城郡寶蓋面其佐里百六十番地; 發行者朴星七, 安成朴星七書店, 大正6년[1917] 11월
2	홍길동전	동경대학교	1	19f.	
3	홍길동전 단	동양문고	1	23f.	안성동문이신판
4	홍길동전 단	국립한글박물관	1	19f.	
<b>완판본</b>					
1	홍길동전	국립중앙도서관	1	36f.	
2	홍길동전 洪吉童傳	김남돈	1	34f.	丁亥[1887]閏二月中旬改裝/ 낙장
3	홍길동전	단국대학교	1	36f.	
4	홍길동전	박순호 ①	1	36f.	家目
5	홍길동전	박순호 ②	1	35f.	家目
6	홍길동전	뿌리깊은나무박물관	1	36f.	
7	홍길동전	서울대학교	1	36f.	多佳書鋪, 1916
8	홍길동전	여태명	1	34f.	
9	홍길동전	영남대학교	1	36f.	
10	홍길동전	완판본문화관	1		
11	홍길동전	우리한글박물관	1		
12	홍길동전	이화여자대학교	1		
13	홍길동전	화봉문고	1		
14	홍길동전	한국근대문학관	1	36f.	
<b>국문판각본</b>					
1	洪吉童傳	대영박물관	1		
2	洪吉童傳	동양문고	1		木土混板/ 2종 소장
3	홍길동전	서울대학교	1	24f.	

4	홍길동전	홍윤표	1		전후 낙장
5	홍길동전 洪吉童傳	오죽헌시립박물관	1		
<b>구활자본</b>					
1	홍길동전	圖書分類目錄	1		京城書籍業組合
2	홍길동전	도야마대학교	1		[著·發] 姜殷馨/ 木成書林/ 1946.1.
3	홍길동전	화봉문고	1		국한자 혼용/ 大造社, 1956
4	홍길동전	국민대학교	1		大造社/ 1959
5	홍길동전	국립중앙도서관			
6	상편/하편 洪吉童傳 上篇/下篇	손종흠	1		국한자 주기/ [編·發] 勝木良吉/ 大昌書院/ 1920.1.21., 37pp.
7		국립중앙도서관			초판/ 재판/ 3판/ 4판/ 5판/ 6판/ 8판/ 10판
8		도야마대학교			초판
9		서울대학교			
10		영남대학교			1923
11		조동일			1925
12		하버드대학교 연칭도서관			11판
13	홍길동전 상편/하편 洪吉童傳 上篇/下篇	『舊活字本古小說全集』 <sup>38)</sup>	1		國漢字 順記/ [編·發] 金東縉, 德興書林/ 초판 1915.8.18, 73pp.; 재판 1916.1.23, 64pp.; 3판 1917.1.28, 49pp.; 4판 1917.9.5, 49pp.; 5판 1918.3.20, 50pp.; 6판 1919.4.26, 37pp.; 8판 1921.1.26, 37pp.; 10판 1924.1.30, 37pp.; 11판 1925.2.10, 37pp.
14	홍길동전 상편/하편 洪吉童傳 上篇/下篇	국립중앙도서관	1		[著·發] 宋敬煥/ 東洋大學堂/ 1929.12.3., 37pp.
15	홍길동전 洪吉童傳	국민대학교	1		[著·發]趙男熙/ 東洋書院/ 1925.12.25., 37pp.
16	홍길동전	국립중앙도서관			



17	상편/하편 洪吉童傳 上篇/下篇	도야마대학교			
18		홍윤표	1		[著·發] 申泰三/ 世昌書館/ 1934.2.15.: 1952.3.20.: 1953.12., 37pp.
19	홍길동전	서울대학교	1		新明書林/ 1925.10.1., 37pp.
20	륙전소설	吳漢根			
21	홍길동전	서강대학교	1		新文館/ 1913.9.5., 44pp.
22	홍길동전 洪吉童傳	박순호			家目
23		화봉문고	1		국한자 혼용/ [發], 姜權馨/ 永和出版社/ 1958.10.20.: 1961.10.10., 46pp.
24	홍길동전	대전대학교	1		以文堂/ 1925/ 상: 36pp.
25	홍길동전	조동일			
26	상편/하편 洪吉童傳 上篇	컬럼비아대학교	1		국한자 병 / [著·發] 閔明善/ 中央出版社/ 1945.12.1., 36pp.
27	홍길동전 洪吉童傳	도야마대학교			
28		서대석			家目
29		화봉문고	1		국한자 혼용/ [發] 朴彰緒/ 鄉民社/ 1964.10.30.: 1978.9.
30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1		鄉民社/ 1972.9.15.
31		국립민속박물관	1		鄉民社/ 양면인쇄, 반양장본
32		한국대중음악 박물관	1		鄉民社/ [發] 朴彰緒/ 1964.10.30.
33		허균허난설헌기념관			鄉民社/ [發] 朴彰緒/ 1978
34		국립한글박물관			鄉民社/ [發] 朴彰緒/ 1978.9.5.
35		용인시박물관			鄉民社/ 1978
36		홍길동전	영남대학교	1	
37	홍길동전 洪吉童傳	삼척시립박물관	1		[著·發] 申泰三/ 中興書館/ 소화9년 2월 15일
38	홍길동전 上	허균허난설헌기념관	1		학원사/ 鄭飛石/ 1956

36) 유병환, 『아기장수, 홍길동, 허균 <홍길동전>』, 다래헌, 2012.

37) 한글박물관 소장본의 경우 원문의 장수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는 혼동하기 쉬운 관계로 청구기호를 함께 밝히기로 함.

38) 인천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舊活字本古小說全集』, 仁川大學民族文化研究所, 1983.

위의 정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조희웅과 이윤석의 정리를 바탕으로 필자가 새로 확인한 이본을 추가한 것이다. 둘의 정리 중 장수에 이견이 있는 부분의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이본 현황이 조사된 조희웅의 정리를 우선하였다. 이 경우에는 정우락본의 하권(조희웅: 24장/ 이윤석: 23장), 강전섭①본(조희웅: 34장/ 이윤석: 33장), 이수봉본(조희웅: 29장/ 이윤석:30장) 전남대학교①본(조희웅: 46장/ 이윤석: 43장) 등이 해당하며 김동욱④본(조희웅: 87장/ 이윤석: 89장)의 경우는 검토 결과 89장임이 확인되어 이를 반영하였다. 장수에 대한 이견은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장수를 계산하는 방식의 차이거나 단순 오류이다.

다음으로 기존에 소개되었던 내용 중 오류가 있거나 새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의 경우를 바로 잡았다. 『한국 고전소설사 큰사전 65 호예-홍길동전』에서는 김동욱①본에 대한 설명으로 <년광문답가>가 합철(合綴)되어 있다고 기술하였으나 이는 단국대학교③본과의 혼동으로 보이며 『古典小說 異本目錄』에서는 바로 쓰인 것으로 보아 출판 과정에서의 오류로 짐작된다. 그리고 같은 책에서 단국대학교 51장으로 소개된 본은 <적성의전>이 합철(合綴)된 이본으로 실제로는 김동욱 28장본임이 확인되었다.<sup>39)</sup>

또한 기존 연구 중 출판 지역이 확인되지 않아 국문판각본으로 분류되었던 국립중앙도서관 37장본은 청구기호가 동일한 것을 근거로 같은 기관에서 소장중인 완판 36장본과 같은 이본으로 검토하였고 마찬가지로 기존에 68장으로 소개된 한국학중앙연구원①본 또한 검토 결과 77장임이 확인되었다. 경판본 중에서는 여태명 소장본이 25장으로 소개되었는데 이는 낙장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실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세부 서지사항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이본들의 경우 ‘권수’와 ‘장수’를 기입할 수 없었다. 그리고 현재 소장처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원 소장자의 이름으로 먼저 알려진 본의 경우 원 소장자의 이름을 따랐다. 대표적인 예로 단국대학교에서 소장중인 김동욱 소장본과 이가원 소장본,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소장중인 박순호 소장본 등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토 결과 국문필사본 76종, 한문필사본 1종, 경판본 5종, 안성판본 2종, 완판본 2종, 국문판각본<sup>40)</sup> 5종, 구활자본 18종 등이 확인되었다.<sup>41)</sup>

39) 단국대학교 51장으로 소개된 본의 필사기로 알려진 己巳十二月二十四日此書一覽書는 합철된 <적성의전> 말미에 적힌 필사기이다.

이는 기존에 소개되었던 이본 중 필사본에서 11종, 방각본에서 2점, 구활자본에서 새로운 이본 2종을 포함한 8점이 더 추가<sup>42)</sup>된 결과이며 이미 소개된 이본의 경우에도 서지 사항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형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목록에 추가할 수는 없었지만 경매로 유통되는 이본 또한 확인했으므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본의 종과 수가 다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위에서 조사된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필사본 76종 중에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필사본은 24종,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필사본은 52종이며 이중 박순호의 위탁 자료를 포함하여 총 15종의 필사본을 소장하고 있는 국립한글박물관이 가장 많은 이본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의 소장 비율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각 대학 소속 도서관 등에서 27종, 기념관 및 박물관에서 20종, 문고에서 4종, 연구시설에서 1종 등으로 나타난다.

이 중 필사기(筆寫記)가 드러난 이본은 29종이며 간지(干支)가 기록된 이본은 22종이다. 이본 중 8종은 낙장이 있으나 그 수가 많지 않다. 또한 7종의 이본이 다른 내용과 합철(合綴)되었거나 부록을 지니고 있다. 이본의 대부분은 단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김광순<sup>①</sup>본, 정우락본, 동양문고본, 조종업본, 충남대학교<sup>③</sup>본, 허균허난설헌기념관본은 상하권 내지 삼권의 형식을 가졌으며 이 중 조종업본, 동양문고본은 세책(貫冊)이다.

한문필사본은 서강대학교에서 소장 중인 위도왕전(韋島王傳)만이 유일하게 전한다. 30장으로 구성된 해당 이본은 무신납월이십팔시작, 기유정월초사일서종(戊申臘月二十八始作, 己酉正月初四日書終)이라는 필사기가 적혀 있으며 대부분의 이본이 홍길동전, 김길동전, 길동녹과 같이 주인공의 이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40) 조희웅의 정리에서는 출판 지역을 알지 못하는 이본의 경우 국문판각본이라 지칭하며 필자 또한 해당 단어를 그대로 수용했음을 밝힌다. 조희웅, 앞의 책, 8쪽.

41) 방각본의 경우 그 특성상 판목이 같은 경우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남아 있는 이본을 종류로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다. 때문에 ‘종’과 ‘점’으로 구분하여 사용해야 하며 이에 따른다면 경판본은 5종에 35점, 안성판본은 2종의 3점, 완판본은 2종의 14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2) 새로 추가한 이본은 다음과 같다. 필사본에서는 고려대학교 <sup>②</sup>본, 전남대학교 <sup>②</sup>본, 청량산박물관본, 계명대학교 <sup>②</sup>본, 충남대학교 <sup>④</sup>본, 충남대학교 <sup>⑤</sup>본, 국립한글박물관 <sup>④</sup>본, 국립한글박물관 <sup>⑤</sup>본, 국립한글박물관 <sup>⑥</sup>본, 국립한글박물관 <sup>⑦</sup>본, 허균허난설헌기념관본, 아단문고본, 방각본에서는 국립한글박물관 안성판본, 오죽헌시립박물관 판각본, 구활자본에서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대중음악박물관, 허균허난설헌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용인시박물관의 소장 정보를 추가하였으며 중흥서관과 학원사에서 출판한 <홍길동전> 판본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반면 해당 이본은 주인공의 지위에 주목하여 지어진 제목으로 <홍길동전>을 바라보는 필사자의 견해를 짐작할 수 있다.

이어서 <홍길동전>의 방각본은 경판본이 35점, 안성판본이 4점, 완판본이 13점으로 경판본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여 전하고 있다.

경판본의 경우 기관이 23점, 개인이 12점을 소장하여 기관에서 더 높은 소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 중 6점이 해외에 보관 중인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 이유는 서울에서 출판된 방각본이 해외와의 특정한 연결 지점을 통해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방각본의 해외 유통 과정을 밝히는 데 중요한 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홍길동전>의 경판본은 크게 다섯 종이 전해지는데 장수에 따라 30장본, 24장본, 23장본, 21장본, 17장본으로 구분된다. 30장본은 야동신간(治洞新刊)이라는 간기(刊記)를, 24장본은 한남서림(翰南書林)의 판권지를, 23장본은 어청교신간(漁靑橋新刊), 21장본은 송동신간(宋洞新刊)의 간기(刊記)를 삽입하여 각각 야동본, 한남본, 어청교본, 송동본 등으로 불리며 비교적 최근에 소개된 17장본의 경우 따로 불리는 이름은 없다. 또한 위의 이본을 지칭하는 명칭은 해당 이본을 출판한 방각소 및 서점을 뜻하기도 하는데 이창헌의 연구에서는 각 방각소의 활동기간을 야동(1858-1887), 어청교(1880?-), 송동(1880?-) 등으로 추정<sup>43)</sup>하고 있으나 이 활동기간만으로 각 판본의 연대를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편 앞의 방각소들과는 달리 한남서림은 출판법 이후에 방각본을 취급했던 서점이기 때문에 24장본은 판권지가 더해진 형태로 남아 전한다.

안성판본은 23장본과 19장본만이 전해지는데 23장본은 ‘안성동문이신판’이라는 간기(刊記)를, 19장본은 박성칠서점(朴星七書店)의 판권지를 가졌다. 이창헌은 이 두 본을 사실상 같은 곳에서 인행된 것으로 파악<sup>44)</sup>했으나 이후 진행된 최호석의 연구에서 23장본이 간행된 곳을 현재의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의 자연부락으로, 19장본은 이후의 기좌리로 자리를 옮긴 박성칠 서점에서 간행된 것<sup>45)</sup>을 밝혀냈기 때문에 두 본은 각각 다른 곳에서 출판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또한 <홍길

43) 이창헌 『경판방각소설 판본 연구』, 태학사, 2000, 462쪽.

44) 위의 책, 460쪽.

45) 최호석, 「안성판 방각본 출판의 전개와 특성」, 『어문논집』 No.54, 민족어문학회, 2006, 179-182쪽.

동전>의 안성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일본 동경대학교, 동양문고, 국립한글박물관 네 곳에서만 전하는데 경판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함께 언급된다. 실제로 남아 있는 이본이 다른 방각본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보아 시장에서 크게 소비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완판본은 총 13점이 남아 있으며 35장본과 36장본으로 두 개의 형태를 가진 이본이 전한다.<sup>46)</sup> 따라서 34장으로 소개된 이본은 낙장이다. 유춘동은 전주에 있던 완서(完西)와 완산(完山) 두 곳의 방각업소에서 36장본과 35장본이 만들어졌고 이 두 판본이 경쟁을 벌이다가 36장본이 시장을 장악했음을 밝힌 바 있다.<sup>47)</sup> 완판본의 경우 기관 소장이 9점, 개인 소장이 4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외에도 이미 유춘동의 연구에서 새롭게 완판 35장본과 36장본의 원간본(原刊本)과 보각본(補刻本)을 소개<sup>48)</sup>하였으나 개인 소장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관계로 목록에 추가할 수 없었다.

이외에도 정확한 출판지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이본을 국문판각본으로 규정하였는데 방각본은 이곳에 속하는 5점을 포함하여 전해진다. 그러나 방각본은 그 특성상 동일한 장수를 가진 이본끼리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경판 5종, 안성판 2종, 완판 2종을 더하여 총 9종의 이본 형태로 57점이 전해진다고 볼 수 있다.

구활자본의 경우 18종이 전해지는데 총 서른여덟 곳에서 소장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8종의 저서 중 11종이 저자나 발행자가 명시되었고 나머지 7종도 출판사가 명시되어 그 출처가 명확한 것이 특징이다.

<홍길동전>의 구활자본은 가장 이른 시기인 1913년에 출판된 『륙전소설 홍길동전』에서부터 1978년까지 출판된 『홍길동전 洪吉童傳』까지 확인되어 오랜 기간 대중들에게 사랑받아 왔음을 알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덕흥서림(德興書林)본이 1925년에 11판까지 출판되어 가장 많은 증쇄가 이뤄졌다. 앞선 시대의 출판형태인 방각본과 비교해보았을 때 괄목할 만큼의 양적 성장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

46) 유춘동은 완판 36장본을 대상으로 각 판본의 비교를 통해 간행연대를 추정한 바 있다. 유춘동, 「완판본(完板本) 홍길동전 판본 간에 나타난 목판인쇄 특징의 차이점 관찰을 통한 간행 연대의 추정」, 『보존과학회지』, Vol.38 No.2,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22.

47) 유춘동, 「완판(完板) 『홍길동전』 원간본(原刊本)의 출현, 그에 따른 판본(板本)과 간행(刊行)의 문제」 『어문연구』 Vol.49 No.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1, 201쪽.

48) 위의 논문, 196-198쪽.

다. <홍길동전>의 구활자본은 기관에서 31점, 개인이 7점을 소장하고 있으나 아직 집계되지 못한 실물도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필사본과 방각본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출판되었고 과거에 비해 향상된 출판기술을 바탕으로 하였기에 동일한 판본을 여러 곳에서 소장하고 있다. 따라서 구활자본의 경우 소장처나 소장현황보다는 출판물의 종류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홍길동전>의 이본이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은 <홍길동전>을 향한 대중들의 호응이 그만큼 뜨거웠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리고 비교적 많은 수의 이본이 남아있어 이본 간 비교를 통해 선본(先本)을 규정하거나 후대로의 변천 과정을 분석하여 독자의 성향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뤄질 연구의 질도 향상될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이본의 소장처가 보관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보존 상태 또한 불량하여 이를 확보하는 작업이 어려운 것은 아쉬운 점이다. 특히 필사본의 경우 필사연도와 필사자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검토가 여의치 않다.

이러한 간극을 연구자들은 이본 간의 비교를 통해 메꿔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이본들이 추가로 발견되어 상호 간 비교작업이 이뤄지고 명확하게 서지 정보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들이 보장된다면 <홍길동전>에 대해 보다 더 활발한 연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 Ⅲ. 이본 계열의 설정

#### 1. 공통 화소 및 변별 요소의 비교

이본 계열의 설정은 단순히 제목이나 기타 서지 사항의 검토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강문중은 <장풍운전>을 <금선각>의 이본으로 규정하며 그 근거를 네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sup>49)</sup> 작품 구조의 동일성, 작품 중심 내용의 동일성, 주요 등장인물의 일치 여부, 분량 배분의 유사성 등이 그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그 중 이본 구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작품 중심 내용의 동일성과 주요 등장인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이본을 검토하고 계열을 설정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진행된 <홍길동전> 이본 계열의 설정은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 있는 이윤석이 정리한 경판 계열, 완판 계열, 필사본 계열의 설정<sup>50)</sup>이 대표적이며 이는 <홍길동전>의 이본을 다루는 대부분의 논의에서 수용되고 있다. 이 계열의 구분은 특정 계열에서만 드러나는 대목을 선정하여 해당 대목의 삽입 여부와 함께 실제 자구의 비교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분은 매우 직관적이고 일목요연하게 계열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두 가지의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첫 번째는 계열의 명칭으로 인한 혼동의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경판과 완판 계열에 필사본이 존재하고 필사본 계열에도 필사본이 존재하는 것은 일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물론 현재 계열의 명칭은 형태서지학적 특징이 아닌 내용적 특징을 바탕으로 생성된 것이므로 충분히 수용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경판과 완판의 경우 알려진 바와 같이 경제적 이유로 인해 선행 대본을 축약한 본<sup>51)</sup>으로서 소속된 이본들을 아우를 수 있는 대표 이본이 아닐 뿐더러 필사본끼리도 친연성에 따라 다른 계열로 설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종전의 계열 설정이 이본의 특징에 따라 구분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계열을 대표할 수 있는 각각의 이본을 선정하고 명칭으로 삼아 이와 관

49) 강문중, 「〈金仙覺〉異本研究」, 『한국학』 Vol.28 No.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205-206쪽.

50) 이윤석, 앞의 논문. 61쪽.

51) 이창현, 「방각소설 출판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방각소설의 출판과 언어·문화의 표준화-」, 『古典文學研究』 Vol.35, 한국고전문학회, 2009, 145쪽.

런된 이본끼리 엮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계열 속 친연성의 문제이다. 자구가 비슷한 본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본 간에 유의미한 변이가 존재할 경우 전체 단락이나 명칭의 비교 없이 특정 대목의 삽입 여부나 진행 방식의 차이만으로 계열을 구분하는 것은 계열 관계를 다소 느슨하게 할 여지가 있다. 예컨대 같은 필사본 계열로 알려진 김동욱 89장본과 정명기 77장본은 비슷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대목이 생략되거나 고유명사(인명)에서 큰 차이<sup>52)</sup>가 드러난다. 그리고 이는 다른 이본을 포괄할 수 있을 만큼 유의미한 지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각각 다른 계열의 이본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앞선 두 가지의 경우를 고려하여 이본의 계열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사본과 방각본, 구활자본을 대상<sup>53)</sup>으로 이본 간 화소와 고유명사(인명·지명·물명)를 함께 비교 및 검토했다. 비교의 기준은 대부분의 이본을 아우를 수 있다고 판단한 김동욱 89장본<sup>54)</sup>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화소는 기준이 되는 89장본의 화소와 비교하여 일치하면 O, 불일치하면 X, 일정 부분만 일치한다면 △로 표시하고 고유명사의 경우에는 전부 기입하여 친연 관계를 파악했다. 또한 비교에 활용된 이본은 총 29본이며 검토한 화소는 130개인데, 이는 필자가 텍스트를 분석하며 사건의 순서에 따라 임의로 구분한 것이다. 더불어 중심이 되는 89장본에 없는 내용이 다른 이본에서 확인될 경우엔 따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전체 화소의 경우에는 본문에 기술하기에 다소 번다한 관계로 부록에 따로 기재하는 것으로 하며 이 장에서는 각 이본이 공유하는 핵심 화소와 계열로 구분 가능한 변별 요소만을 추출하기로 한다. 우선 <홍길동전>의 이본들이 대체로 공유하고 있는 화소인 핵심 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2) 정명기 77장본에서는 길동이 울도국의 왕이 된 이후 조선 왕에게 사신을 보내 표문을 전달하는 대목과 인현과 대부인이 홍모의 장지로 향하는 대목이 생략되어 있다. 또한 홍모/홍문, 인현/길현 등 인명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53) 계열 정리에 활용되는 이본은 다음과 같다. 김동욱 89장본, 조종업본, 김동욱 18장본, 동양문고본, 한글박물관 32장본, 김동욱 47장본, 경판 30장본, 정우락본, 완판 36장본, 정명기 77장본, 국중도 70장본, 김동욱 28장본, 박순호 86장본, 박순호 41장본, 강전섭 34장본, 경판 24장본, 경판 23장본, 경판 21장본, 경판 17장본, 안성판 23장본, 안성판 19장본, 강전섭 51장본, 송실대 19장본, 연세대 48장본, 세창서관본, 대창서원본, 김광순 28장본, 박순호 53장본, 한글박물관 35장본.

54) 김동욱 89장본은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본으로 이후로는 89장본으로 표기하도록 함.

55) 등장인물의 이름은 이 연구의 대상인 김동욱 89장본의 것을 차용하며 이후에 사용되는 모든 인



<표 2> [<홍길동전> 핵심 화소]

순번	핵심 화소
①	홍모 <sup>55)</sup> (일가) 소개
②	홍모의 태몽과 부인의 관계 거절
③	홍모와 춘심의 관계 및 잉태
④	길동의 탄생과 성장
⑤	홍모의 제약과 길동의 한탄
⑥	초낭의 계약
⑦	길동의 승리와 망명도주
⑧	도적 소굴의 발견과 대장 시험
⑨	해인사 및 함경감영 습격
⑩	활빈당 창당 및 활동
⑪	포도대장 이흠의 수난
⑫	임금의 친국과 인현의 경상감사 제수
⑬	길동의 자현과 탈출 (1)
⑭	길동의 자현과 탈출 (2) 및 병조판서 제수
⑮	임금의 정조 사급 및 길동의 조선 이탈
⑯	제도 정착 및 망당산 진입
⑰	망당산 요괴 퇴치와 부부지연
⑱	홍모의 죽음과 장지 설정
⑲	율도국 정벌 및 왕위 등극
⑳	이상 세계로의 진입

위의 표는 필자가 분석한 이본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화소를 정리한 것이다. 이본에 따라 조금씩 생략되는 경우는 있지만 대다수의 이본이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화소를 공유하고 있는 텍스트를 <홍길동전>의 이본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의 화소를 토대로 <홍길동전>의 이본을 규정한 것과 같이 이본 간 계열을 나뉘볼 수 있는 변별 요소 또한 추출해 보았다. 추출 결과 특정 사물의 존

---

명을 동일하게 처리함.

재, 형태, 개수 등으로 나타나거나 행위나 사건, 서술의 유무 등으로 드러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홍길동전> 변별 요소]

순번	내용	순번	내용
①	홍모 (일가) 소개	②5	길동의 변명 유무
②	홍모 태몽의 내용	②6	압령 장교의 원찬 유무
③	춘섬의 나이	②7	길동 살해 계획 (도부수) 유무
④	길동의 독백 시기	②8	남경 부근 시찰 유무
⑤	길동의 나이 언급	②9	임금과 길동의 만남 시기
⑥	장길산에 대한 언급	③0	정조 사급 기관장
⑦	관상녀의 대사	③1	길동의 울동 상해 이유
⑧	길동의 능력 배양	③2	울동에게 잡힌 인질의 자살 시도 양상
⑨	길동의 자객 탐지 묘사	③3	처첩의 양상
⑩	길동의 초냥 살해 거부 이유	③4	백소저의 위로
⑪	호부호형의 허락	③5	길동의 중 모습 흉내
⑫	부인의 번뇌와 장자의 위로	③6	홍모의 사망 당시 나이와 춘섬과의 대화 여부
⑬	길동의 장수 희망과 퇴출	③7	길동이 정한 장지에서의 신이한 현상
⑭	도적 장수 시험	③8	길동과 인현의 작별 상황
⑮	해인사 관군 소환자	③9	율도국 소개 대사
⑯	함경감영 습격	④0	율도국 침략 일자의 표기
⑰	초인(草人)과 부하들의 인원 수	④1	철봉 전투 장면의 유무
⑱	임금의 길동에 대한 비유	④2	율도왕실의 자결 양상
⑲	길동의 포장 시험 장소	④3	길동 즉위 일자 유무
⑳	인현의 설득 상황에서의 행동	④4	길동의 지난날 소회 유무
㉑	길동의 호부호형에 대한 원망	④5	길동의 표문 유무
㉒	홍모의 실신 사유	④6	길동 모친의 사망 당시 나이 유무
㉓	길동의 신체 비밀 묘사	④7	길동의 자녀 명수
㉔	길동 낭중의 환약 개수		

변별 요소는 위와 같이 47개로 나뉘볼 수 있다. 이 요소는 필자가 확인한 <홍길동전>의 전체 화소 중에서도 이본을 나눌 수 있는 주요 변별 지점이라 판단<sup>56)</sup>된 요소만을 추린 것이다. 이를 활용하여 이본 간의 변별점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또한 공통적인 변별 요소를 가지고 있는 본의 경우에도 세부적인 묘사는 다른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맥락상 같은 요소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계열 관계를 밝히는 데는 무리가 없다. 더불어 낙장이나 낙권<sup>57)</sup>인 경우에도 남아 있는 서사가 계열 관계를 밝히는 데 중요한 지점을 차지한다면 이 또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①의 경우 소설의 시작 부분으로 홍모의 가문을 소개하는 장면이며 변별 내용은 홍모의 가문 구성원을 소개하는 이본과 홍모 개인을 소개하는 이본으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에는 89장본, 조종업본, 김동욱 18장본, 동양문고본, 김동욱 47장본, 경관 30장본, 정우락본, 박순호 86장본, 세창서관본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완관 36장본, 정명기 77장본, 국립중앙도서관 70장본<sup>58)</sup>, 김동욱 28장본이 있다.

②의 경우 홍모의 태몽 내용이 크게 청룡이 입을 벌려 달려들자 놀라며 깨어나는 이본과 청룡의 기운이 입으로 들어가는 이본으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에는 89장본, 조종업본, 김동욱 18장본, 동양문고본, 김동욱 47장본, 경관 30장본, 정우락본, 박순호 86장본, 세창서관본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완관 36장본, 정명기 77장본, 김동욱 28장본이 있다. 이외에도 국중도 70장본에서는 실과를 입에 물고 자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③의 경우 춘섬에 대한 설명 중 나이가 언급되는 이본과 언급되지 않는 이본으로 나뉜다. 나이가 언급되는 이본의 경우에는 십팔 세로 나타나며 89장본, 조종업본, 김동욱 18장본, 동양문고본, 김동욱 47장본, 경관 30장본, 정우락본, 세창서관본이 거기에 해당한다. 완관 36장본, 정명기 77장본, 국중도 70장본, 김동욱 28장본, 박순호 86장본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의 경우 길동이 독백을 하는 시기로, 추구월 망간으로 서술된 이본과 추칠월

56) 변별 지점은 수(數)의 변별, 특정 대목 유무의 변별, 인물 행동의 변별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57) 비교되는 이본 중 낙장이거나 낙권인 이본은 김동욱 89장본, 한글박 32장본, 김동욱 18장본, 조종업본, 김광순 28장본이다.

58) 앞으로 나올 국립중앙도서관 70장본은 국중도 70장본으로 표기하기로 함.

망일로 서술된 이본 등으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에는 89장본, 조종업본, 김동욱 18장본, 동양문고본, 한글박물관<sup>59)</sup> 32장본, 정우락본, 세창서관본, 김광순 28장본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완판 36장본, 정명기 77장본, 김동욱 28장본이 있다. 박순호 86장본에서는 춘사월 망간으로 서술되었으며 김동욱 47장본과 경관 30장본에서는 생략되었다.

⑤의 경우 길동의 나이에 대한 언급으로 홍모에게 한탄을 하다 꾸짖음을 당하는 대목에서 ‘십 세가 되지 않은 아이’라는 언급이 드러나는 이본과 드러나지 않는 이본으로 나뉜다. 이 언급이 드러난 이본은 89장본, 조종업본, 김동욱 18장본, 정우락본, 정명기 77장본, 김동욱 28장본이 있으며 나머지 이본에서는 생략되었다.

⑥의 경우 길동이 친모에게 한탄하는 장면에서 장길산의 이야기를 예로 드는 이본과 그렇지 않은 이본으로 나뉜다. 장길산의 대한 언급이 등장하는 이본은 89장본, 조종업본, 김동욱 18장본, 동양문고본, 김동욱 47장본, 경관 30장본, 정우락본, 세창서관본, 김광순 28장본이며 나머지 이본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⑦의 경우 관상녀와 홍모의 대화 내용에서 꺾분양 고사의 삽입 여부, ‘왕후장상니 녕유종호야’<sup>60)</sup>라는 대사의 삽입이 드러나는 이본과 그렇지 않은 이본으로 나뉜다. 꺾분양의 고사가 삽입된 이본은 완판 36장본과 김동욱 28장본, 국중도 70장본이며 나머지는 생략되었다. 또한 위의 대사는 김동욱 18장본과 동양문고본, 한글박 32장본, 김동욱 47장본, 경관 30장본, 세창서관본, 김광순 28장본을 제외한 나머지 이본에는 전부 드러난다.

⑧의 경우 길동이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에서 손오병서, 육도삼략, 천문지리, 둔갑지술을 익히게 되는데 이 경우 대체로 혼재되어 나타난다. 육도삼략과 천문지리등을 포함하여 익히는 이본은 김동욱 18장본, 동양문고본, 한글박 32장본, 김동욱 47장본, 경관 30장본, 정우락본, 세창서관본, 김광순 28장본이며 손오병서와 육도삼략을 포함하여 익히는 이본은 정명기 77장본, 국중도 70장본, 김동욱 28장본이다. 박순호 86장본의 경우에는 병서와 천문지리를 익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9) 앞으로 나올 한글박물관 32장본은 한글박 32장본으로 표기하기로 함.

60) 왕후장상녕유종호(王侯將相寧有種乎)의 의미로 왕과 제후, 장수와 정승의 씨가 따로 있겠는가의 의미.

이밖에도 장신둔갑지술, 풍운조화 등을 배우기도 하는데 89장본의 경우 풍운조화를 제외한 모든 능력을 배우는 것으로 나타난다.

⑨의 경우 길동이 자객을 탐지하는 과정에서 까마귀의 존재가 알려주는 것은 동일하나 이를 묘사하는 방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완판 36장본, 정명기 77장본, 국중도 70장본, 김동욱 28장본에서는 까마귀가 우는 소리를 객자와, 곡곡, 가옥가옥 등으로 묘사하는 반면, 나머지 이본에서는 까마귀 소리에 자객이 온다는 언급만이 드러난다.

⑩의 경우 길동이 초당을 살해하지 않는 이유가 제시되는데 우선 상공이 사랑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는 이본과 의모(義母)이기 때문이라 언급하는 이본으로 나뉜다. 전자는 동양문고본, 한글박 32장본, 경관 30장본, 정우락본, 세창서관본, 김광순 28장본이 있으며 후자는 완판 36장본, 정명기 77장본, 국중도 70장본, 김동욱 28장본이 있다. 89장본, 조종업본, 김동욱 47장본, 정명기 77장본, 박순호 86장본의 경우 두 이유가 모두 나타난다. 이 화소는 관상녀가 죽기 전 초당에게 그 탓을 돌리는 과정에서 등장하는데 동양문고본, 한글박 32장본, 김동욱 47장본, 경관 30장본, 세창서관본, 김광순 28장본의 경우에는 관상녀 살해 직후에 길동의 내적 갈등 과정에서 등장한다.

⑪의 경우 호부호형의 과정인데 홍모가 길동에게 호부호형을 허락해주는 과정에서 그 제약을 먼저 풀어주는 이본과 길동의 요청으로 풀어주는 이본으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에는 동양문고본, 한글박 32장본, 김동욱 47장본, 경관 30장본, 세창서관본, 김광순 28장본이 해당하며 나머지 이본에서는 길동에 요청에 의해 이뤄진다.

⑫의 경우 길동을 살해하는 일을 허락한 부인이 번뇌하고 장자가 이를 위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이본과 그렇지 않은 이본으로 나뉜다. 이 대목이 드러나는 이본은 89장본과 조종업본, 정우락본, 완판 36장본, 정명기 77장본, 국중도 70장본, 김동욱 28장본이 해당하고 나머지 이본에는 이 대목이 드러나지 않는다.

⑬의 경우 길동이 도적 소굴에 들어가 장수되기를 희망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쫓겨나는 이본과 바로 시험을 부여받는 이본으로 나뉜다. 도적들에게 한 차례 쫓겨나는 이본은 완판 36장본과 정명기 77장본, 국립도서관 70장본, 김동욱 28장본, 박순호 86장본이 해당하며 나머지 이본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⑭의 경우 도적들의 장수가 되는 시험에서 돌을 들어 걷다가 다시 내려놓는 이본과 던지는 이본으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완판 36장본과 정명기 77장본, 국중도 70장본, 김동욱 28장본, 박순호 86장본이 해당하며 후자의 경우 89장본, 조종업본, 김동욱 18장본, 한글박 32장본, 정우락본, 세창서관본, 김광순 28장본이 해당한다.

⑮의 경우 해인사를 습격할 당시 관군을 소환하는 절의 인원이 목공으로 나타나는 이본과 불목하니로 나타나는 이본 두 가지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89장본과 완판 36장본, 정명기 77장본, 국중도 70장본, 김동욱 28장본, 박순호 86장본이 해당하며 후자는 그 나머지 이본에 해당한다.

⑯의 경우 함경감영을 습격하는 과정에서 수하를 변복시키는 이본과 그렇지 않은 이본으로 나뉜다. 수하를 변복시키는 이본은 89장본과 조종업본, 정우락본에서만 드러난다.

⑰의 경우 길동이 만든 초인이 팔도로 흩어지게는 과정에서 데리고 가는 수하들의 수가 일천, 수백, 오백, 오십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89장본, 조종업본, 정우락본은 오백 명으로, 정명기 77장본, 박순호 86장본은 일천 명으로, 국중도 70장본과 김동욱 28장본은 오십 명으로, 김동욱 18장본, 동양문고본, 한글박 32장본, 김동욱 47장본, 경판 30장본, 세창서관본, 김광순 28장본은 수백 명으로 각각 묘사된다.

⑱의 경우 임금이 길동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초패왕, 제갈공명, 치우 등에 비견하는데 각 이본마다 다르게 나타나거나 생략되어 있다. 89장본과 조종업본에서는 초패왕과 제갈공명으로, 정명기 77장본과 박순호 86장본에서는 초패왕으로, 동양문고본, 경판 30장본, 세창서관본, 김광순 28장본에서는 치우로, 정우락본에서는 치우와 공명으로 비견되며, 나머지 이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⑲의 경우 길동이 포장을 시험하는 과정에서의 장소가 바위로 나타나거나 층암절벽, 뫼 등으로 나타난다. 완판 36장본, 국중도 70장본, 김동욱 28장본만이 층암절벽으로 묘사되고 박순호 86장본에서는 뫼로, 나머지 이본은 바위로 묘사된다.

⑳의 경우 길동과 인현의 해후 과정에서 인현이 말을 마치고 눈물을 흘리는 이본과 그렇지 않은 이본으로 나뉜다. 완판 36장본과 국중도 70장본, 김동욱 28

장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이본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나타난다.

㉑의 경우 길동과 인현의 대화에서 길동의 호부호형 제약에 대한 원망이 나타나는 이본과 그렇지 않은 이본으로 나뉜다. 완판 36장본과 국중도 70장본, 김동욱 28장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이본에서 호부호형의 제약에 대한 원망이 드러난다.

㉒의 경우 홍모의 실신 과정에서 우구하거나 답답한 마음에 실신하는 이본과 꾸중하는 도중에 실신하는 이본 두 가지로 나뉜다. 홍모의 실신 사유가 드러난 이본은 완판 36장본과 국중도 70장본, 김동욱 28장본이며 나머지 이본은 후자에 속한다.

㉓의 경우 길동의 신체적 비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다리의 붉은 점만을 언급하는 이본과 개수까지 언급하는 이본 두 가지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는 완판 36장본, 정명기 77장본, 국중도 70장본, 김동욱 28장본이며 나머지 이본은 후자에 해당한다.

㉔의 경우 길동이 홍모를 구원하는 과정에서 환약을 낼 때 한 개씩 내는 이본과 두 개씩 내는 이본 두 가지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는 김동욱 18장본, 동양문고본, 한글박 32장본, 김동욱 47장본, 경판 30장본, 세창서관본, 김광순 28장본이 해당하며 나머지 이본은 후자에 해당한다.

㉕의 경우 임금의 친국 과정에서 변명하는 길동의 모습이 길동이 나타난 이본과 그렇지 않은 이본으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에는 89장본과 완판 36장본, 국중도 70장본, 김동욱 28장본이 해당하며 김동욱 18장본, 한글박 32장본, 김동욱 47장본, 경판 30장본, 정우락본, 세창서관본에서는 십 년 뒤에, 박순호 86장본에서는 3년 뒤에 조선을 떠난다는 대사만이 드러난다. 완판 36장본, 국중도 70장본, 김동욱 28장본에서는 변명의 내용이 불도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나 89장본에서는 비판이 드러나지 않는다.

㉖의 경우 길동을 압령하는 장교들이 임무에 실패하자 원찬(遠讖)을 당하는 이본과 그렇지 않은 이본으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에는 89장본, 정명기 77장본, 김동욱 28장본, 정우락본, 박순호 86장본이 해당하며 나머지 이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㉗의 경우 길동이 병조판서 직위를 받고 사은하러 오는 과정에서 도부수를 이

용해 살해를 계획하는 이본과 그렇지 않은 이본 두 가지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에는 89장본, 김동욱 18장본, 동양문고본, 한글박 32장본, 김동욱 47장본, 경관 30장본, 정우락본, 박순호 86장본, 세창서관본, 김광순 28장본이 해당하며 나머지 이본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㉘의 경우 조선을 떠난 길동이 남경 부근을 시찰하는 이본과 그렇지 않은 이본 두 가지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에는 89장본, 김동욱 18장본, 동양문고본, 한글박 32장본, 김동욱 47장본, 경관 30장본, 정우락본, 세창서관본, 김광순 28장본이 해당하며 나머지 이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㉙의 경우 임금과 길동이 만나는 날이 추구월 망일로 지정된 이본과 단순히 삼년 후로 나타난 이본으로 나뉜다. 삼년 후로 나타난 이본은 완판 36장본과 국중도 70장본, 김동욱 28장본이며 나머지 이본은 추구월 망일로 나타난다. 다만 정우락본과 박순호 86장본의 경우 삼년 후, 추구월 망간으로 나타난다.

㉚의 경우 임금이 길동에게 내리는 정조를 사급하는 과정에서 사급 기관의 장이 선혜당상 혹은 혜청당상, 대동당상 등의 이름으로 나뉘어 나타난다. 대동당상으로 나타나는 이본은 완판 36장본, 국중도 70장본, 김동욱 28장본, 김동욱 18장본이며 나머지 이본은 선혜당상 혹은 혜청당상 등으로 나타난다.

㉛의 경우 짐승인 울동에게 상해를 입히는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 이본과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하고자 하는 이본, 처자를 잡아가기 때문인 이본 세 가지로 나뉜다. 특별한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 이본은 완판 36장본, 국중도 70장본, 김동욱 28장본, 한글박 32장본, 세창서관본, 김광순 28장본이 해당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하고자 하는 이본은 정명기 77장본, 동양문고본, 김동욱 47장본, 경관 30장본, 정우락본이 해당한다. 89장본의 경우에는 처자를 잡아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으로 나타나며 동양문고본, 한글박 32장본, 김동욱 47장본, 경관 30장본, 세창서관본, 김광순 28장본에서는 길동이 울동의 소굴 앞에서 발견되는 전개로 나타난다면 나머지 이본에서는 직접 피 흔적을 따라가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㉜의 경우 울동에게 잡힌 인질이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이 드러난 이본과 그렇지 않은 이본으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89장본과 정명기 77장본, 정우락본, 동양문고본, 한글박 32장본, 김동욱 47장본, 세창서관본, 김광순 28장본이 해당하며 이 중 앞선 세 개의 이본은 한 여자가 자살하는 것을 두 여자가 말리고 뒤의 다



섯 개의 이본은 두 여자가 서로 죽으려 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그 나머지 이본이 해당한다.

㉓의 경우 길동이 얻게 되는 처첩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한 명의 처와 두 명의 처, 세 명의 처, 두 명의 처 등 다양하게 드러난다. 89장본, 완판 36장본, 정명기 77장본, 국중도 70장본, 김동욱 28장본, 정우락본, 박순호 86장본은 세 여자를 부인 또는 첩 등으로 맞이하며 동양문고본, 한글박 32장본, 김동욱 47장본, 경관 30장본, 세창서관본, 김광순 28장본은 두 명의 여자를 부인으로 맞는다.

㉔의 경우 아내인 백소저에게 자신의 내력을 설명하는 장면으로 백소저가 위로하는 이본과 그렇지 않은 이본으로 나뉜다. 전자는 89장본, 정우락본, 완판 36장본, 정명기 77장본, 국중도 70장본, 김동욱 28장본이 해당하며 나머지 이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㉕의 경우 길동이 홍모의 죽음 이후 중 모습을 하고 집으로 복귀하는 이본과 중의 모습을 하지 않은 이본으로 나뉜다. 완판 36장본, 국중도 70장본, 김동욱 28장본에서는 중의 모습을 하지 않으며 나머지 이본은 중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㉖의 경우 홍모가 사망할 당시의 나이가 팔십으로 나타나는 이본과 구십으로 나타나는 이본 두 가지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유언 과정에서 춘섭과의 대화가 드러나는 이본과 그렇지 않은 이본 두 가지로 나뉜다. 홍모의 사망 당시 나이가 팔십으로 드러나는 이본은 89장본, 동양문고본, 한글박 32장본, 정우락본, 세창서관본, 김광순 28장본이고 구십으로 드러나는 이본은 완판 36장본, 정명기 77장본, 국중도 70장본, 박순호 86장본이며 김동욱 18장본의 경우 칠십일 세로 명기되었다. 또한 유언 과정에서 춘섭과의 대화가 드러나지 않은 이본은 동양문고본, 한글박 32장본, 김동욱 47장본, 경관 30장본, 세창서관본, 김광순 28장본이다. 이외에도 89장본과 정명기 77장본, 김동욱 28장본은 홍모 사망 당시의 시점이 추구월 망간으로 나온다.

㉗의 경우 길동이 정한 장지에서 신이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89장본에서는 붉은 안개와 백학이, 완판 36장본에서는 청학이, 정명기 77장본에서는 백학이, 국중도 70장본에서는 청학과 백학 한 쌍이, 김동욱 28장본에서는 오색 기운과 청학 한 쌍이, 김동욱 18장본에서는 봉 한 쌍이, 정우락본에서는 붉은 안개와 백학 한

쌍이, 박순호 86장본에서는 붉은 안개와 봉황 한 쌍으로 각각 나타난다. 나머지 이본에서는 생략되었다.

㉔의 경우 길동과 인현의 이별 장면에서 이별의 정회가 깊게 드러나는 이본과 그렇지 않은 이본으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는 완판 36장본과 국중도 70장본, 김동욱 28장본이 해당하며 후자는 나머지의 이본에 해당한다.

㉕의 경우 울도국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대국 혹은 중국을 섬긴다는 대사가 삽입된 이본과 그렇지 않은 이본으로 나뉜다. 동양문고본, 한글박 32장본, 김동욱 47장본, 경판 30장본, 세창서관본을 제외한 모든 이본은 해당 화소가 삽입되어 있다.

㉖의 경우 울도국의 침략 일자가 갑자 추구월로 드러나는 이본과 그렇지 않은 이본으로 나뉜다. 전자는 89장본, 동양문고본, 한글박 32장본, 김동욱 47장본, 경판 30장본, 정우락본, 세창서관본이 해당하며 나머지 이본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㉗의 경우 울도국 침략 도중 철봉에서의 전투가 삽입된 이본과 그렇지 않은 이본으로 나뉜다. 한글박 32장본, 김동욱 47장본, 경판 30장본, 정우락본, 세창서관본을 제외한 나머지 이본에서는 철봉에서의 전투가 나타나지 않는다.

㉘의 경우 패배한 울도왕실의 자결 상황에서 울도왕만이 자결하는 이본과 아들까지 자결하는 이본, 왕비까지 자결하는 이본으로 나뉜다. 89장본, 김동욱 47장본은 울도왕이 자결하고 완판 36장본, 김동욱 28장본, 동양문고본의 경우 그 아들도 함께 자결하며 김동욱 18장본, 한글박 32장본, 경판 30장본, 세창서관본에서는 왕비까지 함께 자결하는 모습을 보인다. 나머지 이본에서는 해당 장면이 드러나지 않는다.

㉙의 경우 길동의 즉위일자가 나타나는 이본과 그렇지 않은 이본 두 가지로 나뉜다. 즉위 일자가 나타나는 경우 보통 ‘을축 정월 이십오일’로 나타나곤 한다. 완판 36장본, 국중도 70장본, 김동욱 28장본, 김동욱 18장본을 제외한 모든 이본에서 즉위일자가 나타나며 그 중 김동욱 89장본은 십이월 갑자일, 정명기 77장본은 삼월 갑자일, 정우락본과 동양문고본은 십일월 갑자일, 세창서관본은 을축 정월 초구일로 나타난다. 나머지 이본은 을축 정월 이십오일로 나타난다.

㉚의 경우 길동이 즉위 후 지난 날을 소회하는 장면이 삽입된 이본과 그렇지

않은 이본으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한글박 32장본, 김동욱 47장본, 경관 30장본, 세창서관본이 속하며 나머지 이본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④5의 경우 길동이 조선왕에게 보내는 표문이 드러나는 이본과 그렇지 않은 이본으로 나뉜다. 표문을 보내는 내용이 드러나는 경우 한림학사 정회 또는 부원군 백용이 사절의 역할을 맡는다. 완판 36장본, 정명기 77장본, 국중도 70장본, 김동욱 28장본을 제외한 이본에서 나타나며 89장본과 동양문고본, 정우락본에서는 한림학사 정회가, 나머지 이본에서는 백용이 사절의 역할을 맡는다.

④6의 경우 길동의 친모가 죽을 때 나이가 드러나는 이본과 그렇지 않은 이본으로 나뉜다. 89장과 정우락본, 정명기 77장본은 칠십, 동양문고본은 팔십, 완판 36장본, 국중도 70장본, 김동욱 28장본에서는 칠십삼 세로 나타나고 나머지 이본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④7의 경우 길동의 자녀가 삼자이녀로 나타나는 이본과 삼자로 나타나거나 생략되는 이본으로 나뉜다. 89장본, 정명기 77장본, 정우락본에서는 삼자로, 완판 36장본, 김동욱 28장본, 김동욱 18장본, 한글박 32장본, 김동욱 47장본, 경관 30장본, 세창서관본에서는 삼자이녀로 나타나며 국중도 70장본에서는 생략되었다.

이와 같은 비교를 통해 드러나는 변별 양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나이, 개수, 명수, 날짜 등 그 수의 차이와 관련된 변별의 존재이고 둘째는 해당 대목의 삽입 혹은 생략의 존재이며 셋째는 인물의 행동 양상의 변별이다. 이 세 가지의 변별 양상은 결국 <홍길동전> 이본을 구분하는 핵심 지점으로도 볼 수 있다.

## 2. 계열의 재설정 및 선본(善本)의 형태적 특징

앞의 비교를 바탕으로 <홍길동전>의 계열을 유추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각 이본을 포괄할 수 있는 선행 대본이거나 그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이본을 89장본으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해당 이본이야말로 가장 다양한 변별점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다른 이본에서 조금씩 생략되고 있는 내용의 대부분을 89장본은 간직하고 있다. 이는 춘섬의 나이(이구 동비(童婢)), 길동의 독백일(추구월 망일), 길동의 나이(십 세 소아), 함경감영 공략

당시 변복 지시 여부(육십 인), 임금의 길동에 대한 묘사(초패왕과 제갈공명), 장지에서의 신이한 현상(붉은 안개와 백학), 율도국 침략 일자(갑자 추구월), 길동 즉위 일자(십이월 갑자일) 등 다양한 변별 지점을 담고 있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sup>61)</sup> 또한 변별 화소 ⑧(길동의 능력 배양)에서 묘사되는 길동의 능력은 이본마다 다양하게 드러나는데 89장본에서는 모든 능력이 나타나며 변별 화소 ⑩(길동의 초냥 살해 거부 이유)에서 길동이 초냥을 살해하지 않는 이유로 아버지가 총애하는 인물이자 어머니이기 때문임을 들어 둘 중 하나의 이유만을 제시하는 다른 이본을 포괄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지점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이본 간의 변이 양상이 축약인지 부연인지에 대한 여부이다. 그러나 앞서 방각본의 경우 선행 대본에서 축약된 이본임을 언급했고 이 방각본과 유사한 필사본의 경우 또한 선행 대본의 축약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89장본을 원본은 아닐지라도 그에 가까운 선본(先本)계열의 이본으로 규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sup>62)</sup>

다음으로 해당 이본과 친연성이 있는 조종업본과 정우락본, 정명기 77장본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중 정명기 77장은 많은 부분에서 89장본과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관상녀의 부모가 여식을 찾고자 하는 대목, 길동이 문호에 해가 될까 자신이 찾아온 것을 알리지 말라고 인현에게 말하는 대목, 길동의 친모가 자부(子婦) 등을 보고 좋아하는 장면, 길동의 친모가 사망하는 날을 구월 망간으로 지정한 대목, 세 명의 아들을 둔 대목 등을 공유한다. 이 대목은 조종업본과 정우락본을 제외한 이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목이며 이로 미루어 보아 정명기 77장본은 89장본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대본에서 변이가 일어난 초창기의 이본이다.

조종업본과 정우락본은 89장본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두 이본의 서사는 89장본과 동일하게 진행되지만 몇몇 대목이 삭제되거나 변형되었다. 두 본 중에서는 조종업본이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이본은 3권이 낙권인 관계로 후반부의 대목을 살펴볼 수 없음에도 자각을 방지하는 과정에서 팔문둔갑지법과 장신둔갑지술을 활용하는 모습, 집을 떠날 당시 길동의 나이가 십여 세로 설정된

61) 자세한 사항은 부록의 <홍길동전> 전체 화소 비교표에서 제시하였다.

62) 이윤석은 이미 김동욱 89장본을 원본에 가장 가까운 이본으로 규정한 바 있으며 필자 또한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이윤석, 앞의 책, 82쪽.

점, 도적 무리의 수장이 된 이후 안책과 부고 문서를 준비한 것, 임금이 길동을 초패왕과 제갈공명에 비견한 것 등 다른 이본에서는 드러나지 않거나 일부 생략된 대목을 정확하게 공유하고 있으므로 조종업본은 89장본과 같은 계열이거나 바로 후행되는 이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89장본-조종업본-정우락본'으로 이루어진 계열을 상정할 수 있는데 이를 89장본 계열이라 칭하기로 한다. 정명기 77장본의 경우 이 계열과 가까운 이본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나머지 이본들의 계열을 상정하기로 한다. 앞서의 변별 요소 분석에 따르면 완판 36장본, 국중도 70장본, 김동욱 28장본이 한 갈래로, 김동욱 18장본, 동양문고본, 한글박 32장본, 김동욱 47장본, 경판 30장본, 세창서관본, 김광순 28장본이 한 갈래로 친연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전자는 정명기 77장본, 후자는 89장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명기 77장본과 완판 36장본, 국중도 70장본, 김동욱 28장본은 함경감영 공략 당시 능소에 불이 붙지 않게 하는 내용과 흔히 완판 계열의 특징이라고 알려진 불도 비판 대목 등을 비롯하여 상당 부분의 변별 화소를 공유하여 친연 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나 정명기 77장본을 제외한 세 이본은 길동이 자신을 참조한 자들을 징계하고 중 백여 명과 경화자제 십여 명을 잡아 친국하는 대목을 추가적으로 공유함과 동시에 대부분의 변별점을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정명기 77장본은 89장본 계열과 위의 세 이본 간의 접점에 있는 이본이자 과도기적 이본으로 볼 수 있다. 필자는 이를 두고 89장본 계열에서 정명기 77장본으로의 변이 현상이 일어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하위 계열이 형성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완판 36장본, 국중도 70장본, 김동욱 28장본은 정명기 77장본의 하위 계열로 볼 수 있다. 이 중 국중도 70장본은 앞부분이 생략되어 이본을 대표할 수 없다. 남은 김동욱 28장본과 완판 36장본은 거의 동일한 이본으로 볼 수 있는데 완판 36장본이 조금 더 생략된 이본으로, 이 세 이본 중에서는 김동욱 28장본을 대표 이본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김동욱 18장본, 동양문고본, 한글박 32장본, 김동욱 47장본, 경판 30장본, 세창서관본, 김광순 28장본은 89장본의 영향을 받은 계열로 볼 수 있으며 임금이 길동을 비유하는 대목인 변별 화소 ⑱에서 정우락본이 치우와 공명에 비견하는 대목이 나오고 경판 30장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치우에 비견하는 것으로

보아 김동욱 18장본과 동양문고본을 제외한 나머지 이본은 정우락본과 조금 더 친연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 이본 중에서 선정해볼 수 있는 대표 이본은 89장본 계열과 더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이본이어야 할 것이다. 우선 한글박 32장본은 앞부분이 낙장이므로 대표 이본으로 적절하지 않다. 남은 이본들은 변별 요소의 생략과 수용이 매우 혼재되어 있으나 김동욱 47장본에서 포장이 ‘호도의 해’<sup>63)</sup>를 입을 것을 걱정하는 대목이 삽입되어 있는데 이는 89장본, 조종업본, 정우락본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대목으로 김동욱 47장본을 나머지 이본의 대표 이본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의 화소를 이용한 비교를 통해 제시된 계열은 인명과 지명, 물명 등 고유명사에서도 친연성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김동욱 47장본 계열 속 이본 간 고유명사를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sup>64)</sup>

<표 4> <홍길동전> 인명 비교]

	김동욱 47장	한글박 32장	김동욱 18장	경판 30장
임금	세종	-	세종디왕	세종
길동 父	홍희 [니조판서]	홍모 [현덕왕]	홍희 [지상] [현덕왕]	홍희 [니조판서] [지상] [현덕왕]
길동 兄	홍인형 [병조좌랑] [경상감스] [참판]	홍인형 [좌랑] [경상감사]	홍인형 [이조좌랑]	홍인형 [좌랑] [병도좌랑] [경상감스] [참판]
대부인	유씨 [현덕왕비]	유씨 [현덕왕비]	유씨 [현덕왕비]	뉴시 [현덕왕비]
길동 母	춘섬	춘섬 [디비]	춘섬 [디빙]	춘섬 [디비]
길동	홍길동 [병조판서]	홍길동 [병조판서]	홍길동 [병조파서]	홍길동 [병조판서]
애첩	초난 곡산모	초란 곡산모	초란	초난 곡산모
관상자	관상니	관상녀	관상여	관상네
무녀	문여	무녀	무여	무녀

63) 짐승 따위에게 해를 입을 것을 걱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대목은 89장본, 조종업본, 정우락본에서만 볼 수 있다.

64) 전체 이본의 고유명사 비교표는 부록으로 제시하도록 함.

자객	특지	특재	특지	특지
포도대장	니읍 [우포장]	-	리업 [우포장]	니흠 [우포장] [포도디장]
길동 媵父	빅용	백용 [부원군]	빅용 [부원군]	빅용 [부원군]
	조철	조철 [부원군]	조철 [부원군]	도철 [부원군]
짐승	을동	을동	-	을동
길동 妻	비인	궁인	궁여	궁인
길동 妻	빅씨 [왕실]	빅씨 [왕비]	빅씨 [왕비]	빅씨 [왕비]
	조씨 [왕실]	조씨 [왕비]	조씨 [왕비]	도시 [왕비]
길동 軍	마숙 [호군장] [좌승상]	마숙 [좌승상]	-	마숙 [후군장] [좌승상]
	조처 [위승상]	김지 [우승상]		
	김질 [순훈무소]	최철 [순무안찰사]		김길 [슈문안찰사]
을도왕	을도왕	룰도왕	-	을도왕
을도 軍	겸형총 [철봉티슈]	김현총 [철봉티슈]	-	김현총 [철봉티슈]
길동 子女	흥헌 [빅씨 소생 장자]	흥헌 [빅씨 소생 장자]	흥헌 [빅씨 소생 장자]	흥헌 [빅씨 소생 장자]
	흥창 [조씨 소생 차자]	흥창 [조씨 소생 차자]	흥창현 [조씨 소생 차자]	흥창 [도시 소생 차자]
	흥열 [비인 소생 삼자]	흥열 [조씨 소생 삼자]	흥열현 [궁여 소생 삼자]	흥열 [궁인 소생 삼자]
	흥혜란 [비인 소생 일녀]	이녀(二女) [궁인 소생]	이여(二女) [궁여 소생]	이녀(二女) [궁인 소생]
	흥향난 [비인 소생 이녀]			

위의 비교를 통해 각 계열에 속한 이본 사이의 강력한 친연 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세창서관본과 대창서원본의 경우 표기법만 달라진 같은 이본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한글박 32장본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같은 계열로 정리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박순호 86장본의 경우 김동욱 89장본과 정우락본, 정명기 77장본의 대목이 적절하게 혼재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비교적 선행하는 내용을 가진 이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김동욱 89장본에서 파생되어 정명기 77장본과 같은 층위로 구분할 수 있는 새로운 이본 계열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이본의 경우 그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거나 변이를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유사하다면 선행연구를 수용하여 같은 계열에 편입시켰다.<sup>65)</sup> 아울러 방각본의 경우에도 선행 대본의 축약임이 명확히 밝혀진 이본<sup>66)</sup>이라면 이 또한 수용하여 계열에 추가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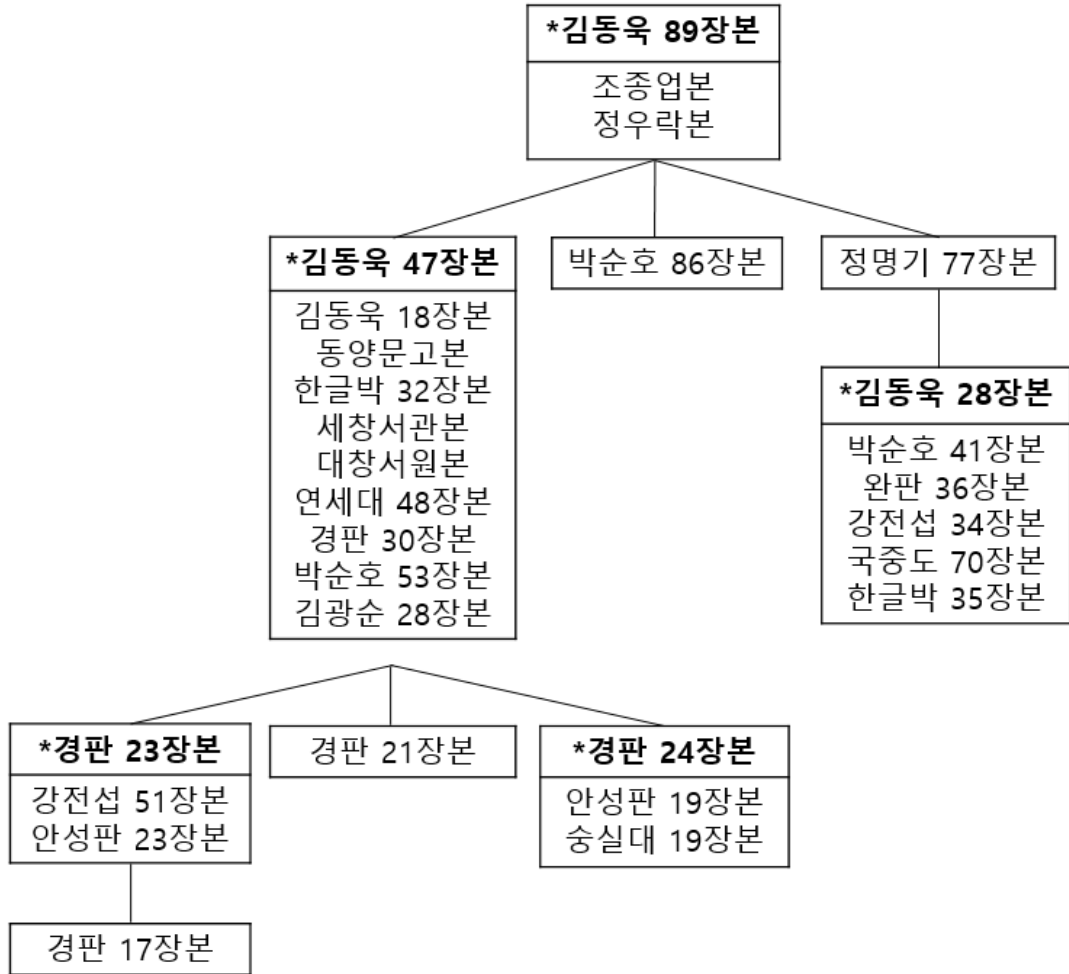
65) 이 경우 앞서 소개한 이윤석의 『홍길동전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상 특징과 디지털 한글박물관(archives.hangeul.go.kr)에서 제공되는 소장 자료 원문 해제 정보를 수용하며 그 대상은 전자의 경우 연세대 48장본, 안성판 23장본, 안성판 19장본, 송실대 19장본, 강전섭 51장본, 박순호 41장본, 강전섭 34장본이고 후자의 경우 박순호 53장본, 한글박 35장본이다.

66) 방각본 중 경판은 선행 연구에서 그 축약의 양상이 밝혀진 관계로 해당 내용을 수용하여 계열에 추가하기로 한다. 그 대상은 경판 24장본, 경판 23장본, 경판 21장본, 경판 17장본이다. 이윤석, 「경판 <홍길동전> 축약의 양상과 그 의미」, 『열상고전연구』 Vol.40, 열상고전연구회, 2014.



위의 분석에 따라 나눈 <홍길동전>의 계열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sup>67)</sup>

<그림 1> [<홍길동전> 이본 계열도]



김동욱 89장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본 중 가장 풍부한 변별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선본(先本) 계열로 추정된다. 따라서 하위 계열로 진행할수록 화소가 축약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 89장본은 다시 세 개의 계열로 분화된다.

첫째, 김동욱 47장본 계열이다. 이 계열에는 김동욱 18장본, 동양문고본, 한글박 32장본, 세창서관본, 대창서원본, 연세대 48장본, 경판 30장본, 박순호 53장본, 김광순 28장본이 속한다. 특히 김동욱 47장본 계열은 다시 경판 23장본 계열과 경판 21장본, 경판 24장본 계열로 분화하였다. 경판 23장본 계열에는 강전섭 51

67) 해당 계열도는 내용의 친연성을 바탕으로 조직한 것이며 제작 시기는 고려되지 않았음을 밝힌다.

장본과 안성판 23장본이 속하며 해당 계열에서는 경판 17장본이 파생되었다. 경판 24장본에는 안성판 19장본, 송실대 19장본이 속한다. 김동욱 47장본 계열의 경우 김동욱 89장본 계열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축약된 양상을 보인다. 또한 작품에서 드러나는 소재의 개수나 낱자, 명수 등이 조금씩 변화되기도 하였다. 한글박 32장본, 김동욱 47장본, 경판 30장본에서는 길동이 울도국에서 즉위한 이후 지난날을 소회하며 감상에 젖는 장면이 추가되었다.

둘째, 박순호 86장본 계열이다. 이 이본은 김동욱 89장본 계열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이나 김동욱 47장본, 정명기 77장본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독자적 계열로 분류하였다. 서사의 초반에서 배장수와 도적의 일화가 추가로 삽입된 것이 특징이다.

셋째, 정명기 77장본 계열이다. 이 계열에는 해당 이본만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여기서 김동욱 28장본 계열이 파생된다. 김동욱 28장본 계열에는 박순호 41장본, 완판 36장본, 강전섭 34장본, 국중도 70장본, 한글박 35장본이 속한다. 정명기 77장본 계열은 김동욱 89장본과 김동욱 28장본 두 계열 모두와 친연 관계를 가진다. 이 두 계열과 김동욱 89장본의 가장 큰 차이는 조선 왕에게 표문을 보내는 대목이 생략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김동욱 28장본 계열은 길동이 육갑신장을 부려 자신을 참조하는 자에 대한 징계를 내리고, 중과 경화자제(京華子弟)를 친국하며 불도를 비판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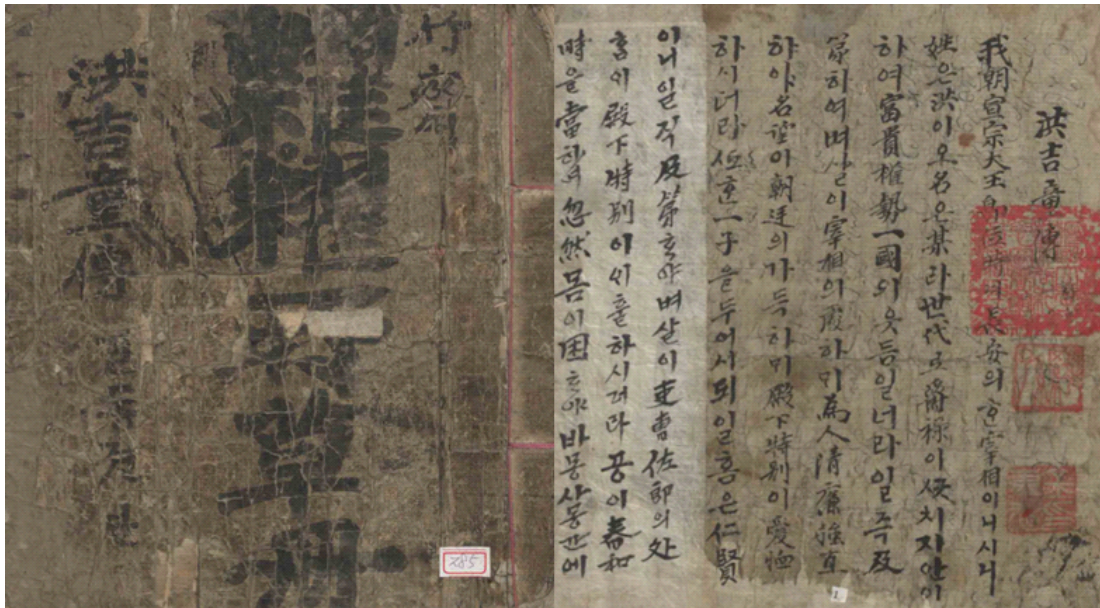
위의 연구 결과는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인다.

첫째, 계열을 구분하는 명칭의 차이가 드러난다. 기존의 연구는 경판, 완판, 필사의 명칭으로 계열을 분류했으나 선행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는 혼동의 여지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출판의 형태가 아닌 각 계열의 대표 이본 혹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본의 명칭을 차용하여 구분하였다. 둘째, 1차 분화 과정에 더하여 2차 및 3차 분화 과정을 더하였다. 이를 통해 계열의 분화 양상 및 이본의 변천 과정을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계열 구분 방법은 이본 간 친연 관계를 더욱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다음으로 앞서 진행된 계열의 분류를 통해 선본(先本) 계열의 이본으로 규정한 89장본을 연구의 선본(善本)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단순히 시기적으로

앞선 내용이 담겨 있어서가 아닌, 가장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이본은 앞서 화소를 비교하여 계열을 나누었을 때 변별화소를 가장 많이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원본에 가까울 것으로 예측된 이본이기도 하다. 또한 이와 같은 선본(善本) 규정은 원본의 내용 추적에 충실한 것으로 필사 과정에서의 오류나 필사연도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홍길동전> 작품을 분석할 때는 89장본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글 또한 해당 이본을 작품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며 이본의 형태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홍길동전> 김동욱 89장본의 표지 및 본문 첫 페이지]



위의 이미지는 <홍길동전> 김동욱 89장본이며 겉표지와 본문의 첫 페이지이다. 책의 크기는 25.0x22.3cm이며 간사지, 간사자, 간사연도는 미상이고 김동욱의 필사본 고소설 자료총서에 영인되었다.<sup>68)</sup> 전체 장수는 89장이며 1장이 낙장인 채(5a, 5b)로 전해진다. 중간에 종이를 덧댄 흔적이 있으며 상단에는 장수가 표기되어 있다. 또한 국한문이 병기되었으며 한글과 한자의 비율이 적절하게 쓰인 쪽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쪽이 있다. 그리고 한자를 간혹 틀리게 사용하거나 한글과 섞어 쓰는 모습에서 필사자가 한자에 능통한 인물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필

68) 金東旭 所藏本, 『羅孫本筆寫本古小說資料叢書 78』, 保景文化社, 1993.

체는 자주 바뀌는데 한 사람이 연습 삼아 필체를 바꾼 것인지 실제로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쓴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낙관은 첫 페이지에 세 개, 마지막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 한 개가 찍혀있으며 필사기는 드러나지 않는다. 각 면은 대체로 10행으로 쓰였으며 행마다 평균 17~21자로 쓰여 매우 들쭉날쭉하게 쓰였다. 해당 이본은 현재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제공하는 원문 이미지는 42b, 43a 면이 누락됐다.

## IV. 저항과 비판적 서사의 재인식

### 1. 계급별 인물 형상화의 한계

<홍길동전>의 텍스트 속 인물들은 당시 사회의 생득적 특성인 신분에 따라 크게 두 인물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신분제 사회의 기득권을 차지한 계급으로 조선의 왕을 비롯한 관리들과 홍모, 홍모의 부인, 부인 소생 장자 홍인현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두 번째 유형에는 첩인 초낭과 관상을 보는 관상녀, 천출 홍길동과 그의 모친, 길동과 함께하는 녹림의 무리와 같이 낮은 신분을 가진 이들이 속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소설이 신분제 사회에 대한 고발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인물이 형상화되는 모습이 전자의 경우 긍정적으로, 후자의 경우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흔히 <홍길동전>에서의 갈등요소는 초반에 등장하는 호부호형의 문제, 첩의 계략과 후반의 조정 에 의한 핍박, 율도국과의 전쟁 등으로 확인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인물분석이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런 분석은 주요 서사에만 집중한 나머지 인물 개개인에 대한 설정과 내적 의미를 간과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필자는 인물의 형상화 방법에 주목하고 주인공에 한정된 담론을 주변 인물로 확장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서사에 등장하는 인물의 순서에 따라 살펴본다면 우선 첩으로 들어오게 된 길동의 모친(춘섬)은 홍모의 일탈 행위에 따른 강제적 상황에 처하는 인물이다.

맛참 시비 춘섬니 차을 밧들어 올니건을 / 차을 바더논 휘의 밧춤 고요흠을 인하여 / 春蟾의 손을 익글고 夾室의 드러가 正이 親습하니 / "씨 春蟾의 나이 二九 童婢라 (2b)<sup>69)</sup>

길몽을 꾸곤 홍모는 이를 뛰어난 후손의 징조라 여겨 처에게 동침을 요구한다. 그러나 동침을 거부한 처의 의지가 강력하여 뜻을 못 이루고 있었는데 이를 대

69) 이 장에서 인용하는 모든 대목은 김동욱 소장 필사본 89장분에서 활용하며 원문을 기준으로 한 쪽수만 표기하기로 함. 또한 인용문의 경우 가독성을 위하여 필자가 임의로 문장을 구분하였음.

신하여 시비인 춘심을 취하게 된다. 순간적인 흥취에 의한 개인의 일탈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춘심은 길동을 낳게 된다. 이른바 일탈의 전가(轉嫁)행위가 이루어진 셈이다. 일탈의 주체임에도 높은 신분을 가진 흥모는 그 어떤 도덕적 책임도 지지 않지만 춘심은 별안간 의도치 않은 첩 생활을 하게 되고 이 책임을 전가 받은 길동은 열자의 명에 평생 짊어지게 된다. 여자 종(婢)에서 첩으로의 신분 변화가 일어난 점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여지도 있으나 성적 예측이 되었다는 점, 본인의 아들이 향후 계급적 차별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부정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춘심의 상황은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는 인물 형상을 통해 기득권 세력의 폭력적 행동에 대한 암묵적 동의를 이끌어낸다. 또한 이러한 점은 불합리한 신분 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 근본적 원인이기도 하다.

그리고 뒤이어 등장하는 낮은 계급의 인물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심성에 대한 묘사와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통해 부정적으로 형상화 되는 모습을 보인다. 우선 흥모의 총첩(寵妾)인 초낭을 소개하는 장면을 보면 다음과 같다.

마음이 放恣하고 쓰지 불량하여 / 가중의 혹 불합한 일이 니시면 / 공개 참조하여 생경지폐  
미”이 ”러나는자라 / … 또 마음의 남이 만일 천이 되면 조와하고 / 귀이 되면 구슈갓치 여겨  
마음이 압프 전디지 못허더라 (9a-9b)

‘마음이 방자’하고 ‘뜻이 불량’하며 ‘불합한 일이 있으면 참조하여 생경지폐(生梗之弊)가 매일 일어나게’ 한다고 언급하며 또한 ‘남이 잘못되면 좋아하고 잘되면 구수(寇讐)<sup>70)</sup>같이 여겨 마음 아파 견디지를 못한다.’고 묘사한다. 이런 그녀의 성격은 실제 길동을 살해하는 음모로 이어지게 된다.

楚娘이 더욱 시기하여 / 金銀을 만이 훗터 요惡하고 奸惡한 巫女 等과 觀相女 締結하여 / 吉  
童 히힐 計巧을 승의홀시 초랑이 가로다 / 질동을 업세어 내 마음을 便게 하면 그 恩惠를 증히  
갑프니라 (10a)

초낭은 흥모의 첩으로 총애를 받아 왔으나 길동 모자(母子)를 시기하여 무녀와

70)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

관상녀와의 모략을 통해 길동을 해하고자 하는 인물이다. 본문에서는 초나가 춘섬에게 은총을 뺏길 것을 시기하여 길동을 음해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애초에 초나가 홍모의 총첩이 된 이유는 그녀의 자식이 아닌 본인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초나가 자식으로 인해 춘섬을 시기하는 서사 전개는 자연스럽지 않다. 고소설의 서사적 전통은 가정 내에서 처첩 갈등 혹은 전처와 후처 소생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오히려 장자를 낳은 정실부인이 자신의 아이보다 뛰어난 첩의 자식을 경계한 탓으로 춘섬과 길동에 대한 음모를 꾸미는 편이 더욱 자연스러운 전개과정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초나의 행위를 “작품에 설정된 부모에 의한 자식 살해 모티프의 비인간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벌어진 대리갈등적 구성 때문에 야기된 서사적 당착”<sup>71)</sup>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존재하며 이는 당시 사회 통념상 독자들에게 수용되기 위한 일환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핵심은 해당 서사가 쓰일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탐색하는 것이 아닌 부정한 첩의 존재를 형상화하여 은연중에 양반가의 정실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가정 내의 갈등을 천한 계급 간의 충돌로 나타낸 서사적 결과이다.

꽃이 듯시오니 東里의 特材라 ㅎ는 刺客이 닛셔 勇猛이 過人하다 ㅎ오니 / 千金을 죽고 밤으로  
 吉童의 ㅈ는 房의 보니여 處置ㅎ오면 良策일가 ㅎ나이다 / 夫人과 佐郎이 눈물을 흘려 曰 / 人  
 情의 ㅈㅁ 못힐 바라 / 그러ㅎ나 ㅎ나는 나라을 爲흠미오 / 돌치는 父母을 爲흠이라 / 저마 어  
 지 흘리오 (17a-17b)

위의 대목에서 초나는 홍모의 처와 장자에게 길동 살해를 건의한다. 세 사람 모두 길동을 해(害)하고자 하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마찬가지로지만 초나가 건의하고 처와 장자가 이를 마지못해 허락하는 모습을 통해 특정 계급의 인물에 대한 평가를 자연스럽게 확립시킨다. 또한 눈물을 흘리며 인정에 못할 행동이지만 나라와 부모를 위함이라는 당시 사회의 핵심적인 관념을 이용한 근거를 제시하며 마치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일이라는 듯 수동적인 인상을 준다. 그리고 이러한 언행은 능동적으로 길동 살해를 건의하는 초나과는 대비된다. 이로써 행위에 대한

71) 박일용, 「이본 변이 양상을 통해서 본 홍길동전의 종합적 고찰」, 『성곡논총』 Vol.33 No.1, 성곡언론문화재단, 2002, 133쪽.

모든 비난은 초남을 향하도록 설정된다.

결국 갈등의 한걸음 뒤에서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홍모의 처와 장자와는 달리, 초남은 같은 계급에 속하는 무녀와 관상녀, 특재와 함께 암살기도라는 중대한 반윤리적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sup>72)</sup>

① 相公계 薦擧하여 前後事을 본다시 告호오면 / 相公이 必然 惑하여 吉童을 주일 거시이 / 그 씨을 타 如此 " " 호소서 (10b)

② 니 슝름은 본디 慾心나 만흔지라 / 銀子을 보고 문득 싱각호되 / 처음의 일어홀제 니 압 成事호면 더욱 厚홀지라 호고 / 슝름의 生死를 도라보지 아니호고 … (후략) (10b-11a)

③ 네 金銀만 重니 알고 슝름을 輕이 여기다가 / 禍을 自取하여 죽기를 지촉호이 / 可憐<sup>ㅏ</sup> 저 人生아 / 黃泉이 두렵지 아니호야 (21b-22a)

①은 무녀가 초남에게 계교를 일러주는 대목으로, 사람 죽이는 일을 거리까지 않는 인물로 나타난다. ②는 관상녀가 은자를 받고 좋아하는 모습으로, 그녀가 사람의 생사를 고려하지 않는 이로 비취지고 있다. ③은 길동이 특재를 꾸짖는 대목으로, 그를 재물만 믿고 사람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무녀, 관상녀, 자객은 당시 사회에서 천하게 인식되었던 존재들로 이들에 대한 부정적 형상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마치 반윤리적 행위가 낮은 계급의 전유물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결국 이들의 길동에 대한 살해 음모는 실패로 돌아가고 이에 대한 징계로 관상녀와 무녀, 특재가 목숨을 잃게 된다. 또한 이와 같은 징계는 같은 신분인 길동에 의해 이뤄졌지만, 초남의 경우 아버지의 총애하는 사람이자 어머니기 때문에 길동은 그녀를 살해하지 않는다. 모든 일을 막후에서 계획한 초남이 양반가의 첩이라는 지위로 신분제 사회의 기득권 세력에 발을 걸치고 있었던 것과 당시 사회의 지배관념인 효(孝)의 덕목 덕분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개인이 항거할 수 없는 사회 질서의 견고함을 재인식하게 만든다.

갈등은 결국 죽음과 도피라는 과국으로 치닫지만 이는 낮은 계급에 속한 인물들만의 이야기일 뿐이다. 그리고 모든 일의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는 홍씨 일

72) 이와 같은 하층민에 대한 부정적 묘사는 춘삼을 제외한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에게서 나타난다.



가에는 그 어떤 책임이나 피해가 미치지 않는 것이다. 앞선 인물들은 비교적 초반에 등장하고 서사에서 퇴장하지만 이 작품의 전체적인 진행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치는 인물들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이전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주인공 길동에 대한 부정적 묘사 역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길동이라는 인물의 부정적 형상화는 타인에 의한 규정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크게 임금과 형, 아버지를 통해 세 번에 걸쳐 드러난다.

① 盜賊의 勇力과 術法은 네날 楚霸王과 諸葛孔明이라도 맞지 못하리로다 / 이모니 神奇한 놈  
인들 恨 놈의 엇지 八道의 恨로 恨 씨에 니려툃 作亂하리오 / 니는 尋常치 아이흔 盜賊나라 /  
뉘 能이 이 盜賊을 잡여 國家의 근심을 덜고 / 百姓의 弊端을 엿게 하리시오 (42b)

② 臣의 賤한 同生이 不忠不孝한 스름을 죽니고 亡命逃을 호오미 / 死生을 모른제 발서 數  
年나라 / 늘근 아버 일로 말미암어 身病이 나 命니 朝夕의 닛삽나니 / 니제 吉童이 나라의 벼  
일 罪을 지어스오니 … (후략) (50b-51a)

③ 네 아모리 不忠不孝한 놈인들 우히로 殿下 臨하시고 / 아리로 아버 닛셔 널노 호여곰 니려  
툃 世上니 紛紜케 하이 / 너 죽어 鬼神나라도 容納지 못할지라 (55a)

①에서 임금은 길동을 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길동은 팔도에서 작난(作亂)하는 도적에 불과하고 그를 잡는 것만이 국가의 근심을 덜고 백성의 폐단을 없게 하는 일이라 말한다. ②에서는 길동의 형이 길동을 두고 불충불효하며 사람을 죽이고 망명도주한 자로 규정하며 나라에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한다. ③에서는 길동의 아버지가 길동을 두고 이와 마찬가지로 불충불효한 자로 규정하여 세상을 분운(紛紜)케 하니 죽어서 귀신이 되어도 용납지 못할 것이라며 꾸짖는다. 소설 속의 기득권 세력들은 이처럼 일관되게 길동을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소설은 결국 결말에 이르기까지 이들에 대한 응징이 이뤄지거나 길동에 대한 부정적 규정이 직접적으로 철회되지 않으며 이는 이들의 주장과 행동이 마치 사실인 것과 같이 여겨지게 한다.

이러한 전개는 계속해서 등장인물 중 춘심을 제외한 낮은 계급들의 부정적 행위를 주목하게 한다. 이렇듯 <홍길동전>은 비교적 적은 등장인물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몇몇 예시와 같이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비천한 자는 부도덕한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낮은 신분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은연중에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독자의 내면에 특정 계층에 대한 부정적 형상을 주입한다.

또한 앞서 등장하는 낮은 계급의 인물들이 부정적으로 형상화 되는 것은 신분제 사회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이들이 정의롭게 형상화되는 것과 대비된다. 홍가의 구성원인 홍문과 그의 부인, 적자인 홍인현은 가정을 중시하는 인물로 작품 곳곳에서 가족의 존속과 안위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마찬가지로 조선의 왕과 관리, 포도대장 이업 등은 길동의 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일 지언정 정도(正度)를 말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몇몇의 예를 살펴보면

① 일즉 及第하여 벼살이 宰相의 處하미 爲人 清廉強直하야 / 名望이 朝廷의 가득하미 殿下 特別이 愛恤하시디라 (1a)

② 臣의 父子은 萬死無惜是乎乃 / 伏乞 聖上은 집피 살피스 子息의 그릇흔 罪 아버지께 닛드호오니 / 病든 아버지을 容赦호여 쥬옵시면 臣니 죽기로써 吉童을 줍어 밧치리라 (51a)

③ 臣이 본디 微賤흔 몸으를 니러툃 王命을 바즈와시니 / 니는 다 殿下의 너부신 德이로소나다 / 前事을 싱각호오면 惶恐호은지라 / 伏乞 聖上은 臣의 封進 銀子을 恩赦 勿棄호옵소서 / 萬世無疆호옵소서 / 千萬歲을 바라옵니리다 (83b)

①은 이야기의 도입 부분에서 홍모를 소개하는 장면으로, 위인이 청렴강직하고 명망이 조정에 가득하다고 그를 묘사한다. ②는 인현이 임금에게 병든 아버지에게 대한 자비를 바라는 대목이며 ③은 길동의 즉위 이후 조선의 왕에게 보내는 표문의 내용으로, 임금의 은혜와 축원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들은 작게는 주인공을 꺾박하고 크게는 주인공의 신분을 제약하는 원인이 되지만 그들의 지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협받지 않으며 서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들의 위치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계급의 최상단에 위치하며 부조리한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그들을 징치하지 않음으로써 독자가 납득 가능한 인물로 형상화하기도 한다. 이와는 다르게 실상을 고발하며 저항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서사상의 주인공과 사회적으로 하층에 위치한 대부분의 인물들이 부정적으로 형상화된 순간, 소설 속 저항과 혁명적 주제의식은 약화되고 기존 사회체제가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위 주장의 핵심은 사회의 부조리를 혁파하기 위해 기득권 세력을 부정하거나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사회의 부조리와 정면으로 마주선 인물과 그가 속한 계급이 부정적으로 규정되고, 기존 사회 체제 속 비호를 받고 있는 기득권 세력이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상황은 작품이 드러내고자 하는 비판 의식을 충분히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런 계급별 인물 형상화 방법은 봉건적 질서에 대항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위성 또한 함께 약화시킨다.

## 2. 기존 관념의 타협적 수용

고소설에서 주제의식을 완성하기 위해 드러나는 가장 대표적인 관념으로는 충(忠)과 효(孝), 정절(貞節)이 있다. 그러나 <홍길동전>에서는 애정담이나 정절에 관련된 화소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그 대신 입신양명(立身揚名)에 대한 관념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작품이 지닌 적서차별에 대한 문제의식과도 무관하지 않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관념의 수용으로 주제가 강화되는 여타 소설과는 달리 <홍길동전>에서는 오히려 관념들이 주제를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입신양명, 충, 효와 같이 기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관념을 수용하는 대목을 바탕으로 관념이 서사의 주제를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다.

<홍길동전>은 열자 출신의 주인공 홍길동이 본신의 뛰어난 재주를 바탕으로 백성을 구휼하고 타고난 신분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왕과 관리를 농락하고 천출로서 울도국의 왕이 되는 내용의 파격적인 전개를 보인다. 따라서 당시 시대 상황에 반하는 사회소설로써의 면모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때문에 홍길동이라는 인물 또한 사회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항적 인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서사를 면밀히 관찰하다 보면 길동이야말로 기존 체제를 수용하는 성향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즉, 길동의 행동은 당시 양반 사족(士族)의 윤리 관념과 부합<sup>73)</sup>하는 면모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기존 체제에 대한 순응적인 면모는 관념을 수용하는 것으로써 드러난다. 이에 대해 앞서

73) 이지영, 「<홍길동전>에서 길동이 보여준 사족(士族)의 가족 윤리의 실천 문제」, 『우리文學研究』 No.45, 우리문학회, 2015, 151쪽.

언급한 <홍길동전>에 담긴 관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입신양명에 대한 관념이 수용된 양상을 살펴보면 길동은 자신이 천출임을 인식한 순간부터 닿을 수 없는 권력에 대한 욕망을 내비쳤으며 이 때문에 결말까지 권력의 획득과 신분의 상승을 이루는 형태로 서사가 진행된다. 여기서 권력은 전통시대 남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지위의 성취와 명예의 획득을 지향하며 작중에서 길동이 추구하는 주요 가치이다.

초아리 出將入相하야 나거든 / 달만흔 大將印을 腰下의 빗기 초고 / 將臺에 놓피 아저 千兵萬馬을 指揮間의 너희두고 / 坐作進退하며 東征西伐하여 / 國家의 大功을 세외 姓名을 傳하며 드러서는 一人之下요 萬人之上이라 / 理陰陽順四時하여 國家을 忠誠으로 외 / 奇特한 일흐를 後世에 遺傳하고 / 얼굴을 麒麟閣의 그려 빗니미 丈夫의 快한 일이라 (4b-6a)

위에서 제시한 길동의 대사에서는 권력에 대한 길동의 직접적 욕망이 드러나는데 이는 사회적·국가적 요구와 질서에 순응해야만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길동이 추구하는 출세에 대한 욕망은 기존의 체제를 혁파하는 것이 아닌 타협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는 ‘입신양명’에 대한 욕망과 ‘병조판서 제수’의 요구에서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주인공의 행동은 당시 사회 시스템에 그대로 편입되고자 하는 시도로 비춰지며 체제를 긍정하는 매개로써 작용한다. 입신양명에 대한 욕망은 서사의 초반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① 小人 敢히 못줍느니 / 비록 賤生니오나 글을 잘 하와 及第하오면 政丞을 못하오며 / 활을 잘 쏘아 及第하오면 大將을 못하오릿가 (7b)

② 堂〃히 立身揚名하여 朝鮮國 兵曹判書 兵符을 받조와 上狀이 되지 못흔진디 / 초알리 몸을 不義의 더져 遺臭萬年홀지라 (8a)

①은 길동이 홍모에게 재차 찾아가 능력만 있으면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음을 강조하는 대목이고 ②는 입신양명을 하지 못하느니 불의에 몸을 던지겠다며 모친에게 한탄하는 장면이다. 두 장면 모두 입신양명에 대한 길동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으로 당시 사회의 출세에 대한 일반적 사고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길동의 욕망은 능력의 여부를 막론하고 신분의 한계로 인해 성취될 수

없으며 그의 한(恨)은 바로 여기에 연유한다. 하지만 길동은 해결의 방향성을 신분제도의 변혁을 통한 제약의 탈피가 아닌 직접 계급구조 속 최상단으로의 도달로 잡음으로써 기존 사회의 질서를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병조판서 제수’는 뛰어난 재주를 가진 길동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시한 타협의 일환이다. 이는 사회가 그 스스로 지닌 모순과 부조리를 해결하는 방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不忠不孝之臣 洪吉童은 / 國家의 患罪을 지어 殿下의 근심니 되게 亨여소오니 / 罪는 萬死無  
惜니로소다 도로혀 天恩을 님스와 / 平生抱怨을 프러 주시니 國恩罔極亨은지라 / 몸니 맛도록  
天恩을 萬分之一이나 갑스올가 바라오라 / 天命을 바즈와 몸니 갈 고지 님습기로 / 今日 殿下  
前의 亨즉亨읍고 朝鮮을 떠나오니 / 伏願 聖上은 萬世無疆亨읍소서 (61a)

위의 예문은 길동이 병조판서를 제수 받은 후 임금에게 사은(謝恩)하는 장면이 인데, 여기서 길동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임금의 은혜를 입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길동의 행위는 개인의 신분적 제약 극복을 위한 기존 체제와의 타협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길동이 임금에게 병조판서 제수를 받고 난 후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서사적 행위 없이 자신을 억압하던 공간인 조선을 떠나는 상황은 그것을 입증한다. 이는 결국 기존 체제를 넘어서지 못했음에도 갈등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며 사회적 문제는 그대로 잔존하게 되는 한계를 지닌다.

이런 길동의 행동 양상에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그의 지향 자체가 신분제 사회의 모순에 대한 저항이라는 주제의식을 약화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길동이 진정으로 신분제 사회 속 부조리를 인식하고 이를 혁파하고자 했다면 출신으로 인해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없는 기존 규범을 해체하려는 시도가 드러나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정을 조롱하고 임의로 준민고택하는 관리를 처결하며 백성을 구휼하고자 한 그의 문제적이고 파격적인 행동은 그가 기존 사회의 기득권 체제인 병조판서라는 지위를 갈망하고 수락하는 순간 약화될 수밖에 없다. 물론 개인적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일자로 태어나 신분 사회의 정점에 도달한 길동의 경우를 두고 불합리한 사회 체제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그러

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 성취에 그치는 것으로 사회 전체의 이데올로기는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변화라고 볼 수 없으며 그만큼 소설이 가진 비판 의식 역시 약화되었다.

이처럼 <홍길동전>에서 발생하는 주제의 약화는 비단 입신양명의 관념뿐만이 아닌 전통시대를 지배했던 ‘충효’ 관념에 의해서도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관념은 당시 사회를 유지하는 핵심 이데올로기로써 기능하며 그 시대에 쓰인 문학까지도 영향을 끼쳤다. <홍길동전>에서도 서사 곳곳에서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대목들이 삽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충효(忠孝)’ 두 관념은 종종 주인공이 이끌어 가는 서사를 방해하곤 한다.<sup>74)</sup>

① 楚娘은 相公의 寵愛호은 슝름이오 너의 어미라 / 너의 箠이 敢이 妖言을 쯤어니여 衝動호리 오 (24b)

② 前任 兵曹判書 按南國王 臣의 洪吉童은 / 頓首百拜호옵고 一張 表問을 殿下 前의 올니나니 / 臣이 본디 微賤호은 몸으를 니러트 王命을 바즈와시니 / 니는 다 殿下의 너부신 德이로소나다 / 前事을 矜각호오면 惶恐호은지라 / 伏乞 聖上은 臣의 封進 銀子을 恩赦 勿棄호옵소서 / 萬世無疆호옵소서 千萬歲을 바라옵니리다 (83a-83b)

①은 길동이 관상녀와 무녀를 징계하는 장면으로, 아버지가 총애하는 사람이자 어머니기 때문에 초낭을 죽이지 못한다고 밝힌다. ②는 길동이 안남국<sup>75)</sup>의 왕이 된 이후 조선의 왕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으로, 여기에는 임금에 대한 감사와 충성의 뜻이 담겨 있다. 하나씩 살펴보면 ①의 상황에서 초낭은 길동 살해 음모에 중심에 있는 인물로 길동이 징계한 다른 세 인물보다 훨씬 위중한 죄를 지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길동은 초낭이라는 인물이 아버지의 첩이자 어머니 반열이라는 효(孝)의 논리에 따라 그녀를 징계하지 않는다. 또한 ②에서 임금은 길동을 처벌하려는 의지가 가장 강했던 인물이자 신분제 사회의 정점에 있는 인물로서 길동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지만 길동은 새로운 곳에서 왕이 된 이후에도 조

74) 이 글에서는 충분히 주제와 관련된 서사를 밀고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념 때문에 진행되지 못하거나 전개가 늘어난 대목만을 소개할 것이다.

75) 89장본에서는 길동의 즉위 이후 울도국에서 안남국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 이본에 대한 논의에서는 안남국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으로 함.

선의 임금에 대한 감사와 은혜에 대해 언급하고 축원하며 충(忠)의 관념을 지켜 나간다.

한편 <홍길동전>에서는 주인공 길동이 뛰어난 재주를 통해 위기에서 벗어나는 장면을 종종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텍스트 속 상당 부분이 길동의 비범한 능력에 맞춰져 있는 까닭은 그의 영웅적 특징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일 수도 있으나 반대로 그런 비현실적 능력만이 그가 처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환상적 행동이나 묘사는 길동이 신분의 차별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마찬가지로 이런 환상이 약화되면 관념에 대항하는 힘 역시 약해진다. 특히 작중에서 드러나는 환상의 약화는 기존의 관념 중에서도 앞서 언급한 ‘충’과 ‘효’ 관념의 충돌과 관련이 깊고 이는 서사의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① 盜賊 洪吉童은 네 子息니라 ㅎ니 / 네 身爲大臣으로 나라을 섬길지디 / 이 所聞을 드러실 거시니 尙前의 躑아 밧쳐 國家의 근심을 덜게 흠이 울커늘 / 너의 父子 等은 모로난 체 ㅎ니 엇지 臣子의 道 닛다 ㅎ리오 / 爲先 削탈官職 ㅎ시고 典獄의 가두시며 / 또 仁賢을 拿入ㅎ여 下敎曰 吉童은 너의 庶弟라 ㅎ니 / 빨리 躑아드러 네 一門의 患을 免게 ㅎ라 (51a-51b)

② 明日의 小弟을 結縛ㅎ고 / 나라의 장문ㅎ여 보니옵소서 (54b)

③ 兄丈은 조금도 念慮치 마르소서 / 小弟을 結縛ㅎ여 京司로 躑퍼 보니되 / 父母 妻子 업고 子子無依ㅎ 者로 將差을 定ㅎ여 押領ㅎ야 보니시면 / 小弟 自然 處置ㅎ 道理 닛사오니니다 (58b-59a)

길동은 도술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환상적 존재이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그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체제에서 벗어난 존재로 묘사된다. 그런 그를 인간의 지위로 묶어둘 수 있는 방법은 부모와 형제, 즉 가족이다. ①은 길동을 잡을 방법이 궁하던 조정에서 그의 가족을 위협하여 길동을 잡고자 하는 대목이며 ②, ③은 자신의 본가에 화가 미칠 것을 알게 된 길동이 스스로 잡히고자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길동이 가지고 있는 신분차별과 부조리한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힘은 결국 기존 사회의 ‘효(孝)’와 가족제도라는 규범 앞에서 약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임금의 의지를 내포함으로써 ‘충(忠)’의 힘도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길동으로 하여금 기존 규범을 파괴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며 동시에 제약이다.

또한 조선은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제약의 공간으로 길동은 이를 벗어나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환상적 공간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제도와 안남국은 조선에서 통용되던 지배체제의 원리에서 자유로움과 동시에 작품 속 주제를 형상화할 수 있는 이상적 장소이다. 그러나 길동은 가족으로 인해 기존 사회의 체제가 지배하는 공간에 구속당함으로써 타고난 신분을 확실히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나는 天地間의 容納之 못할 不孝라 / 내 본디 니 곳 스름니 아니라 朝鮮國 洪正丞宅 賤妾所生  
나라 / 家內 賤待을 免치 못하여 朝廷의 參禮치 못함 / 大丈夫 志氣을 펼 길니 업서 父母을  
혹즉하고 니 고디 몸을 雄據하여사오니 / 晝夜 父母 氣體을 星辰으로 살피더니 악가 星辰을 살  
펴보직 / 父公리 況 病하시 不久의 世上을 이별하실지라 / 내 몸이 萬 里에 니셔 미져 達得치  
못하여 / 父親 生前의 다시 뵈옵지 못할 거시니 / 일노 困하여 실허노라 (71b-72a)

제도는 안남국과 조선의 중간적 공간으로 이곳에서의 주인공은 신분제도로부터 자유롭다. 위의 인용은 길동이 아버지 홍모의 죽음을 천문을 통해 알게 되는 장면인데 제도에 있던 길동은 이를 계기로 자신이 천출임을 재인식하며 재차 조선 땅을 밟게 된다. 이처럼 ‘환상’이라는 비현실적 소재를 끌고 나가 이상세계의 건설로 마무리 짓지 못하고 부모와 형제, 지위에 초점을 맞춘 탓에 <홍길동전>은 작품의 사회 비판적 성격을 충분히 밀고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앞서 언급했듯 충과 효, 입신양명과 같은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욕망의 성취와 절반의 극복

<홍길동전>은 일자 출신의 주인공 길동이 그 자신의 욕망을 차례로 이뤄가는 내용의 서사이다. 그는 가내에서 호부호형을 허락받고, 집을 떠난 뒤에는 활빈당이라는 조직의 수장이 되며, 조선에서 병조판서의 지위를 받아 마침내는 안남국의 왕이 된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부패한 관리의 처벌과 백성 구휼을 주장하



고 조정을 농락하는 대목은 부조리가 만연했던 사회에 대한 경고로 비춰진다. 이는 길동의 행동을 긍정함과 동시에 그를 영웅으로 규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며 작품이 지닌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핵심적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길동은 위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소 폭력적 행위를 동반하게 되는데 이는 열자로 태어난 그가 견고한 사회적 질서에 맞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길동의 폭력 행위는 그가 권력에 대한 추구의지를 성취할 수단이기도 하다.<sup>76)</sup> 이런 그의 행동이 용인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의 욕망과 민중의 욕망이 같은 곳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며 적어도 그의 행동이 자신의 욕망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사회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작품의 저항과 비판적 서사는 이렇듯 길동이 현실에서 억압받는 대다수의 민중을 대표하여 형상화 된 인물이라는 인식이 전제된다.

그러나 저항으로 표출되는 그의 문제적 행동은 지속적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일정 수준의 성취에서 가로막히거나 만족하게 된다. 이 때문에 길동이 지닌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이것이 사회 전체로의 변화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양상은 대개 길동의 의식이 반항과 순응 사이의 견제에 의해서 분열<sup>77)</sup>되는 과정으로 비롯된다. 다시 말해 <홍길동전>은 끊임없는 욕망의 성취 의지, 그리고 이를 가로막는 외적 요인들에 의한 절반의 극복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면모는 서사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데 전개 순서에 따라 가내에서의 사건을 먼저 살펴보면 길동은 출세에 대한 욕망을 드러낸 이후 홍모에 의해 두 차례 제약을 받는다.

① 공이 드르미 비록 惻隱하나 / 未滿 十歲 小兒가 平生 苦樂을 斟酌하고 / 將來을 預度하니  
 마일 그 쓰질 慰로하면 더욱 放蕩할가 ㅎ야 니에 크게 무즈져 얄 / 宰相家 賤婢所生니 非但 너  
 ㅎ나 畚 아니라 / 엇지 조고맛흔 아히가 放恣흠미 일어툷 ㅎ야 / 此後의 만일 다시 일언 말을  
 ㅎ며 큰 죄를 免치 못ㅎ리라 ㅎ시니 / 吉童이 다만 눈물만 흘니고 欄干의 업더여더니 / 食頃  
 後의 공이 命ㅎ여 물너가라 ㅎ시거라 / 吉童이 寢所의 도라가 실어흠을 마지 아이ㅎ더라  
 (7a-7b)

76) 최천집, 「<홍길동전>에 나타난 정체성 문제」, 『문화와 융합』 Vol.42 No.3, 한국문화융합학회, 2020, 140쪽.

77) 안창수, 「반항과 순응을 통해서 본 「홍길동전」」, 『語文學』 No.48, 韓國語文學會, 1986, 92쪽.

② 小人 敢히 못줍느니 / 비록 賤生니오나 글을 잘 學와 及第호오면 正丞을 못호오며 / 활을 잘 쏘아 及第호오면 大將을 못호오릿가 / 공이 크게 꾸저 알 / 내 前의도 放恣한 말을 하지 말나 하여거늘 엇지 또 니런 말을 云는다 (7b-8a)

여기서 드러나는 길동의 욕망은 결국 적서(嫡庶)의 차별 없이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다. 그는 홍모의 제약으로 타고난 신분의 한계를 인식하지만 별다른 저항 없이 그 제한을 수용한다. 이 대목은 탁월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출신성분을 바탕으로 제약을 받아야하는 부조리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여기서 길동은 주지하듯 가내에서 벌어진 암살 기도로 목숨을 위협받게 되자 세 명의 인물을 살인하며 적극적인 저항 의지를 표출한다. 때문에 길동은 가내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호부호형에 대한 허락을 구한다.

명을 받조오련이와 심중의 철천지헌니 골슈의 미쳐스오니 / 十餘 歲 되도록 천싱되여 부형을 爲主갓치 지니웁고 恨 번도 부형을 부형이라 못호오니 엇지 이답지 안이호리요 / 恨디 공이 허히 탄왈 / 네 원이 그러하면 오날로부터 네 원디로 云라 할 거시니 / 집을 쉰나 말고 恨을 풀게 云라 (26b-27a)

이처럼 길동은 집을 떠나야 하는 위기 속에서 그가 원했던 욕망 중 일부를 충족하게 된다. 특히 호부호형을 허락받는 일은 마치 열자와 적자의 구별이 사라진 것과 같이 여겨진다. 그러나 이는 두 가지의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다. 첫째, 호부호형의 허락은 어디까지나 홍모의 가정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조선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둘째, 홍모가 호부호형을 허락한 것은 집을 떠나고자 하는 길동을 만류하고자 한 것이며 실제로 그의 형인 인현과 같은 반열에 올라선 것은 아니기 때문에 표면적인 욕망만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당대 신분사회가 보여주는 시대적 한계 속에서도 길동이 일차적으로 그가 원한 바를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적 성취에 머무르는 것이며 그마저도 완전한 극복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훗날 병조판서의 지위에 올라서도 적서차별 문제를 공론화시키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가내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 이후로 집을 떠나게 된 길동은 우연한 기회에 도적 무리를 발견하여 그곳의 수장이 되고자 한다.

① 나는 京城 洪丞相宅 賤妾所生 吉童니라 / 家中 賤待을 밧지 아니하랴 하고 시스로 집을 바리고 四海 八方으로 집을 숨고 다니더니 / ㅎ날니 지시하스 니에 왓시니 願컨디 모든 豪傑은 내의 年少함을 嫌意치 말고 / 지조를 試驗하여 死生苦樂을 ㅎ 가지로 ㅎ미 엇더하요 (31a-31b)

② 그디 그러하면 試驗하리라 하고 吉童을 다니고 소부석 닛는 디 나아가거늘 / 吉童이 소미를 것고 그 鬚을 들고 이러나 數十 步을 行하다가 空中의 더지고 僂然니 오거늘 모다 보고 大驚曰 果然 壯士로다 / 우리 數千 名 中の 일즉 니 돌을 들 지 업더니 오날 石을 드러 더지니 / ㅎ날 니 우리을 도오스 니 將帥을 指示하시니 엇지 질겁지 아니하리오 (32a-32b)

①에서 길동은 자신이 천비 소생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나이가 어리다고 싫어하지 말고 자신의 재주를 시험할 것을 부탁한다. 그리고 ②에서의 무리는 별다른 제약 없이 길동의 말을 수용하여 시험을 진행하고 두목으로 인정한다. 녹림의 무리는 길동이 원했던 것과 같이 출신 성분으로 사람의 출세를 제약하는 조선과는 달리 자신의 능력으로 두목이 될 수 있는 집단이다. 이를 통해 나라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세할 수 없었던 길동은 일차적으로 그가 가진 출세에 대한 욕망을 도적의 두목이 되는 것으로 대신한다. 그리고 도적 무리를 이끌고 해인사와 함경감영을 공략하며 자신의 능력을 여과 없이 발휘한다.

① 이적의 모든 도적니 동구의 미복하더다가 / 제싱 결박하물 듯고 일시여 달여들어 지물을 슈탐하여 완연니 제 줍 지물갓치 슈운하니 / 제식이 그제야 그미을 알고 아모라 버셔나고져 ㅎ나 스지를 결박하엿시니 엇지 능히 요동할니요 / 다만 눈으로 보며 님으로 악만 질을 짚음일너라 (36a-36b)

② 내 咸鏡監營의 드러가 社倉 곡식과 윈갓 兵器을 收探하여 오고즈 하니 / 그디 등은 가니 가 各各 ㅎ터져 城中의 숨어다가 / 南門 밧기 불니 난 후의 監司와 官屬이며 / 帑성이 성 박기 나가거는 성중 빈 씨을 타 / 창고의 고식과 병기를 슈탐하여 가져오되 / 百姓의 지물은 ㅎ나도 범치 말나 (39a-39b)

①은 길동의 계약으로 도적들이 합천 해인사를 약탈하는 대목이며 ②는 함경감영에 불을 질러 곡식과 병기를 탈취할 계획을 세우는 대목이다. 이를 통해 길동은 자신의 재주를 선보이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시켰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다소 부적절한 행동을 수반한다. 그러나 해인사는 도적 무리의 장

수가 되기 위한 시험의 일환으로, 함경감영은 활빈당에 군기와 곡식을 조달하기 위해 탈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이 보다 더 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 하더라도 이 행위에는 뚜렷한 대의명분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가치를 위한 혁명적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길동이 활빈당의 창당 당시 설파했던 행동 강령에서는 그가 평소 생각했던 가치를 엿볼 수 있다.

① 조선 팔도로 단이며 만일 불의한 지물을 탈취하고 / 지빈무의한 쯤여는 지물을 쥘어 구제하되 성명을 통치말고 / 열읍 슈영 중의 쥘민고택하여 오는 지물을 탈취하라 (38a-38b)

② 吉童니 쯤흔 長安의 大道 上의 儼然니 輶軒을 타고 任意으로 往來하되 / 能니 아리 즘을 지 업고 或 各 邑의 路文 노고 雙轎 별연 타고 往來하되 알 지 업더니 / 八道の 다이며 巡行하여 各 邑 守令 中의 貪官하는 지 잇시면 거짓 御史되야 先斬後啓하니 (50a)

길동은 불의한 재물을 탈취하고 지빈무의(至貧無依)한 자에게는 재물을 준다고 말한다. 또한 임의로 탐관하는 자가 있으면 거짓 어사가 되어 선참후계(先斬後啓)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사적 제재의 정당성은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한다.’는 전형적인 권선징악의 관념을 통해 생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성 획득에 대한 노력은 어사(御史) 사칭을 통한 개인적 정치와 같은 길동의 불법적 행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그러나 탐관오리의 척결과 백성의 구휼은 홍길동이 당초 밝혔던 대의명분에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이러한 명분은 길동의 선언이나 서술자의 설명으로만 등장하는데 이마저도 1~2회의 서술로 그친다. 백성의 구휼과 불의의 처단은 그를 의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이 대목이 원본에서 축약 혹은 삭제의 과정을 거쳤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으나 충분히 드러나지 못한 것만은 분명하다.<sup>78)</sup> 이렇듯 길동이 조선 팔도 곳곳에서 활동하고 그를 막으려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조정에서는 그에게 병조판서의 지위를 하사하여 욕망을 충족시켜주고자 한다.

吉童니 願니 兵曹判書 遺旨을 니리오시면 朝鮮을 쯤나막 하오니 / 니제 제 願디로 兵曹判書을

78) 탐관오리의 척결 및 백성의 구휼과 관련된 서사는 완판본, 경판본과 같은 방각본과 기타 필사본 등 여타의 이본에서도 공통적으로 축소된 모습을 보인다.

하니시고 遺旨을 니리와 부르시면 맛당홀가 하나니다 / 上니 그 議論디로 조츰 依允하시고 즉 시 遺旨을 니리와 東大門의 北치리라 (60a)

길동은 자신이 평생 동안 욕망했던 병조판서의 지위를 끝내 스스로의 능력만으로 획득했으나 그 사회 체제 전반을 바꿀 수는 없었다. 그 지위는 실제 길동에게 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닌 길동의 뛰어난 능력을 감당할 수 없었던 조선에서 내줄 수밖에 없었던 교육지책에 가깝기 때문이다. 길동은 이렇게 자신을 제약하던 신분적 한계를 뛰어 넘은 것에 만족하여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로 변화시키지 못한 채 쫓기듯 조선 땅을 벗어나 새로운 곳으로의 이주를 계획한다.

十二月 甲子日의 吉童니 卽位하여 / 國號을 安南國이라 하고 百姓을 벼살을 定한 後의 / 父親 丞相으로 追尊하여 顯德王니라 하고 / 大夫人으로 顯德王后라 하고 / 母親으로 王大妃라 하고 / 鄭氏로 忠烈左夫人을 封하고 / 趙氏는 忠烈右夫人을 封하고 / 白龍으로 府院君을 封하고 / 父親 山所은 薛陵니라 하여 / 參奉을 定하여 守護하게 하고 四方의 大赦을 노코 / 宮闕을 修灑한 後에 威儀을 츠려 / 諸道의 보니여 家眷을 모셔올시 그 威儀 차난하더라 / 王大妃와 王妃며 左右夫人이 王을 對하여 근고하시믈 치하하여 못니 길기더라 (82b-83a)

길동은 안남국을 점령하고 왕위에 올라 타고난 신분적 한계를 넘어서게 된다. 그는 조선에서는 이룰 수 없었던 꿈을 안남국 안에서 실현시키는데 이는 안남국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상적 공간으로 설정된 곳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공간의 설정은 국가의 전복을 상상할 수 없었던 조선 시대 전반에 대한 이해로 접근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공간에서의 사회 체제는 기존의 부조리가 제거될 것이 기대되고 조선과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이전과 다른 체제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남국에서의 사회 체제 변혁에 대한 서사는 드러나지 않으며 그의 가족들을 대비, 대사마 등 사회제도의 상층부로 편입시키고 장자를 세자로 책봉하는 모습을 보여 안남국을 조선과 다를 바 없이 조명한다. 오히려 이전까지는 다른 나라를 섬기지 않았던 안남국을 조선에게 예를 올리는 신하의 나라로 격하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이 길동이 욕망을 충족하는 행위는 서사의 일부분이 아닌 전체에 걸쳐 나타나며 이 과정에서는 다소 폭력적 양상이 동반된다. 그러나 앞의 사례들을 통해서 그의 행동이 명분과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자신을 제외한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결국 길동의 행동이 사회 질서에 대한 저항이나 비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자신의 재주를 보이는 데 한정되거나 개인적 욕망을 성취하고 있으며 독자들에게 대리만족을 선사하는 데 그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작품의 서사는 홍길동의 인정투쟁을 기반으로 흘러가며 적서차별에 대한 치열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해결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sup>79)</sup> 그리고 이는 <홍길동전>이 설화화되는 과정에서 길동의 행적이 비하되는 모습과도 무관하지 않다.<sup>80)</sup>

이러한 해석은 선본(先本) 계열이자 선본(善本)으로 규정된 김동욱 89장본의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 장에서는 해당 서사 속에서 드러나는 인물 형상화의 한계, 기존 관념의 타협적 수용, 욕망의 성취와 개별적 극복에 주목하였으며 이를 통해 <홍길동전>이 지닌 저항과 비판의 서사가 한계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양상은 89장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본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특정 이본만의 서사적 특징이 아닌 현재까지 전해지는 <홍길동전>의 보편적 특징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홍길동전>은 사회소설을 지향하며 집필되었으나 이를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한 채 그 문제가 개인화되어가는 한계를 드러낸 작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주제의식 약화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짐작된다. 첫째는 전통시대 인식의 한계이다. 조선이라는 국가의 체제 속에서는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관념과 인식을 부정할 수 없었을 것이며 이는 작자의 특정 의도라기보다는 그 시대를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지닌 공통적 한계로 자리 잡았을 것이다. 둘째는 서사의 축약현상이다. 주지하듯 <택당집>에서는 허균의 <홍길동전>이 <수호전>에 비겼다(筠又作洪吉同傳以擬水滸)고 전한다.<sup>81)</sup> 이로 미루어 보아 적어도 <홍길동전>의 원본은 <수호전>에 비견될 만큼 장편의 서사를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재 남아있는 <홍길동전>은 모종의 이유로 축약되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사회 비판적인 부분이 상당 부분 삭제되어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79) 김경미, 앞의 논문, 209쪽.

80) 강문종, 「『홍길동전』의 설화화 양상 -『韓國口碑文學大系』에 채록된 홍길동이야기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Vol.17, 2009, 56쪽.

81) 李植, 『澤堂集』, 권15, 雜著, 散錄.

허나 이러한 점이 <홍길동전>이라는 작품의 위상에 대한 근본적인 훼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이 타협적이거나 미완인 혁명에 그쳤다고 할 수 있지만 부조리한 사회 제도 속에서 홍길동이라는 인물이 성공함으로써 봉건적 질서에 도전하려는 서사를 담고자하는 시도만으로 고소설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약화되고 결국에는 길동 개인의 욕망을 실현하는 데 그치는 절반의 극복에 머무르게 되는 모습을 보인다.

## V. 결론

이상과 같이 <홍길동전>의 이본 및 작품의 주제의식에 대해 고찰하였다. 위에서 논의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홍길동전>의 이본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 논의에서의 오류를 바로 잡았으며 누락된 정보를 추가하여 그 특징을 정리했다. 이를 통해 국문필사본 76종, 한문필사본 1종, 경판본 5종, 안성판본 2종, 완판 2종, 국문판각본 5종, 구활자본 18종 등이 현재까지 밝혀진 <홍길동전> 이본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의 정리 중 필사본에서 11종, 방각본에서 2점, 구활자본에서 새로운 이본 2종을 포함한 8점이 추가된 결과이며 출판 지역을 알 수 없는 국문판각본을 제외하고 밝혀진 <홍길동전> 이본의 종류는 총 104종임을 밝혔다.

둘째, <홍길동전> 이본의 계열을 재설정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기존의 계열이 다소 느슨한 계열관계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토대로 새롭게 계열을 정리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후 공통 화소 및 변별 요소의 비교, 고유명사의 비교를 통해 새로운 이본 관계를 설정하였고 이를 통해 김동욱 89장본을 선본(善本)으로 규정하였다. 설정된 이본 계열은 김동욱 89장본 계열을 바탕으로 김동욱 47장본, 박순호 86장본, 정명기 77장본 계열로 분화하였고 김동욱 47장본 계열에서 경판 23장본 계열, 경판 21장본 계열, 경판 24장본 계열로 재차 분화한 것으로 파악했다.

셋째, 작품의 비판적·저항적 주제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약화되는 양상을 살펴 보았다. 우선 사회의 지배 세력이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차별의 대상이 되는 피지배 계층의 모습이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계급별 인물 형상화의 한계성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독자에게 특정 계급의 형상을 지속적으로 내면화시키는 차별적 면모를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당시 사회의 주요 관념인 입신양명(立身揚名)의 논리를 살펴보았다. 입신양명에 대한 욕망은 주인공 길동의 개인적 가치 실현과 더불어 부조리한 사회 체제를 용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충(忠)·효(孝)의 논리가 길동이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환상적 힘을 제약하는 양상을 살



펴보며 기존 사회 관념을 수용하는 보수적 면모를 강조하였다. 또한 전통시대 인식의 한계와 축약 혹은 윤색의 양상으로 인해 욕망의 성취가 절반의 극복으로 드러나는 면모를 확인했다. 이를 통해 <홍길동전>은 사회소설을 지향했으나 이를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한 채 그 문제가 개인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길동전>의 이본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지점이 다수 존재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다수 이본들의 특성상 연대와 필사자의 추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본(先本) 규정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논의가 지속되어야 하는 까닭은 주지하듯 작품 분석이 원본의 최대한 가깝다고 여겨지는 선본(善本)의 확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해당 작품 분석의 신뢰 또한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그리고 선본(善本)을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계열의 설정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선별된 이본이야말로 <홍길동전>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이본일 것이다. 특히 선행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작품에 대한 논의의 대부분이 합의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고 보고 이 글이 어느 정도 해결의 단초를 제공했으리라 생각한다.

더불어 이 글은 주인공의 행동이나 형상화 방법을 비판하여 작품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주제를 부정하기 위한 의도로 쓰이지 않았다. 다만 이는 사회 고발적 성격을 지향한 문제적 작품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밀고 나가지 못하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양상의 원인으로 조선시대를 관통하는 인식의 한계와 이본의 변이 과정에 주목하였고 이를 통해 특정 텍스트의 주제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약화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원본에서의 변이 양상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해 세밀한 근거 제시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원본에 가까운 이본이 새롭게 발견된다면 더욱 면밀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자료

- <홍길동전> 필사본 89장본
- <홍길동전> 필사본 18장본
- <홍길동전> 필사본 32장본
- <홍길동전> 필사본 47장본
- <홍길동전> 필사본 77장본
- <홍길동전> 필사본 70장본
- <홍길동전> 필사본 86장본
- <홍길동전> 필사본 28장본
- <홍길동전> 필사본 28장본 (김광순 소장)
- <홍길동전> 필사본 조종업본
- <홍길동전> 필사본 동양문고본
- <홍길동전> 필사본 정우락본
- <홍길동전> 경판 30장본
- <홍길동전> 완판 36장본
- <홍길동전> 세창서관본
- 李植, 『澤堂集』, 권15.

金東旭 所藏本, 『羅孫本筆寫本古小說資料叢書 78』, 保景文化社, 1993.

인천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舊活字本古小說全集』, 仁川大學民族文化研究所, 1983.

### 2. 연구 논저

- 강문중, 「〈金仙覺〉異本研究」, 『한국학』 Vol.28 No.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 「「홍길동전」의 설화화 양상 -『韓國口碑文學大系』에 채록된 홍길동이야기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Vol.17, 2009.
- 김경미, 「타자의 서사, 타자와의 서사, 홍길동전」, 『古小說研究』 Vol.30, 한국고소설학회, 2010.
- 김일열, 「洪吉童傳의 構造와 意味」, 『국어국문학』 No.99, 국어국문학회, 1988.
- 김진세, 「洪吉童傳의 作者考: 하나의 假設提起를 위하여」, 『論文集』 Vol.1, 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1969.
- 김태준, 『朝鮮小說史』, 學藝社, 1939.
- 민영대, 「洪吉童傳의 主題研究」, 『국어국문학』 No.83, 국어국문학회, 1980.
- 박일용, 「〈홍길동전〉의 문학적 의미 재론」, 『고전문학연구』 Vol.9, 한국고전문학회, 1994.
- , 「이본 변이 양상을 통해서 본 홍길동전의 종합적 고찰」, 『성곡논총』 Vol.33

- No.1, 성곡언론문화재단, 2002.
- 서혜은, 「경판 17장본 <홍길동전>의 간행 양상과 소설사적 위상」, 『열상고전연구』, Vol.42, 열상고전연구회, 2014.
- 송성욱, 「<홍길동전> 이본신고」, 『冠嶽語文研究』 Vol.13 No.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8.
- 안창수, 「반항과 순응을 통해서 본 「홍길동전」」, 『語文學』 No.48, 韓國語文學會, 1986.
- 유광수, 「<홍길동전>: 홍길동의 자기 존재증명과 욕망의 서사」, 『철학·사상·문화』 No.31, 홍길동의 인물형상으로 본 홍길동전의 의미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19.
- , 「세책 <홍길동전>의 제작연대와 경판본의 관계 -필사본89장본, 조종업본, 정우락본, 경판30장본, 동양문고본을 중심으로-」, 『철학·사상·문화』 No.37,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21.
- 유병환, 『아기장수, 홍길동, 허균 <홍길동전>』, 다래헌, 2012.
- 유춘동, 「완판(完板) 『홍길동전』 원간본(原刊本)의 출현, 그에 따른 판본(板本)과 간행(刊行)의 문제」 『어문연구』 Vol.49 No.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1.
- , 「완판본(完板本) 홍길동전 판본 간에 나타난 목판인쇄 특징의 차이점 관찰을 통한 간행 연대의 추정」, 『보존과학회지』, Vol.38 No.2,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22.
- 윤주필, 「중세 지식인의 존재 방식과 <홍길동전>」, 『고소설연구』 Vol.7, 한국고소설학회, 1999.
- 이능우, 「許筠論」, 『論文集』 Vol.5, 淑明女子大學校, 1965.
- 이문규, 「작가와 작품의 상관성 추정 시고 -허균과 <홍길동전>의 경우-」, 『국어교육』 Vol.37, 한국어교육학회, 1980.
- , 「洪吉童傳」, 『(황패강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古典小說研究』, 一志社, 1993.
- , 「홍길동의 인물형상으로 본 <홍길동전>의 의미」, 『先淸語文』 Vol.33,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國語教育科, 2005.
- 이상구, 「홍길동전의 서사전략과 현실인식」, 『국어교육연구』 Vol.52, 국어교육학회, 2013.
- 이윤석, 「<홍길동전> 이본의 성격에 관한 고찰」, 『國文學研究』 Vol.12, 효성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실, 1989.
- , 「<홍길동전> 일본 확정을 위한 시론」, 『동방학지』 Vol.8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4.
- , 「<홍길동전> 해석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Vol.9, 洙上古典研究會, 1996.
- , 『홍길동전 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97.
- , 「경판 <홍길동전> 축약의 양상과 그 의미」, 『열상고전연구』 Vol.40, 열상고전연구회, 2014.
- 이종주, 「한문본 홍길동전 검토」, 『국어국문학』 No.99, 국어국문학회, 1988.
- 이주형, 「主人公의 變身을 中心으로 본 「洪吉童傳」」, 『韓國學報』 Vol.5 No.4, 일지사, 1979.
- 이지영, 「<홍길동전>에서 길동이 보여준 사족(士族)의 가족 윤리의 실천 문제」, 『우리文學研究』 No.45, 우리문학회, 2015.
- 이창헌, 『경판방각소설 판본 연구』, 太學社, 2000.

- , 「방각소설 출판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방각소설의 출판과 언어·문화의 표준화-」, 『古典文學研究』 Vol.35, 한국고전문학회, 2009.
- 임형택, 「洪吉童傳의 新考察 (下)」, 『창작과 비평』 Vol.12 No.1, 창비, 1977.
- 장효현, 「<홍길동전>의 生成과 流傳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No.129, 국어국문학회, 2001.
- 정규복, 「洪吉童傳 異本攷」 (一), (二) 『국어국문학』 No.48, No.51, 국어국문학회, 1970, 1971.
- 조동일, 『소설의 사회사 비교론』, 지식산업사, 2001.
- 조용호, 「洪吉童傳의 主題新考」, 『西江語文』 Vol.8 No.1, 서강어문학회, 1992.
- , 「<홍길동전> 이본의 한 연구 - 한문본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시론」, 『서강어문』 Vol.9 No.1, 서강어문학회, 1993.
- 조희웅, 『古典小說 異本目錄』, 集文堂, 1999.
- , 『고전소설 연구보정 下』, 박이정, 2006.
- , 『한국 고전소설사 큰사전 65 호예-홍길동전』, 지식을만드는지식, 2018.
- 차용주, 「허균론재고」, 『아세아연구』 Vol.48,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1972.
- 최천집, 「<홍길동전>에 나타난 정체성 문제」, 『문화와 융합』 Vol.42 No.3, 한국문화융합학회, 2020.
- 최호석, 「안성판 방각본 출판의 전개와 특성」, 『어문논집』 No.54, 민족어문학회, 2006.

### 3. 기타

한국고문헌종합목록 ([www.nl.go.kr](http://www.nl.go.kr))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 ([www.emuseum.go.kr](http://www.emuseum.go.kr))

디지털한글박물관 ([archives.hangeul.go.kr](http://archives.hangeul.go.kr))

## <Abstract>

### A Study on <Hongkildongjeon>

: Focusing on different versions and thematic consciousness

Ki-Hwan Park

This study aims to set the versions by examining different versions of the classical novel <Hongkildongjeon> and define the original version based on this. In addition, it attempted to look into the thematic consciousness by analyzing the text defined as the original version and then paying attention to the aspects that weaken the resistance and critical themes of the work.

As a result of the review, different versions of <Honggildongjeon> which have been revealed so far were 76 Korean Pilsabon(manuscripts), 1 Chinese Pilsabon(manuscript), 5 Gyeongpanbon, 2 Anseongpanbon, 2 Wanpanbon, 5 Korean Pangakbon(printed from wood blocks), and 18 Guwhaljabon(old printed versions). This is the result of adding new 8 versions, including 11 from the manuscript, 2 from Banggakbon, and 2 from Guwhaljabon among the existing versions. A total of 104 versions of <Hongkildongjeon> were found, except for the Korean Pangakbon(printed from wood blocks) whose exact publication regions cannot be identified.

Next, this study reorganized different versions of <Honggildongjeon>. To this end, this study established a relationship of new versions through comparison of common motifs, differences, and proper nouns and defined Kim Dong-wook 89-sheet as the original version in this process. Based on Kim Dong-wook 89-sheet, the newly established versions were found to be gradually divided into Kim Dong-wook 47-sheet, Park Soon-ho 86-sheet, and

Jeong Myeong-ki 77-sheet. In particular, Kim Dong-wook 47 -sheet was sub-divided into Gyeongpan 23-sheet, Gyeongpan 21-sheet, and Gyeongpan 24-sheet.

Lastly, this study examined how the critical and resistant themes of the work were weakened by various causes. First, it paid attention to the limitations of characterization by class, in which the ruling powers of society are portrayed positively whereas the ruled class, a target of discrimination, are portrayed negatively. It could emphasize the discriminatory aspect of continuously internalizing the image of a specific class for the reader. Next, it looked into the logic of the principle of Ipsinyangmyeong(achieve fame and prestige), which was the main ideology of the society at the time. The desire for Ipsinyangmyeong led to the realization of the protagonist Gildong's personal values and the tolerance for the absurd social system. In addition, this study highlighted the conservative aspect of accepting existing social conceptions by figuring out how the logic of loyalty and filial piety constrained Gildong's fantastic power that could go beyond social constraints. It also found that the desire was achieved by half-overcoming due to the limitations of perception in the traditional era and the process of abbreviation or embellishment of different versions. Accordingly, it pointed out that <Hongkildongjeon> aimed at a social novel, but it failed to do it to the end and the problem was personalized.

Keywords: <Hongkildongjeon>, different versions, social novel, thematic consciousness, weakening of resistance and criticism

## <부록>

[<홍길동전> 전체 화소 비교표]

	김동옥 89장본	조종업본	김동옥 18장본	동양문고본	한글박 32장본	김동옥 47장본	경판 30장본	정우락본
1	홍씨 일문 소개	○	○	○	낙장	○	○	○
2	홍모의 태몽 (청룡이 달려들어 몸에 감김)	○ (청룡이 입을 벌려 달려드니 피하다 놀래서 껌)	○ (청룡이 입을 벌려 달려들며 깨물러 함)	○ (청룡이 달려드니 공이 피하다 놀래서 껌)	낙장	○	○	○ (청룡이 입을 벌려 달려드니 피하다 놀래서 껌)
3	홍모의 성관계 요구 및 부인의 거절	○	○	○	낙장	○	○	○
4	홍모의 강제적 친합 (춘삼 나이 이구 동비)	○ (춘삼 나이 삼팍)	○ (춘삼 나이 삼팍)	○ (춘삼 나이 삼팍)	낙장	○ (춘삼 나이 삼팍)	○ (춘삼 나이 삼팍)	○ (춘삼 나이 삼팍)
5	춘삼의 잉태	○	○	○	낙장	○	○	○
6	초남의 혐의	X	X	X	낙장	X	X	X
7	길동의 탄생과 성장	○	○	○ (길동 팔 세)	낙장	○ (길동 팔 세)	○ (길동 팔 세)	○
8	부인에 대한 홍모의 원망 (길동 나이 오 세)	○	○	X	낙장	X	X	○
9	길동의 한탄 (길동 나이 팔 세)	○ (길동 팔 세)	○ (길동 팔 세)	○ (길동 십 세 넘도록)	낙장	○ (길동 십 세)	○ (길동 십 세)	○ (길동 팔 세)
10	길동의 독백 (추구월 망간, 왕후상상년유종호)	○ (추구월 망간, 왕후상상년유종호)	○ (추구월 망간)	○ (추구월 망간)	○ (추구월 망간)	○	○	○ (추구월 망간, 왕후상상년유종호)
11	길동의 한탄과 홍모의 꾸짖음 (길동 미안 십 세 소아)	○ (십 세 소아)	○ (십 세 전 아해)	○	○	○	○	○ (십여 세 조)
12	길동의 재한탄과 꾸짖음	○	○	X	X	X	X	○
13	길동과 춘삼의 대화 (길생, 십삼 세)	○ (길산, 십삼 세)	○ (길산, 십삼 세, 초년에 대한 경고 X)	○ (길산, 십삼 세)	○ (길산)	○ (길동, 십삼 세)	○ (길산)	○ (길산, 십삼)
14	초남의 내력 소개	○	X	○	○	○	○	○
15	길동 살해 동기 노출	○	○	X	X	X	X	○
16	길동의 성장과 길동 살해 계획 수립 (옛날 이두)	○	○	○	○	○	○	○
17	무녀의 계략	○	○	○	○	○	○	○ (무녀들)

	김동욱 89장본	조종업본	김동욱 18장본	동양문고본	한글박 32장본	김동욱 47장본	경판 30장본	정우락본
18	관상녀의 계약 실행 (팔세에 부모를 여 일, 조선 소국 왕후 창상니, 영유총호아, 은자 오십 냥)	O (조선 소국, 왕후장상이 영유총호아, 오십 냥)	O (조선 소국)	O (관상녀 대사 생략)	O (관상녀 대사 생략)	O (조선 같은 소국에 있을)	O	O (조선 소국, 왕후장상이 영유총호아, 오십 냥)
19	흥모의 제약	X	O	O	O	O	O	O
20	길동의 능력 배양 (별서, 옥도삼약, 천문 지리, 장신둔갑지술)	X	O (옥도삼약, 천문지리, 둔갑장신, 풍운조화)	O (옥도삼약과 천문지리)	O (옥도삼약, 천문지리)	O (옥도삼약, 천문지리)	O (옥도삼약과 천문지)	O (옥도삼약, 천문지리)
21	흥모의 고뇌	O	X	X	낙장	X	X	O
22	특재 섬의 및 길동 살해 건의	O	O	O	O	O	O	O
23	흥모의 집안단속 및 길동의 능력배양 (주역, 팔문둔갑지술, 호풍환우지법)	△ (제약 한 번, 주역, 팔문, 둔갑지술)	X	X	낙장	X	X	O (주역, 옥심사괘랄, 문둔갑지술, 호풍환우지법)
24	흥모의 병환과 부인, 인현의 길동 살해 의지	O	X	X	X	X	X	O
25	초남의 길동 살해 계획과 부인, 인현의 동의 (나라와 부모를 위함)	O (국가, 문호, 상공 위함)	O	O (나라와 상공, 문호를 위함)	O (나라, 상공, 흥문)	O (나라, 상공, 문호를 위함)	O (나라와 상공, 문호를 위함)	O (나라, 상공 위함)
26	초란과 특재 접선(은자 백 냥)	O (은자 백 냥)	O	O	O	O	O	O
27	부인이 번뇌와 인현의 위로	O	X	X	낙장	X	X	O
28	길동의 특재 탐지 (가미구 소리에 자객이 온다, 팔문둔갑지법, 장신둔갑지술)	O (가미구 소리의 자객이 오리라, 팔문둔갑지법, 장신둔갑지술)	O	O	O	O	O	O (가미구 소리에 자객이 오리라, 문둔갑절법)
29	특재와 길동의 대결	O	O	O	O	O	O	O
30	특재의 패배와 죽음	O	낙장	O	O	O	O	O
31	무녀와 관상녀의 죽음 (상공이 총애하고 어머니가 때문에 초남은 죽이지 않음)	△ (관상녀만 죽음, 상공의 총애이고 어머니가 때문에 죽이지 않음)	낙장	△ (관상녀만 죽음)	O	△ (관상녀만 죽음)	△ (관상녀만 죽음)	△ (관상녀만 죽음, 상공의 의기인이라 이지 않음)
32	초남에 대한 살해 거부 이유 (영인 부아연당 무아부인)	O (영인 부아연당 무아부인)	낙장	O (상공이 사랑하기 때문에)	O (상공이 사랑하기를 깨닫고)	O (상공이 사랑하고 어머니 자가 있기 때문에)	O (상공이 사랑하기 때문에)	O (영인부아연 건 무아부인)
33	길동의 하직 및 호부호형의 허락 (길동 나이 십여 세)	O (길동 나이 십여 세)	낙장	O (호부호형 제한을 먼저 풀어줌)	O (호부호형 제한을 먼저 풀어줌)	O (호부호형 제한을 먼저 풀어줌)	O (호부호형 제한을 먼저 풀어줌)	O



	김동욱 89장본	조종업본	김동욱 18장본	동양문고본	한글박 32장본	김동욱 47장본	경판 30장본	정우락본
34	길동과 춘섬의 작별	○	낙장	○	○	○	○	○
35	홍무의 전말 확인 및 초낭 퇴출	○	낙장	△ (초낭을 살해함)	△ (초낭을 살해함)	○	△ (초낭을 살해함)	○
36	무녀와 상녀의 부모 자식이 수소문	△ (관상녀만 드러남)	낙장	X	X	X	X	X
37	도적 소굴 발견(표자 떠나려 오는 일로 절을 짐작함)	○ (표자로 절과 도간을 짐작함)	낙장	○	○	○	○	○ (표자로 사찰이나 도관을 짐작함)
38	길동의 장수 시험 (소부석을 들고 걷다 공중에 던짐)	○ (소부석, 무게 천 근, 수십 보 행하다 공중에 던짐)	○ (초부석, 무게 천 근, 공중에 던짐)	○ (천 근의 돌)	○ (천 근, 수십 보 행하다 던짐)	○ (천 근의 바회)	○ (천 근의 돌)	○ (소부석, 천 근, 수십 보 걷다 공중에 던짐)
39	길동의 장수 (제군 열명한 과 부고문서, 백마의 피로 맹세)	○ (안채과 부고문서, 백마의 피)	○ (백마)	○ (백마)	○ (백마를 잡아 맹세)	○ (백마)	○ (백마)	○ (백마의 피)
40	하인사 공략 (백미 이십 석, 십오일의 밥과 술, 모래)	○ (금일 십오일 밤)	○	○	○	○	○	○
41	관군 소환 (목군하는 놈)	○ (불목환이)	○ (불목하는 중)	○ (불목환이)	○ (불목환이)	○ (불목하던 사람)	○ (불목환이)	○ (불목환이)
42	길동의 관군 농락	○	○	○	○	○	○	○
43	활빈당 창당 및 행동강령 고지	○	○	X	X	○	○	○
44	활빈당 행동강령 제차 고지	○	X	X	X	X	X	○
45	함경감영 공략 (번복 육십 인)	○ (오륙 인 번복)	○	○ (함경감사 춘인고택)	○ (함경감사 춘인고택)	○ (함흥)	○	○ (오륙 인 번복)
46	여덟 초인 제작 (한 길동에 도적 오백 명씩)	○ (초인 일곱, 오백 명씩)	○ (일곱 초인, 수백 명)	○ (일곱 초인, 수백 명씩)	○ (초인 일곱, 수백 명씩)	○ (일곱 초인 한 길동에 수백 명씩)	○ (일곱 초인, 수백여 명씩)	○ (초인 칠 인, 오백씩)
47	팔도에서의 활빈당 활동	○ (일곱 초인과 길동)	○ (일곱 초인과 길동)	○ (일곱 초인과 길동)	○ (일곱 초인과 길동)	○ (일곱 초인과 길동)	○ (일곱 초인과 길동)	○ (일곱 초인과 길동)
48	팔도의 장문과 임금의 걱정 (초패왕과 제갈공명)	○ (초패왕 항적, 무양후 제갈공명)	○	○ (치위)	○ (임금 걱정 X)	○	○ (치위)	○ (치위와 공명)
49	길동과 포장의 합세	○	○	○	낙장	○	○	○
50	길동의 포장 시험 (길동 앞은 암상을 걸어잡)	○ (미희)	○ (바외)	○ (바회)	낙장	○	○	○ (바회)
51	길동의 균혈 탐지	○	○	○	낙장	○	○	○
52	포장의 사랑 걱정	○	X	X	낙장	○ (호도의 히)	X	○

	김동욱 89장본	조종업본	김동욱 18장본	동양문고본	한글박 32장본	김동욱 47장본	경판 30장본	정우락본
53	포장 포획	0	0	0	낙장	0	0	0
54	포장과 하인 방송 (가족부대)	0	0	0	낙장	0	0	0
55	포장의 체념 (장안 북악산)	0 (장안 북악산)	0 (한양선 북악산)	0 (장안 성중 북악)	낙장	0 (장안성 부각)	0	0 (장안성 북악)
56	길동의 선참후계	0	0	0	낙장	0	0	0
57	임금이 길동 내력 파악 및 홍씨 부자 압송	0	0	0	0	0	0	0
58	홍문의 사탈관직과 투옥	△ (사탈관직 X)	X	X	X	X	X	X
59	홍문의 복지와 인현의 경향김사 제수 (일년 기한, 십여 일만에 당도)	0 (일한, 홍모 이 팍집) 기나	△ (홍문의 복직 X)	△ (홍문의 복직 X, 일년)	△ (홍문의 복직 X)	△ (홍문의 복직 X)	△ (홍문의 복직 X)	0
60	인현의 행관	0	0	0	0	0	0	0
61	길동의 등장 (나귀, 남문, 동협문)	낙권	0	0	0	0	0	0
62	길동과 인현의 해후 및 설득 (울며)	낙권	0	0	0	0	0	0
63	길동의 호부호형 금지 원망	낙권	0	0	0	0	0	0
64	여덟 길동 동시 압송	낙권	0	0	0	0	0	0
65	홍문의 참 길동 판별	낙권	0 (좌편 다리 붉은 점)	0 (좌편 다리 붉은 점)	0 (좌편 다리 붉은 혈점)	0	0	0 (좌편 다리의 붉은 혈점)
66	홍문의 실신	낙권	0	0	0	0	0	0
67	홍문의 회생 (이합을 갈아서)	낙권	0 (환약 한 낫식)	0 (환약 일 개씩)	0 (환약 일 개씩)	0 (환약 한 개씩)	0 (환약 일 개씩)	0 (환약 두 개씩)
68	길동의 소명 (십년 후에 조선을 떠날 것을 약속)	낙권	0 (십년 후)	X (병조판서 제수 후 즉시 떠날 것을 약속)	0 (십년 후 떠날 것을 약속함)	0 (십년 후 떠날 것을 약속함)	0 (십년 후 떠날 것을 약속함)	0 (십년 후)
69	길동의 병조판서 요구	낙권	0	X	0	0	0	0
70	임금이 길동 포획시도	낙권	X	X	X	X	X	X
71	인현에게 길동 포획 재촉	낙권	0	X	0	0	0	0
72	길동과 인현 재회 (선화당 대들보 위)	낙권	0	X	0	0	0	0 (선화당 뒤 들보 위)

	김동욱 89장본	조종업본	김동욱 18장본	동양문고본	한글박 32장본	김동욱 47장본	경판 30장본	정우락본
73	길동 압령 (인현의 초인 확인 및 부모와 처자 없는 장교 선정)	낙권	○	△ (장교 부분 생략)	○	△ (장교 부분 생략)	△ (장교 부분 생략)	○
74	길동 살해 계획 (도감포수)	낙권	X	X	X	X	X	○
75	길동 포박 실패 및 압령 장교 원찬	낙권	△ (장교 원찬 생략)	△ (장교 원찬 생략)	△ (장교 원찬 생략)	△ (장교 원찬 생략)	△ (장교 원찬 생략)	○ (장교 엄수)
76	병조판서 제수 및 길동의 숙배	낙권	○	○ (사디문)	○ (사문)	○	○	○
77	백관들의 길동 살해 모의 (도부수)	낙권	○	○	○	○	○	○
78	길동의 능력 발휘 및 임금의 포기	낙권	○	○	○	○	○	○
79	길동이 남경행 및 거점 선정 (일봉산)	낙권	○ (요동산)	○ (오봉산)	○ (오봉산)	○ (오봉산)	○ (오봉산)	○ (일봉산)
80	길동의 명령 (양구양처 경성 서장으로 배를 몰아 올 것)	낙권	○ (양천 강변)	○ (양천강)	○ (양천 강변. 경성 한강)	○ (양천 강변)	○ (양천 강변)	○
81	임금과 길동의 만남 (추구월 망일)	낙권	○ (추구월 망간)	○ (추구월 망간)	○ (추구월 망간)	○	○	○ (삼년 후 추구월 망간)
82	길동의 정조 구득 (삼천 석)	낙권	○ (대동미 일천 석)	○ (정조 일천 석)	○ (정조 일천 석)	○ (정조 일 천석)	○ (정조 일천 석)	○ (정조 일천 석)
83	길동이 눈을 뜨지 않는 사유 제시	낙권	X	X	○	○	○	○
84	서경에서 정조 삼천 석 준비 (선혜량청)	낙권	○ (대동당상)	○ (선혜당상. 일천 석)	○ (선혜당상. 삼천 석)	○ (일천 석. 선혜당상)	○ (일천 석)	○ (혜청당상)
85	제도 선종으로의 이주와 생활	낙권	X	○	○	○	○	○
86	길동의 망당산행	낙권	X	○	○	○	○	○
87	백룡의 딸 실종 (락천현, 십팔 세)	낙권	X	○	○	○	○	○
88	활로 울등 대장을 상해 (처자를 잡아가는 것 을 보고 이후 피자 취를 쫓아 감	낙권	X	△ (울등을 잡 아 세상 사 람에게 보 고자 한 것 이며 활로 를 쏘고 지낸 후 물에게 발견 됨)	△ (이유를 밝 히지 않고 과몰에게 발견됨)	△ (울등을 잡 아 세상 사 람에게 보 고자 한 것 이며 활로 를 쏘고 지낸 후 물에게 발견 됨)	△ (울등을 잡 아 세상 사 람에게 보 고자 한 것 이며 활로 를 쏘고 지낸 후 물에게 발견 됨)	△ (울등을 잡 아 세상 사 람에게 보 고자 한 것 이며 활로 를 쏘고 지낸 후 물에게 발견 됨)
89	길동의 의원 변장 및 울등 소굴 진입 (한 여자가 자살 하려는 것을 두 여자가 말함)	낙권	X	△ (여자의 자살 시도 X)	△ (여자의 자살 시도 X)	△ (여자의 자살 시도 X)	△ (여자의 자살 시도 X)	○
90	울등 대장 살해	낙권	X	○	○	○	○	○

	김동욱 89장본	조종업본	김동욱 18장본	동양문고본	한글박 32장본	김동욱 47장본	경판 30장본	정우락본
91	울동 무리와 길동의 대결 및 승리	낙권	X	○ 두 여자가 서로 죽으려 함	○ 두 여자가 서로 죽으려 함	○ 두 여자가 서로 붙들고 죽으려 함	○	○
92	세 명의 양가 여자 구원 (정씨, 조씨, 락천현 백룡의 딸)	낙권	X	△ (두 명의 여자를 구함)	△ (두 명의 여자를 구함)	△ (두 명의 여자를 구함)	△ (두 명의 여자를 구함)	○
93	길동의 혼인 (백룡의 딸을 처로, 두 양가 여자를 첩으로 삼음)	낙권	X	△ (두 여자를 처로 삼음)	△ (두 여자를 처로 삼음)	△ (두 여자를 처로 삼음)	△ (두 여자를 처로 삼음)	○
94	길동의 고백 (삼년 후)	낙권	X	○ (칠월 망간)	○ (칠월 망간)	○	○ (칠월 망간)	○
95	백소저의 위로 (도망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팔자)	낙권	X	○ (백소저 위로 X)	○ (백소저 위로 X)	○ (백소저 위로 X)	○ (백소저 위로 X)	○
96	중의 모습으로 조선 복귀	낙권	X	○	○	○	○	○
97	홍모의 죽음(팔십, 추구월 망간, 춘섬에게 당부 및 한탄)	낙권	○ (칠십일세 줄)	△ (팔순, 춘섬과의 대화 생략)	△ (팔순, 춘섬과의 대화 생략)	△ (춘섬과의 대화 생략)	△ (춘섬과의 대화 생략)	○ (홍승상 팔 십)
98	길동과 인현, 부인과 춘섬의 재회	낙권	○	○	○	○	○	○
99	길동의 당부 (문호의 해 걱정)	낙권	X	X	X	X	X	○
			길동에게 장지선정 위임	길동에게 장지선정 위임	길동에게 장지선정 위임	길동에게 장지선정 위임	길동에게 장지선정 위임	
100	길동의 못자리 제안과 인현의 거절	낙권	○	X	X	X	X	○
101	길동이 정한 장지에서 신이한 현상 발생 (붉은 안개와 백학)	낙권	○ (봉 한 쌍)	X	X	X	X	○ (붉은 안개, 백학 한 쌍)
102	길동의 장지 제안내	낙권	○	○	○	○	○	○
103	길동과 춘섬 동행 허락 (십년)	낙권	○ (인현도 허락함)	○	○	○	○	○ (십년, 상인도 허락함)
				인현이 길동에게 전후사를 묻고 길동이 답함	인현이 길동에게 전후사를 묻고 길동이 답함	인현이 길동을 옳게 보며, 춘섬을 보고 놀라 길동이 답함	인현이 길동을 옳게 보며, 춘섬을 보고 놀라 길동이 답함	
104	홍모의 제사 (인현이 산역 범절이 국능과 같음을 칭찬함)	낙권	○	○ (길동이 정한 장지가 국능과 같아 인현이 놀람)	○ (길동이 정한 장지가 국능과 같아 인현이 놀람)	○ (길동이 정한 장지가 국능과 같아 인현이 놀람)	○ (길동이 정한 장지가 국능과 같아 인현이 놀람)	○ (길동이 정한 장지가 국능과 같아 상인이 놀람)

	김동욱 89장본	조종업본	김동욱 18장본	동양문고본	한글박 32장본	김동욱 47장본	경판 30장본	정우락본
105	춘삼과 자부의 만남 (일희일비)	낙권	X	X	X	X	X	O
106	인현의 조선 복귀	낙권	O	O	O	O	O	O
107	길동의 삼년상	낙권	O	O	O	O	O	O
			경성 하남촌 사는 백용과 조철을 구하고 그들의 딸들을 맞아 혼인함 (방년 십팔구제)					
108	제도섬 근처 룰도국 소개 (대국을 섬기지 않음)	낙권	O	O (대국 얘기 X, 무도함 룰도국 향)	O (대국 얘기 X)	O (대국 얘기 X)	O (대국 얘기 X)	O (대국으로 통신이 없고)
109	길동의 군대 규모 소개 (마군 십만, 보군 십만)	낙권	X	X	X	X	X	O (마군 십만 보군 이십만)
110	길동의 룰도국 침략 제안	낙권	O	O	O	O	O	O
111	룰도국 침략 (갑자 추구월 망일에 초나라 조아부의 풍채 같이)	낙권	O	O (갑자 추구월)	O (갑자 추구월)	O (일시 X)	O (갑자 추구월)	O (추구월 망간)
				허만달과 굴돌동이 선봉에 서 룰도국을 탐지함	철봉 태수 김현충과의 대결과 항복(길동의 오방신장)	철봉 태수 김현충과의 대결과 항복(길동의 오방신장)	철봉 태수 김현충과의 대결과 항복(길동의 오방신장)	길동이 침입여 성들을 정복 후 철봉태수와 대결하고 그를 사로잡으나 충신이므로 군영으로 회유함
112	침입여 성 정복 후 룰도국 왕에게 격서 전달 (성당과 무왕의 고사)	낙권	△ (철봉만 빼앗음)	십월 망간에 티홍현을 취하고 이윽고 네 주현과 칠십여 성에 항복을 받음	△ (철봉만 빼앗음, 결, 두왕 발췌)	O	O	O
			믿고 있던 철봉태수를 잃자 왕과 세자, 왕비가 자결함	철봉태수의 항복을 받음	믿고 있던 철봉태수를 잃자 왕과 세자, 왕비가 자결함	믿고 있던 철봉태수를 잃자 왕이 자결함	믿고 있던 철봉태수를 잃자 왕과 세자, 왕비가 자결함	
113	룰도국 왕의 출진	낙권	X	O (성당, 무왕)	X	X	X	O
114	룰도국 왕이 패배 후 자결	낙권	X		X	X	X	O
115	룰도국 정벌 (룰왕 부자의 시신을 거두어 왕례로 장사)	낙권	X	O	X	X	X	O
116	길동의 즉위 및 작위 수여일 (십이월 갑자일, 안남국)	낙권	O	△ (아들도 자결)	O (을축 정월 초구일)	O (을축 정월 이십팔일)	O (을축 정월 이십팔일, 룰도국)	O (십이월 갑자)

	김동욱 89장본	조종업본	김동욱 18장본	동양문고본	한글박 32장본	김동욱 47장본	경판 30장본	정우락본
117	백성의 격양가 (요지일월이요 순지건곤이라)	낙권	X	O	X	X	X	X
				O (십일월 갑자일)	김동이 자나날을 소회하며 감상에 젖음	김동이 자나날을 소회하며 감상에 젖음	김동이 자나날을 소회하며 감상에 젖음	
118	정조 반환 및 표문 전달 (한림학사 상회)	낙권	△ (일천 석, 백용)	O	△ (일천 석, 백용)	△ (일천 석, 백용)	△ (일천 석, 백용)	O (일천 석, 한림학사 정회)
119	임금의 칭찬과 인현의 률도국 방문 허락	낙권	O	O	O	O	O	O
120	현덕왕비와 인현의 률도국 방문	낙권	△ (안내자 X, 삼 삭만에)	△ (일천 석, 명희)	△ (안내자 X, 삼 삭만에)	△ (안내자 X, 삼 삭만에)	△ (안내자 X, 삼 삭만에)	△ (안내자 X, 삼 삭만에)
121	조선 왕의 교지 확인	낙권	X	O	X	X	X	X
122	부인과 인현이 호모의 산소 방문 (십여 일만에, 제도 류수와 찬봉이 영접함)	낙권	O	△ (안내자 X, 수 삭만에)	X	O	O	O
123	대부인 사망 (칠십팔 세, 삼 삭만에, 설릉)	낙권	O	X	O	O	O	O (팔십)
124	인현의 복귀 (삼년상 이후)	낙권	O (삼년상 X)	O	O (삼년상 X)	O	O	O
125	춘상왕비의 죽음 (경이 구월 망일, 칠십, 삼월 삭만에 설릉 우편에 안장)	낙권	O	O (팔십)	O	O	O	O (칠십, 경자 구월 초구일 졸)
126	김동이 자식 소개 (삼자를 두어 세자를 봉하고 각각 직위를 수여함)	낙권	△ (삼자 이녀)	O (삼년상 X)	△ (삼자 이녀)	△ (삼자 이녀)	△ (삼자 이녀)	O (삼자)
127	김동의 생활 (1) (김동 나이 육십, 등극한지 삼십여 년에 세자에게 제위를 넘기고 술과 함께 말을 이으며 비회를 금지 못함)	낙권	X	O (칠십)	김동 등극 삼십년 침수에 영락전에서 노래를 부르며 살다 두 왕비와 열낙하더니 웅과 함께 왕과 왕비가 사라짐	X	X	X
128	김동의 생활 (2) (김동과 왕후가 도성 삼십 리에 위치한 명신산에서 도를 닦음)	낙권	X	O	X	김동이 침수 의 나이에 영낙에서 적송자를 찾으며 노래를 부 르다 백발 노동을 따 라 왕과 왕 비가 사라 짐	X	O (영신산)
			김동이 등극 한지 삼십 년 영낙전에서 노래를 지어 부르다 구름 을 타고 승하 함	김동이 등극 한지 수십 년 육십의 나이 에 적송자의 자취를 쫓고 노래를 부름		김동이 침수 의 나이에 영낙에서 적송자를 찾으며 노래를 부 르다 백발 노동을 따 라 왕과 왕 비가 사라 짐	김동이 죽어 삼십년 나이 육십에 세자를 봉하고 적송자 의 자취를 찾다 왕위를 전함 (일천 화소와 순사가 바뀜)	

	김동욱 89장본	조종업본	김동욱 18장본	동양문고본	한글박 32장본	김동욱 47장본	경판 30장본	정우락본
129	길동의 퇴장 (신기한 현상과 더불어 모비와 함께 사라짐)	낙권	X	O (영산)	X	X	X	O
130	길동 퇴장 이후의 서사 (왕과 그 동생들이 애통해하며 경성에서 발상하고 현릉니를 지어 종사를 받들)	낙권	X	O	O	O	O	O
					왕이 또한 두었음을 삼자를 게게 왕업을 고 해서 누림	태평성대를 이루다 삼자 또한 삼자임을 두었고 충효를 으로 추호를 후 기록하여 세에 알게함		

	김동욱 89장본	완판 36장본	정명기 77장본	국중도 70장본	김동욱 28장본	박수호 86장본	세창서관본	김광수 28장본
1	흥씨 일문 소개	△ (흥문만 소개)	△ (흥문만 소개)	△ (흥문만 소개)	△ (흥문 소개)	O	O	낙장
2	흥모의 태몽 (청룡이 달려들어 몸에 감김)	O (청룡의 기운이 입으로 들어감)	O (청룡의 기운이 입으로 들어감)	O (실과를 입에 물고자 함)	O (청룡의 기운이 입으로 들어감)	O (청룡이 달려드니 놀래서 껌)	O (청룡이 달려드니 놀래서 껌)	낙장
3	흥모의 성관계 요구 및 부인의 거절	O	O	X (부인을 찾지 못함)	O	O	O	O
4	흥모의강제적 친합 (춘섬 나이 이구 동비)	O	O	O	O	O	O (나이 십팔)	O
5	춘섬의 잉태	X	O	O	O	O	O	O
6	초남의 혐의	X	X	X	X	X	X	X
7	길동의 탄생과 성장	O	O	O (길동 칠 세)	O	O	O (길동 팔 세)	O (길동 팔 세)
8	부인에 대한 흥모의 원망 (길동 나이 오 세)	O	O	X	O	O	X	X
9	길동의 한탄 (길동 나이 팔 세)	O (길동 팔 세)	O (길동 팔 세)	X	O (길동 나이 팔 세)	O (길동 팔 세)	X	X
10	길동의 독백 (추구월 망일, 왕후장상이 영조하호)	O (추찰월 망일, 왕후장상이 씨 없다)	O (추찰월 망일, 왕후장상이 영조하나)	X	O (추찰월 망일, 왕후장상이 씨 없다)	O (춘사월 망간, 왕장상이 씨 실르리요)	O (추구월 망간)	O (추구월 망간)
11	길동의 한탄과 흥모의 꾸짖음 (길동 미안 십 세 소아)	O	O (길동 십세 소아)	O	길동이 흥모에게 한탄하고 꾸짖음을 들음 (길동 십세 소아)	△ (꾸짖음 X)	O	O

	김동욱 89장본	완판 36장본	정명기 77장본	국중도 70장본	김동욱 28장본	박순호 86장본	세창서관본	김광순 28장본
12	길동의 재한탄과 꾸짖음	X	X	X	X	X	X	X
13	길동과 추선의 대화 (길생, 십삼 세)	O	O (괄산, 십삼 세)	O	O	O	O (괄산)	O (괄산)
14	초나의 내력 소개	O	O	O	O	O	O	O
15	길동 살해 동기 노출	O	O	O	O (비교 X)	O	O	O
16	길동의 성장과 길동 살해 수립 (옛날 이두)	X	O	O	O	△ (길동 성장 X)	O	O
17	무녀의 계약	O (무녀 무리)	O	O	O	O	O	O
18	관상녀의 계약 실행 (팔세에 부모를 여임, 조선 소국, 왕후장상이 녀우추호야, 은자 오십 냥)	O (괄분양의 고사, 왕후장상이 었지 씨 잇스릿가)	O (조선 소국, 왕후장상이 문대 시 여사다)	O (괄분양, 조선 소국, 왕후장상이 본대 었다 하오이 일역으로 밋칠배 안이이다)	O (괄분양, 왕후장상이 었지 씨 잇시니요)①	O (조선 지방 편소, 왕후장상이 었디 기 이시요)	O	O (은자 오십 냥)
19	홍모의 제약	X	O	O	O ⑥	O	O	O
20	길동의 능력 배양 (병서, 육도삼략, 천문지리, 장신둔갑지술)	X	O (손오병서, 육도삼략, 천문지리)	O (손오병서, 육도삼략)	O (십일세, 손오병서, 육정육갑)⑦	O (손오병서, 천문지리) 배장수와 도적 대목 추가	O (육도삼략, 천문지리)	O (육도삼략, 천문지리)
21	홍모의 고뇌	O	O (이후에 나눔)	O	O ②	X	O	O
22	특재 섭외 및 길동 살해 건의	△ (특재 섭외 X)	O	X	O (특재 섭외 X)③	O	O	O
23	홍모의 집안단속 및 길동의 능력배양 (주역, 팔문둔갑지술, 호풍환우지법)	X	X	X	X	△ (집안 단속 X, 주역, 육십사괘달, 팔문둔갑, 천문지리)	X	X
24	홍모의 병환과 부인, 인현의 길동 살해 의지	X	O	O	X	O	O	O
25	초나의 길동 살해 계획과 부인, 인현의 동의 (나라와 부모를 위함)	O	O (하날과 디감을 위함)	O (환, 디감을 위함)	O (초나가 말하되 국과 대가의 환후와 흥씨 일문을 위함)④	O (대감을 위함)	O (나라, 상공, 흥문을 위함)	O (나라, 상공, 흥문을 위함)
26	초란과 특재 접선 (은자 백 냥)	O	O (은자 백 냥)	O (은자 백 냥)	O ⑤	O (은자 오십 냥)	O	O
27	부인이 번뇌와 인현의 위로	X	O	O	X	O	X	X



	김동욱 89장본	완판 36장본	정명기 77장본	국중도 70장본	김동욱 28장본	박순호 86장본	세창서관본	김광순 28장본
28	길동의 특재 탐지 (가마귀 소리에 자객이 온다. 팔문둔갑지법, 장신둔갑지술)	○ (가마귀 세 번 객자와 객자와, 팔진)	○ (가마귀 곡곡 세 번 울고간이 재객나라)	○ (가옥가옥 세 번 울니 자객내라)	○ (가마귀 세번 객자와객자 와, 팔진)	○ (가마귀 세 번 울고 복으로 날아감)	○ (가마귀 세 번을 울고 감)	○ (가마귀 세 번 울고 가거늘)
29	특재와 길동의 대결	○	○	○	○	○	○	○
30	특재의 패배와 죽음	○	○	○	○	○	○	○
31	무녀와 관상녀의 죽음 (상공이 총애하고 어미이기 때문에 초남은 죽이지 않음)	△ (상녀만 살해함. 초남자기 의모이기 때문에 살해하지 못한다고 함)	△ (상녀만 살해함. 초남이 대감지첩이 자 의모이기 때문에 죽이지 못함)	△ (상녀만 살해함. 초남이 의모이기 때문에 죽이지 못함)	△ (상녀만 살해함. 초남이 의모이기 때문에 죽이지 못함)	△ (상녀만 살해함. 대감이 총애하고 어미이기 때문에 죽이지 못함)	○	○
32	초남에 대한 살해 거부 이유 (영인부아녀전 무아부인)	○ (영인 부아녀정 무아부인)	○ (영인공부아 부인이라)	○ (영인 부아녀정 무아부인)	○ (영인 부아녀정 무아부인)	○ (이미 사람을 죽여서 죄가 적지 않음)	○ (상공이 사랑하기 때문에 죽이지 못함)	○ (상공이 사랑하심을 깨닫고)
33	길동의 하직 및 호부호형의 허락 (길동 나이 십여 세)	○	○	○	○	○ (길동 나이 십 세)	○ (호부호형 제한 먼저 풀어줌)	○ (호부호형 제한 먼저 풀어줌)
34	길동과 춘섬의 작별	○  부인이 번뇌하고 인현이 위로함	○  ○	○ (초남의 일을 날같이 고함)  부인이 번뇌하고 인현이 위로함	○ (초남 직변한 일을 날같이 고함)  부인이 번뇌하고 인현이 위로함	○	○	○
35	흥문의 전말 확인 및 초남 퇴출	○	○	○	○	○	○ (초남 살해)	○ (초남 살해)
36	무녀와 상녀의 부모 자식이 수소문	X	△ (관상녀의 부모가 여식을 찾으나 찾지 못함)	X	X	X	X	X
37	도적 소굴 발견 (표자 떠내려 오는 일로 절을 짐작함)	○  길동이 장수 되기를 희망하자 총각이 쫓아냄  길동이 글을 쓰고 좌중에 주니 도적들이 길동을 좌상으로 칭함	○ (표주 떠오는 것으로 절을 짐작함)  길동이 장수 되기를 희망하자 총각이 쫓아냄  길동이 방을 쓰니 도적들이 길동을 좌상으로 칭함	○  길동이 장수 되기를 희망하자 총각이 쫓아냄  길동이 글을 쓰니 도적들이 길동을 좌상으로 칭함	○ (표자 세내물을 조차 떠오는 것을 보아 인가를 짐작함)  길동이 장수 되기를 희망하자 총각이 쫓아냄  길동이 글을 쓰니 도적들이 길동을 좌상으로 칭함	○  길동이 장수 되기를 희망하자 총각이 쫓아냄  길동이 글을 쓰니 도적들이 길동을 당상으로 칭함	○	○

	김동욱 89장본	완판 36장본	정명기 77장본	국중도 70장본	김동욱 28장본	박순호 86장본	세창서관본	김광순 28장본
38	길동의 장수 시험 (소부석을 들고 걷다 공중에 던짐)	○ (초부석, 보수십, 보 그 자리에 놓음)	○ (비석, 백 일처팔, 백 들을 들고 보를 행하다 내려놓음)	○ (초부석, 수십보를 행하다가 도로 그 자리에 노흐)	○ (초부석, 천여 그 돌을 들고 보를 행하다 그 자리에 놓음)	○ (청부석, 독, 수십 보를 도로 놓음)	○ (수십 보를 행하다 천 근)	○ (수십 보를 행하다 천 근)
39	길동의 장수 선정 (제군 열명한 안채과 부고문서, 백마의 피로 맹세)	○ (백마의 피로 맹세)	○ (백마의 피로 맹세)	○ (백마의 피로 맹세)	○ (백마)	○ (백아마)	○ (백마)	○ (백마)
40	하인사 공략(백미 이십 석, 십오일의 밥과 술, 모래)	○	△ (백미 삼십 석 → 삼천 석)	○	○	○ (백미 십 석, 십오일)	○ (백미 이십 석)	○ (백미 이십 석)
41	관군 소환 (목군하는 놈)	○ (목공)	○ (못하난 중)	○ (목공)	○ (목공)	○ (목공)	○ (불목한이)	○ (불목한이)
42	길동의 관군 농락	○	○	○	○	○	○	○
43	활빈당 창당 및 행동강령 고지	X	△ (하여미당, 활미당)	X	X	○	○	○
44	활빈당 행동강령 재차 고지	X	○	X	X	○	X	X
45	함경감영 공략 (번복 육십 인)	○ (능소에 불이 붙지 않게 함)  ○ (능소에 불이 붙지 않게 함) 활빈당을 창당하고 행동강령을 고지함	○ (능소에 불이 붙지 않게 함)	○ (능소에 불이 붙지 않게 함)  ○ 활빈당을 창당하고 행동강령을 고지함	○ (능소에 불이 붙지 않게 함)  ○ 활빈당을 창당하고 행동강령을 고지함	○ (승상기에 불이 맞지 않게 함)	○ (함경감사 준민고택)	○ (함경감사 준민고택)
46	여덟 초인 제작 (한 길동에 도적 오백 명씩)	○ (일곱 초인)	○ (일곱 초인, 한 길동에 일천 군씩)	○ (일곱 초인, 군사 오십 명씩)	○ (초인 일곱, 한 길동에 오십 명씩)	○ (초인 일곱, 한 길동에 일천 명씩)	○ (초인 일곱, 수백 명씩)	○ (초인 일곱, 수백 명씩)
47	팔도에서의 활빈당 활동	○ (일곱 초인과 길동)	○ (일곱 초인과 길동)	○ (일곱 초인과 길동)	○ (일곱 초인과 길동)	○	○	○
48	팔도의 장문과 임금의 걱정 (조패왕과 제갈공명)	○	○ (조패왕)	○	○	○ (조패왕)	○ (치우)	○ (치우)
49	길동과 포장의 합세	○	○	○	○	○	○	○
50	길동의 포장 시험 (길동 안은 양상을 견어참)	○ (길동이 안은 증암찰벽을 견어참)	○ (바회)	○ (길동이 안은 증암찰벽을 견어참)	○ (증암찰벽)	○ (뫼)	○ (바회)	○
51	길동의 군혈 탐지	○	○	○	○	○	○	○
52	포장의 시랑 걱정	X	○	X	○	X	X	X
53	포장 포획	○	○	○	○ (지부대왕)	○ (십전명왕)	○	○

	김동욱 89장본	완판 36장본	정명기 77장본	국중도 70장본	김동욱 28장본	박순호 86장본	세창서관본	김광순 28장본
54	포장과 하인 방승 (가족부대)	○	○	○	○ (가족부대)	○ (가족부대)	○ (가족부대)	○ (가족부대)
55	포장의 체념 (장안 복약산)	X (생략)	○ (장안 부약간)	○ (장안 부약)	○ (장안 복약)	○ (장안 복약산)	○ (장안성 복약)	○ (장안성 복약)
56	길동의 선참후계	○	○ (팔월)	○	○	○	○	○
57	임금이 길동 내력 파악 및 홍씨 부자 압송	○ (이미 홍승상이 병석에 있었음)	○	○ (이미 홍승상이 병석에 있었음)	○ (이미 홍승상이 병석에 있었음)	○	○	○
58	홍모의 사탈관직과 투옥	X	X	X	△ (사탈관직X)	X	X	△ (사탈관직X)
59	홍모의 복지와 인현의 경상감사 제수 (일 년 기한, 십여 일만에 당도)	△ (홍문의 복직 X)	○ (옛 고사, 홍승상 나이 절십)	△ (홍문의 복직 X, 홍문 나이 팔십)	○ (홍승상 나이 팔십)	○ (홍모 나이 팔십 이상, 일 년 기한)	○	○
60	인현의 행관	○	○	○	○	○	○	○
61	길동의 등장 (나귀, 남문, 동협문)	○ (나귀X, 여더할 소년이 빛기와 통재한다)	○ (동편문)	○ (나귀X, 여떠한 소년이 빛기와 통기한다)	○ (여떠한 소년이 빛기와 통재한다)	○ (여떠한 소년이 사도천으로 통구하나니다)	○	○
62	길동과 인현의 해후 및 설득 (울며)	○ (울며 설득하지 않음)	○ (천작지얼은 유희이요, 자작지얼 불거나할니라)	○ (울며 설득하지 않음)	○ (울며 설득하지 않음)	○	○	○
63	길동의 호부호형 금지 원망	△ (호부호형 금지에 대한 원망 X)	○	△ (호부호형 금지에 대한 원망 X)	△ (호부호형 금지에 대한 원망 X)	○	○	○
64	여덟 김동등시 입송	○ 홍문이 김동을 꾸짖음	○	○ 홍문이 김동을 꾸짖음	○ 홍문이 김동을 꾸짖음	○	○	○
65	홍모의 참 길동 판별	○ (붉은 점 일곱)	○ (왼편 다리 붉은 점 여덟)	○ (왼편 다리 붉은 점 일곱)	○ (왼편 다리 붉은 점 일곱)	○ (붉은 점)	○ (붉은 혈점)	○ (좌편 다리 붉은 혈점)
66	홍모의 실신	△ (답답한 마음에 실신함)	○	△ (우구한 마음에 실신함)	△ (우구한 마음에 실신함)	○	○	○
67	홍모의 회생 (이합을 갈아서)	○ (환약 두 개씩)	○ (환약 두 개씩)	○ (환약 두 개씩)	○ (환약 두 개씩)	○ (환약 두 개씩)	○ (환약 일 개씩)	○ (환약 일 개씩)

	김동욱 89장본	완판 36장본	정명기 77장본	국중도 70장본	김동욱 28장본	박순호 86장본	세창서관본	김광순 28장본
68	길동의 소명 (삼년 후에 조선을 떠날 것을 약속)	△ (길동이 자신을 변호하며 무고한 이의 재물을 빼앗지 않았고 불도를 비난하며 변명함)  여덟 길동이 죽었으나 참 길동은 간 데 없고 인편만 죽어있음	○	△ (길동이 자신을 변호하며 무고한 이의 재물을 빼앗지 않았고 불도를 비난하며 변명함)  여덟 길동이 죽었으나 참 길동은 간 데 없고 인편만 죽어있음	△ (길동이 자신을 변호하며 무고한 이의 재물을 빼앗지 않았고 불도를 비난하며 변명함)  여덟 길동이 죽었으나 참 길동은 간 데 없고 인편만 죽어있음	○ (삼년 후)	○ (십년 후)	○
69	길동의 병조판서 요구	X	○	X	X	○	○	○
70	임금이 길동 포획시도	X	○	X	X	X	X	X
71	인현에게 길동 포획 재촉	○ (십일 내로)	○	○	○	X	○	○
72	길동과 인현 재회 (선화당 대들보 위)	○	○ (선화당 들보 위)	○ (선화당 들보 우회)	○ (선화상 들보우회)	○	○	○
73	길동 압령(인현의 초인 확인 및 부모와 처자 없는 장교 선정)	○	X	○ (초인 염려 X)	○	○ (부모 친척 지반무의한 장교)	○	○
74	길동 살해 계획 (도감포수)	○	X	○	○	○	X	X
75	길동 포박 실패 및 압령 장교 원찬	△ (장교 원찬 생략)  길동이 사대문에 방을 붙여 병조판서를 요구함  길동이 육갑신장을 부려 조정에 자신을 참소하는 자를 결박하여 징계함  길동이 중놈 백여 명과 경화자제 십여 명을 잡아 친국함	○	△ (장교 원찬 생략)  길동이 사문에 방을 붙여 병조판서를 요구함  길동이 육갑신장을 부려 조정에 자신을 참소하는 자의 심복을 결박하여 징계함  길동이 중놈 백여 명과 경화자제 십여 명을 잡아 친국함	○  길동이 육갑신장을 부려 조정에 자신을 참소하는 자의 심복을 잡아드려 징계함 (십여 인명)  길동이 중놈 백여 명과 경화자제 십여 명을 잡아 호령함	○	△ (장교 원찬 생략)	△ (장교 원찬 생략)
76	병조판서 제수 및 길동의 숙배	X	○ (사대문)	X	○	○	○	○
77	백관들의 길동 살해 모의 (도부수)	X	X	X	X	○ (군사)	○	○

	김동욱 89장본	완판 36장본	정명기 77장본	국중도 70장본	김동욱 28장본	박순호 86장본	세창서관본	김광순 28장본
78	길동의 능력 발휘 및 임금의 포기	△ (임금이 길동을 칭찬하며 병조판서 제수 후 작난이 없자 길동 잡는 령을 거둠)	○	△ (임금이 길동을 칭찬하며 병조판서 제수 후 작난이 없자 길동 잡는 령을 거둠)	△ (임금이 길동을 칭찬하며 병조판서 제수 후 작난이 없자 길동 잡는 령을 거둠)	○	○	○
79	길동이 남경행 및 가점 선정 (일봉산)	X	X	X	X	X	○ (오봉산)	○ (오봉산)
80	길동의 명령 (양구양처, 경성 서강으로 배를 몰아 올 것)	X	X	X	X	X	○ (양전강변)	○ (양전강변)
81	임금과 길동의 만남 (추구월 망일)	△ (삼년 후)	○ (추구월 망일)	△ (삼년 후)	△ (삼년 후)	○ (삼년 후 추구월 망일)	○ (추구월 망간)	○ (추구월 망간)
82	길동의 정조 구득 (삼천 석)	○	○ (마지못하여, 백미 삼천 석)	○	○ (정조 삼천 석)	○ (정조 천 석)	○ (정조 일천 석)	○ (정조 일천 석)
83	길동이 눈을 뜨지 않는 사유 제시	○	○	○	○	○ 조선의 가족과 재회	○	○
84	서강에서 정조 삼천 석 준비 (선혜랑청)	○ (대동당상, 삼천 석) 길동이 성도에서 세력을 키움	○ (선현창 당상) 길동이 성중에서 세력을 키움	○ (대동당상) 길동이 성도에서 세력을 키움	○ (대동당상, 삼천석) 길동이 성도에서 세력을 키움	○	○ (선혜당상)	○ (선혜당상)
85	제도 선중으로의 이주와 생활	X	X	X	X	○	○	○
86	길동의 망당산행	○	○	○	○	○ (안광산)	○	○
87	박용의 딸 실종 (락천현, 십팔 세)	○	○	○	○ (나이 십팔)	○ (박용)	○	○
88	활로 울동 대장을 상해 (처사를 잡아가는 것을 보고, 이후 피 자취를 쫓아 감)	△ (이유 없이 울동을 쏘고 밤을 지내고 피 흘린 것을 따라감)	△ (울동을 잡아 세상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 것이며 활로 쏜 뒤 밤을 흘린 피를 쫓아감)	△ (이유 없이 울동을 쏘고 밤을 지낸 후 피 흔적을 따라감)	△ (이유 없이 울동을 쏘고 밤을 지낸 후 피 흔적을 따라감)	△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울동을 쏘고 피 자취를 따라감)	(이유 없이 울동을 쏘고 밤을 지내고 악물에게 발견됨)	○ (울동을 보는 것이 처음이라 없애고자 활을 쏘고 피 자취를 따라감)
89	길동의 의원 변장 및 울동 소굴 진입 (한 여자가 자살 하려는 것을 두 여자가 말림)	△ (여자의 자살 시도 X)	○	△ (여자의 자살 시도 X)	△ (여자의 자살 시도 X)	○		○
90	울동 대장 살해	○	○	○	○	○	○	○

	김동욱 89장본	완판 36장본	정명기 77장본	국중도 70장본	김동욱 28장본	박순호 86장본	세창서관본	김광순 28장본
91	울동 무리와 길동의 대결 및 승리	O	O	O	O	O	O	O
							두 여자가 서로 붙들고 죽으려 함	두 여자가 서로 죽으려 함
92	세 명의 양가 여자 구원 (정씨, 조씨, 락천현 백룡의 딸)	O (백룡의 여자, 정통 양인)	O	O (백룡의 여자, 정통 남인)	O	O (합천현 백룡의 딸, 정가, 조가의 딸)	△ (두 명의 여자를 구함)	△ (두 명의 여자를 구함)
93	길동의 혼인 (백룡의 딸을 처로, 두 양가 여자를 첩으로 삼음)	O (세 여자를 부인으로 맞음)	O	O	O	O	△ (두 여자를 처로 삼음)	△ (두 여자를 처로 삼음)
94	길동의 고백 (삼년 후)	O	O	O	O	X	O (칠월 망간)	O
95	백소저의 위로 (도망키 어려운 것이 사람의 팔자)	O (근본을 감추지 아니하니 장부로다)	O (근본 감이 엿시물 분 장부로 이라)	O (근본을 감추지 아니하니 참 장부로다)	O (근본을 감추지 아니하니 장부로다)	X	O	X
96	중의 모습으로 조선 복귀	△ (중의 모습X)	O	△ (중의 모습X)	O	O	O	O
97	홍모의 죽음(팔십, 추구월 망간, 춘섬에게 당부 및 한탄)	O (홍모 나이 구십, 중의 모습 X)	O (홍모 나이 구십, 추구월 망일)	O (홍모 나이 구십)	O (구십, 추구월 망일)	O (구십)	△ (팔십, 춘섬과의 대화 생략)	△ (팔십, 춘섬과의 대화 생략)
98	길동과 인현 부인과 춘섬의 재회	△ (중의 모습 X)	O	△ (중의 모습 X)	△ (중의 모습 X)	O	O	O
99	길동의 당부 (문호의 해 걱정)	X	O	X	X	X	X	X
		길동이 홍문의 장지를 정했음을 알리고 인현을 안내함		길동이 홍문의 장지를 정했음을 알리고 인현을 안내함	길동이 홍문의 장지를 정했음을 알리고 인현을 안내함		길동에게 장지선정 위임	길동에게 장지선정 위임
100	길동의 못자리 제안과 인현의 거절	O	O	O	O	O	X	낙장
101	길동이 정한 장지에서 신이한 현상 발생(붉은 안개와 백학)	O (청학)	O (백학)	O (청학 백학 한 쌍)	O (오색 그은과 청학 한 쌍)	O (붉은 안개, 봉황 한 쌍)	X	낙장
102	길동의 장지 재안내	O	O	O	O	O	O	낙장

	김동욱 89장본	완판 36장본	정명기 77장본	국중도 70장본	김동욱 28장본	박순호 86장본	세창서관본	김광순 28장본
103	길동과 춘삼 동행 허락 (십년)	○	○ (십년)	○	○	○ (십년)	○ 인현이 길동에게 전후사를 묻고 길동이 답함	낙장
104	홍모의 제사 (인현이 산역 법질이 국릉과 같음을 칭찬함)	X (인현이 장지의 형세가 능노 같음에 놀라자 길동이 안심시킴)	○ (길동이 정한 장지가 능소와 같아 놀람)	X (인현이 장지의 형세가 능소 같음에 놀라자 길동이 안심시킴)	X (인현이 장지의 형세가 능소 같음에 놀라자 길동이 안심시킴)	○	○ (길동이 정한 장지가 국릉과 같아 인현이 놀람)	낙장
105	춘삼과 자부의 만남 (일희일비)	X	○ (자부 등을 사랑함)	X	X	X	○	낙장
106	인현의 조선 복귀	○ (이별의 정회 강조)	○	○ (이별의 정회 강조)	○ (이별의 정회 강조)	○	○	낙장
107	길동의 삼년상	○	○	○ (삼년을 지내여)	○	○	○	낙장
108	제도섬 근처 룰도국 소개 (대국을 섬기지 않음)	제도섬 근처의 룰도국 소개 (중국을 섬기지 않음)	○ (대조를 섬기지 않음)	○ (중국을 섬기지 아니하고)	○ (중국을 섬기지 아니하고)	○ (대국을 섬기지 않음)	○	낙장
109	길동의 군대 규모 소개 (마군 십만, 보군 십만)	X	△ (기병 삼만, 북병 이십)	X	X	○ (마병 수십만, 북병 팔십만)	X	낙장
110	길동의 룰도국 침략 제안	○	○	○	○	○	○	낙장
111	룰도국 침략 (갑자 추구월 망일에 초나라 주아부의 풍채 같이)	○	○	○	○	○ (갑자 추구월) 철봉 태수 김현충과의 대결과 항복 (길동의 오방신장)	○	낙장
112	칠십여 성 정복 후 룰도국 왕에게 격서 전달 (성탕과 무왕의 고사)	○ (성탕, 무왕)	○ (성탕 고사)	○ (성탕, 무왕 고사)	○ (성탕, 무왕)	○ (성탕, 무왕) △ (철봉만 빼앗음, 탕이 범결, 무왕 벌쥬) 민고 있던 철봉태수를 잃자 왕과 세자, 왕비가 자결함	○	낙장
113	룰도국 왕의 출진	○	○	○	○	○	X	낙장
114	룰도국 왕이 패배 후 자결	○	△ (아들도 자결)	○	△ (아들도 자결)	○	X	낙장

	김동욱 89장본	완판 36장본	정명기 77장본	국중도 70장본	김동욱 28장본	박순호 86장본	세창서관본	김광순 28장본
115	률도국 정벌 (률왕 부자의 시신을 거두어 왕례로 장사)	○ (율도왕만 장례)	X	○	○	○	X	낙장
116	길동의 즉위 및 작위 수여 (십이월 갑자일, 안남국)	○	○ (삼월 갑자일)	○	○	○	○ (을축 정월 조구일)	낙장
117	백성의 격양가 (요지일월이요 순지건곤이라)	X	○ (적양가, 요수 적 백성인가 적 시절신가)	X	X	○	X 길동이 지난날을 소회하며 감상에 젖음	낙장
118	정조 반환 및 표문 전달 (한림학사 장회)	X	X	X	X	△ (정조 반환 X)	○ (부원군 백용)	낙장
119	인금의 칭찬과 인현의 룰도국 방문 허락	X	X	X	X	○	○	낙장
120	현덕왕비와 인현의 룰도국 방문	X	X	X	X	△ (인현만 방문)	○	낙장
121	조선 왕의 교지 확인	X	X	X	X	○	X	낙장
122	부인과 인현이 홍모의 산소 방문 (십여 일만에, 제도 류수와 참봉이 영접함)	X	X	X	X	X	X	낙장
123	대부인 사망 (칠십팔 세, 삼 삭만에, 설릉)	X	X	X	X	X	○	낙장
124	인현의 복귀 (삼년상 이후)	X	X	X	X	X	○	낙장
125	춘녕왕비의 죽음 (정구월 망일 칠십 삼월의 설릉 우편에 안장)	○ (칠십삼 세)	○ (칠십세 명자 구월 망간, 현릉 좌편)	○ (칠십삼 세)	○ (칠십삼)	○	○	낙장
126	길동이 자식 소개 (삼자를 두어 세자를 불하고 각각 직위를 수여함)	△ (삼자 이녀)	○	X	△ (삼자 이녀)	X	△ (삼자 이녀)	낙장
127	길동의 생활 (1) (길동 나이 육십, 등극한지 삼십여 년에 세자에게 제위를 넘기고 송과 함께 말을 이으며 비회를 금지 못함)	○ (길동 나이 칠십, 비회 X)	X	○ (길동 나이 칠십, 비회 X)	길동 나이 술을 칠십에 마시고 태평연을 배움	길동 나이 팔십에 일흥을 꾀함	길동 등극 삼십년 칠순에 영락전에서 노래를 부르며 살다 뒤 왕비와 열락하더니 송과 함께 왕과 왕비가 사라짐	낙장



	김동옥 89장본	완판 36장본	정명기 77장본	국중도 70장본	김동옥 28장본	박순호 86장본	세창서관본	김광순 28장본
128	길동의 생활 (2) (길동과 왕후가 도성 삼심 리에 위치한 명사산에서 도를 닦음)	O (월영산)	X	O (월영산)	O (월영산)	-	X	낙장
129	길동의 퇴장 (신기한 현상과 더불어 모비와 함께 사라짐)	X	O	O	O		X	낙장
130	길동 퇴장 이후의 서사 (왕과 그 동생들이 애용하며 경성에서 발상하고 현릉니를 지어 종사를 받들)	X	X	X	O (선도를 닦아 백일 승전)		X	낙장
		율도국의 태평과 조선의 상황 소개 (대부인 줄. 인현 지위 상승)	인현이 조선에서 길동을 함 그리워 함	길동이 신전이 됨	율도국의 태평과 조선의 상황 소개 (대부인 줄. 인현 지위 상승)		왕이 또한 삼자를 두었고 계계승승해서 왕업을 누림	

[<홍길동전> 인명 비교표]

	필사본 89장본	조종업본	김동옥 18장본	동양문고본	한글박 32장본	김동옥 47장본	경판 30장본	정우락본
임금	선종대왕	세조	세종대왕	세종	-	세종	세종	세종
길동부	홍모재성 [우상] [송상] [현덕왕]	홍모[지상] [우송상]	홍모[지상] [현덕왕]	홍모 [니조판서][현덕왕]	홍모현덕왕	홍모[니조판서]	홍모[니조판서] [지상] [현덕왕]	홍모[지상] [현덕왕]
길동모	홍인형[리조좌랑][리조참의][경상감사][경상도 도백][리판]	홍인형 [니부좌랑] [경상감사]	홍인형 [이조좌랑]	홍인형 [병조좌랑]	홍인형[좌랑] [경상감사]	홍인형[병조 좌랑] [경상감사] [참판]	홍인형[좌랑] [병도좌랑] [경상감사] [참판]	홍인형 [이조좌랑]
대부인	대부인 [현덕왕후]	유부인	유씨 [현덕왕비]	유씨 [현덕왕후]	유씨 [현덕왕비]	유씨 [현덕왕비]	유씨 [현덕왕비]	유씨 [현덕왕비]
길동모	춘섬 [왕대비]	춘섬	춘섬 [디빙]	춘섬 [타왕비]	춘섬 [디비]	춘섬	춘섬 [디비]	춘섬 [태왕비]
길동	홍길동 [병조판서]	홍길동	홍길동 [병조판서]	홍길동 [병조판서]	홍길동 [병조판서]	홍길동 [병조판서]	홍길동 [병조판서]	홍길동
애첩	초남·곡산모	초남·곡산모	초남	초남·곡산모	초남·곡산모	초남·곡산모	초남·곡산모	초남·곡산모
관상자	관상녀	관상지	관상여	상주	관상녀	관상니	관상네	상주
무녀	무녀	무녀	무여	무녀	무녀	문여	무녀	무여
자객	특재	특지	특지	특지	특재	특지	특지	특지
포도대장	리흠 [포장]	니흠 [포도대장]	리업 [우포장]	니흠 [우포장]	-	니흠 [우포장]	니흠 [우포장] [포도대장]	이흠 [포도대장]

김동 姆父	백룡 [부원군]	-	백룡 [부원군]	백룡 [부원군]	백룡 [부원군]	백룡	백룡 [부원군]	백룡 [부원군]	
			조철 [부원군]	도철	조철 [부원군]	조철	도철 [부원군]		
집승	울등	-	-	울등	울등	울등	울등	울등	
김동 妻 ①	정씨 [총열좌부인]	-	궁여	명시 [숙열우부인]	궁인	비인	궁인	명시 [출열좌부인]	
	조씨 [총열우부인]							도시 [숙열우부인]	
김동 妻	백소저 [현덕왕후]	-	백씨:[왕비]	백시:[왕비]	백씨:[왕비]	백씨:[왕실]	백시:[왕비]	백시 [왕비]	
			조씨 [왕비]	조시 [총열좌부인]	조씨 [왕비]	조씨 [왕실]	도시 [왕비]		
김동 軍	무통 [부장] [순무인찰사]	-	-	허만달, 굴돌통, 장 길, 김수, 최도기, 최 도성, 허만대, 거귀 장군, 허만충, 김용 철, 모골다, 김일다, 니의경, 영창, 명기, 명슈	마숙 [좌승상]	마숙 [후군상] [좌승상]	마숙 [후군상] [좌승상]	둘통	
	장희 [한림학사]				김제우승상	조채위승상	최철우승상	김녕슈	
				명희 [한림학사]	최철 [순무인찰사]	김질 [순무인찰사]	김길 [순무인찰사]	의경 정희 [한림학사]	
율도왕	률왕	-	-	눌도왕	률도왕	율도왕	율도왕	률왕	
율도 軍	-	-	-	김현충 [철봉티수] [원용수]	김현충 [철봉티수]	겸형충 [철봉티수]	김현충 [철봉티수]	김현충 [철봉티수]	
				문주석					
김동 子女	홍선 [왕비 소생] [세자]	-	홍현 [백씨 소생]	-	홍현 [백씨 소생]	홍현 [백씨 소생]	홍현 [백씨 소생]	홍현 [백씨 소생]	
	홍창 [정부인 소생] [제도군]				홍창현 [표씨 소생]	홍창 [표씨 소생]	홍창 [표씨 소생]	홍창 [표씨 소생]	홍창 [표씨 소생]
	홍향 [조부인 소생] [제도백]				홍열현 [궁여 소생]	홍열 [표씨 소생]	홍열 [비인 소생]	홍열 [궁인 소생]	홍석 [도시 소생 삼자]
	이여 (二女) [궁여 소생]	이녀 (二女) [궁인 소생]	홍혜란 [비인 소생 일녀]	이녀 (二女) [궁인 소생]					
					홍향난 [비인 소생 이녀]				
	필사본 89장본	완판 36장본	정명기 77장본	국종도 70장본	김동욱 28장본	박순호 86장본	세창서관본	김광순 28장본	
입금	선종대왕	세동대왕	세동대왕	숙종대왕	세종대왕	세종대왕	세종		
김동 父	홍모 [재상] [우상] [승상] [현덕왕]	홍문 [합림] [이조판서] [승상] [티조대왕]	홍문 [합림] [니조판서] [좌의정] [우승상] [현덕왕]	홍모 [합림] [티조대왕]	홍문 [합림] [이조판서] [좌의정] [승상] [티조대왕]	홍모(某) [우의정] [평숙형제]	홍모 [리조판서] [현덕왕]	홍모 [리조판서]	
김동 兄	홍인현 [리조좌랑] [리조참의] [경상감사] [경상도 도백] [리판]	홍길현 [이경호] [경조판서] [경상도 감사] [병조판서] [경조판서] [경상도 감사] [병조판서] [경조판서] [경상도 감사] [병조판서] [경조판서] [경상도 감사] [병조판서]	홍길현 [이경호] [경조판서] [경상도 감사] [병조판서] [경조판서] [경상도 감사] [병조판서] [경조판서] [경상도 감사] [병조판서]	홍길현 [이조판서] [경조판서] [경상도 감사] [병조판서]	홍길현 [이경호] [경조판서] [경상도 감사] [병조판서] [경조판서] [경상도 감사] [병조판서] [경조판서] [경상도 감사] [병조판서]	홍일형 [승지] [경조판서] [경조판서] [경상도 감사] [병조판서]	홍인형 [병조좌랑]	홍인형 [병조좌랑] [경상감사]	
대부인	대부인 [현덕왕후]	디부인	디부인	모부인	디부인	디부인	류씨	모부인	

길동 똥	춘섬 [왕대비]	춘섬 [왕대비]	춘섬 [왕후]	[왕대비]	춘섬 [왕대비]	춘섬 [평일왕후]	춘섬 [대비]	춘섬
길동	홍길동 [병조판서]	홍길동 [병조판서]	홍길동 [병조판서]	홍길동 [병조판서]	홍길동 [병조판서]	홍길동 [병조판서]	홍길동 [병조판서]	홍길동 [병조판서]
애첩	초낭 곡산모	초낭 곡산모	초낭 곡산모	초낭 곡산모	초낭 곡산모	초낭 곡산모	초랑 곡산모	초랑 곡산모
관상자	관상녀	관상녀	상자	관상여	관상녀	관상여	관상녀	관상녀
무녀	무녀	무녀	무여	문여	무녀	무여	무녀	무녀
자객	특재	특즈	특즈	특지	특즈	특지	특재	특지
포도대 장	리흠 [포장]	이엽 [포도대장]	이흠 [포도대장]	이엽 [포도대장]	이협 [포도대장]	이엽 [포도대장]	리흠 [우포장]	이흠 [우포장]
길동 똥	백룡 [부원군]	빅용 [부원군]	빅용 [부원군]	빅용 [부원군]	빅용 [부원군]	빅용	백룡 [부원군]	빅룡
		정통 양인	정조 양인	정통 양인	정통 양인	정가 췌가	췌철 [부원군]	췌철
짐승	을등	을등	을금	을등	을등	을등	을등	을등
길동 똥	정씨 [충렬좌부인]	정통 양인 [정숙비]	정씨 [정철부인]	정통 양인 [정숙비]	정통 양인 [정숙비]	정씨	-	-
	췌씨 [충렬우부인]		췌씨 [충열부인]					
길동 똥	백소저 [현덕왕후]	빅씨 [증전 왕비]	빅씨 [왕비]	빅씨 [증전왕비]	빅씨 [증전왕비]	빅시 [디힝왕비]	백소저 [왕비]	빅소저
길동 똥	무통 [부장] [순무안찰사]	삼호걸 [디스마] [디장군]	사만군	삼호걸 [디스마] [디장군]	삼호걸 [대스마] [디장군]	김수걸 [좌승상]	마속 [좌승상]	-
	장희 [한림학사]	김인수 [후군장] [청주절도 사]	김익순 [후군장] [군도장]	김인수 [후군장] [청주절도 사]	김인수 [후군장] [청주절도 사]	최이엽 [형조판서]	김지 [우승상]	
	-	밍춘 [부원수]	유면초	밍춘 [부원수]	밍춘 [부원수]	김성용 [우응군]	췌철 [순무안찰사]	
	-		에기			이훈열 [좌판서]		
-	만충		빅호손 [좌중군]					
-	-	-	서성인 [우응봉]					
을도왕	를왕	을도왕	을왕	을도왕	을도왕	을왕	-	-
을도 똥	-	한석	-	학석	향석	최일영	김현충 [철봉태수]	-
	-	-	-	-	-	훈집티		
	-	-	-	-	-	빅이문		
길동 똥	홍선 [왕비] 소생 장자 [세자]	홍향 [장자]	홍창 [빅씨 소생 장자]	-	-	-	홍현 [백씨 소생 장자]	홍향 [장자]
	홍창 [정부인 소생] [제도군]	-	홍선 [조씨 소생 차자]				홍창	
	홍향 [조부인 소생] [제도백]	-	홍석 [장씨 소생 삼자]				홍열 [조씨 소생]	

<홍길동전> 지명, 물명 비교표]

김동옥 89장본	조종업본	김동옥 18장본	동양 문고본	한글판 32장본	김동옥 47장본	경파 30장본	정우락본
운봉산	운봉산	운봉산	운봉산	운봉산	운봉산	운봉산	운봉산
승례문	승인문	흥인문	흥인문	흥예문	흥인문	흥인문	흥인문
취혈	굴혈	적굴	굴혈	굴혈	구혈	굴혈	구혈
하인사 (합천)	하인스 (합천)	하인스 (합천)	히인스 (합천)	히인스 (협천)	흥인스 (협천)	하인스 (합천)	힝인스 (합천)
소부석	소부석	초부석	돌	돌	바회	돌	쇼부석
활빈당	활빈당	활빈당	활빈당	활빈당	활빈당	활빈당	활빈당
함경감영	함경감영	함경감영	함경감영	-	흙흙	함경감영	함성감영
프정스	높은 뫼	노푼 뫼	높은 뫼	뫼	뫼	뫼	놉푼 디
경상도 문경	문경	문경	문경	-	문경	문경	문경
암상	높은 뫼	바외	놉흔 바회	-	놉힝 바회	놉흔 바회	놉흔 바회
장안 북악산	장안 북악산	한양선 북악산	장안중 북악	-	장안성 부각	장안성 북악	장안성 북악
선화당	-	-	-	-	-	-	선화당
남경	-	남경	남경	남경	남경	남경	남경
늪도국	-	울도국	늪도국	룰도국	울도국	룰도국	룰도국
일봉산	-	요동산	오봉산	오봉산	오봉산	오봉산	일봉산
경성 서강	-	경성 서강	경성 한강	경성 한강	경성 훈강	경성 한강	경성 한강
정조	-	디동미	정도	정조	정조	정조	정조
선혜량청	-	디동당상	선혜당상	선혜당상	선혜당상	선혜당상	혜청당상
제도 섬죽	-	제도슴	제도섬	도섬	게도섬	제도섬	제도 섬뜰
망당산	-	-	망당산	망당산	망당산	망당산	망당산
락천현	-	하남촌	남경	락천	낙천디	낙천	낙천편
일봉산	-	-	원봉산	월봉산		월봉산	월봉산
-	-	철봉	철봉산성	철봉산하	철봉산하	철봉산하	철봉
룡린갑	-	-	용닌 보신갑	-	-	-	-
청총마	-	-	총이마	-	-	-	-
양관	-	-	양관	-	-	-	양관
안남국	-	-	-	-	-	-	-
설릉	-	설능	선능	선릉	신능	선능	선능
명신산	-	-	영산	-	-	-	영신산
-	-	영락정	-	영락던	역낙전	영낙전	-
현릉	-	-	현능	현릉	영능	형능	영능

김동욱 89장본	완판 36장본	정명기 77장본	국중도 70장본	김동욱 28장본	박순호 86장본	세창서관본	김광순 28장본
운봉산	-	무덤산	-	-	-	운봉산	운봉산
승래문	동디문	홍화문	흥인문	동디문	서문	흥인문	흥인문
취혈	적굴	구혈	천국	적굴	근혈	굴혈	굴문
하인사 (합천)	하인사 (경상도 합천)	하인사 (합천)	하인사 (경상도 합천)	하인사 (합천)	훈닌사 (합천)	해인사 (협천)	하인사 (협천)
소부석	초부석	비석	초부석	초부석	청부석	돌	돌
활빈당	활빈당	하여미당	활빈당	활빈당	활빈당	활빈당	활빈당
함경감영	함경감영	함경괴명	함경곰영	함경감영	함경감영	함경감사	함경감영
프경소	놉푼 봉	놉푼 디	놉흔 봉	놉푼 봉	노푼 디	뫼	-
경상도 문경	문경	문경	문경	문경	문겨	문경	문경
암상	츨압 절벽	바회	츨압 절벽	츨압 절벽	미 강소	놉흔 바회	방우
장안 북악산	장안 북악	장안 부악간	장안 부악	장안 북악	중안 북악소	장안성 북악	장안성 북악
선화당	선화당	선화당	선황당	선화상	선화당	-	-
남경	-	남경	-	-	남경	남경	남경
늑도국	울도국	육도국	울도국	울도국	-	룰도국	룰도국
일봉산	-	-	-	-	-	오봉산	오봉산
경성 서강	서강	서강	서강	서강	서강	경성 환강	경성 환강
정조	정조	빅미	정조	정조	전조	정조	정조
선혜량청	디동당상	선현창 당상	디동당소	디동당상	-	선혜당상	선혜당상
제도 섬중	성도	섬등	성도	성도	제도 성중	제도	제도섬
망당산	망당산	망당소	망당산	망당산	안평소	망당산	망당산
락천현	낙천현	낙천골	낙천현	낙천현	-	락천	락천현
일봉산	일봉산	일봉소	일봉산	일봉칭	-	월봉산	월봉산
-	-	-	-	-	-	철봉산하	-
룡린갑	-	-	-	-	-	-	-
청총마	-	-	-	-	-	-	-
양관	양관	양안	양관	양관	-	-	-
안남국	-	-	-	-	망신국	-	-
설릉	현덕능	현능	현덕능	현덕능	-	선릉	-
명신산	월영소	연신산	월명산	월영소	-	-	-
-	-	-	-	-	-	영락년	-
현릉	-	-	-	-	-	현릉	-
-	-	여홀능	-	-	-	-	-